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8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onitoring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Health Care Resources, Korea, 2008)

오영호·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8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25

---

발 행 일 2008년 12월  
저 자 오 영 호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8,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35-0 93510

조사관리자

☐ 시·도 담당자:

시도	담당자
서울	박경길
부산	조상용
대구	김남탑
인천	김진옥
광주	홍상의
대전	윤원옥
울산	장오석
경기	홍장선
강원	최순열
충북	김대근
충남	윤석길
전북	김인정
전남	이원길
경북	이인수
경남	이광주
제주	윤승환

☐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서울시	종로구	김민선	서울시	도봉구	신종태
	중구	박주영		노원구	김숙련
	용산구	조효빈		은평구	장진호
	성동구	지원호		서대문구	최용진
	광진구	이은주		마포구	권광남
	동대문구	김상태		양천구	조현숙
	중랑구	김양지		강서구	김미선
	성북구	안호준		구로구	황인숙
	강북구	강금화		금천구	권현주

□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서울시	영등포구	이승복	서울시	강남구	박영숙
	동작구	김경연		송파구	박해경
	관악구	가순옥		강동구	성윤섭
	서초구	한인옥			
부산시	중구	김문영	부산시	해운대구	이정원
	서구	오향이		사하구	김필근
	동구	소익수		금정구	이경자
	영도구	김은영		강서구	박상건
	부산진구	서영기		연제구	안부호
	동래구	성환일		수영구	정진산
	남구	안승태		사상구	신봉철
	북구	이인수		기장군	곽신철
대구시	중구	신동선	인천시	중구	손명희
	동구	전미정		동구	이정원
	서구	성윤정		남구	임영근
	남구	강수희		연수구	박종임
	북구	장돈호		남동구	김봉희
	수성구	정연주		부평구	한근상
	달서구	정영범		계양구	안석균
	달성군	한승호		서구	정혜림
				강화군	김순천
				옹진군	류주민
광주시	동구	김민수	대전시	동구	손근영
	서구	안해경		중구	권효숙
	남구	민영아		서구	정구자
	북구	강태규		유성구	이인숙
	광산구	정경		대덕구	박영우
울산시	중구	유병순	울산시	북구	김용숙
	남구	김준기		울주군	강태길
	동구	박옥희			

□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경기도	수원시장안	윤병삼	경기도	이천보건소	이명숙
	수원시권선	전현택		김포보건소	김지영
	수원시팔달	홍경표		광주보건소	최미숙
	영통보건소	김택수		안성보건소	정연규
	성남시수정	임진희		하남보건소	김선영
	성남시중원	김성태		의왕보건소	이주호
	성남시분당	최봉길		오산보건소	유혜진
	원미보건소	송정원		여주보건소	문미숙
	소사보건소	정찬식		양평보건소	하영란
	오정보건소	김태완		과천보건소	황기석
	만안보건소	홍영진		덕양보건소	김연희
	동안보건소	김경자		일산동구보건소	심재철
	단원구보건소	한연숙		일산서구보건소	황규영
	상록수보건소	심재익		의정부보건소	현지연
	처인보건소	김정금		남양주보건소	이철웅
	기흥보건소	이정미		파주보건소	임미숙
	수지보건소	김옥연		구리보건소	손은숙
	평택보건소	정금숙		포천보건소	이연숙
	송탄보건소	유용국		양주보건소	명태옥
	광명보건소	차종환		동두천보건소	김성진
	시흥보건소	오혜경		가평보건소	최동희
	군포보건소	탁미자		연천보건의료원	김선화
	화성보건소	이미연			
강원도	춘천시	심영희	강원도	영월군	신학수
	원주시	정명순		평창군	김경순
	강릉시	박금자		정선군	이경희
	동해시	지용만		철원군	김경복
	태백시	최호연		화천군	반완수
	속초시	정성수		양구군	오경희
	삼척시	이현훈		인제군	김종찬
	홍천군	고성현		고성군	탁순화
	횡성군	원혜연		양양군	오유정

□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충청북도	청주시상당보건소	신정식	충청북도	영동군	나은규
	청주시홍덕보건소	박종하		증평군	배금희
	충주시	김경택		진천군	김순성
	제천시	이경호		괴산군	김미경
	청원군	지동식		음성군	신문호
	보은군	김기혜		단양군	김용구
	옥천군	육혜수			
충청남도	천안시	박영임	충청남도	연기군	김혜숙
	공주시	백인희		부여군	이신옥
	보령시	김혜림		서천군	나성구
	아산시	민승자		청양군	허경선
	서산시	김경희		홍성군	최유수
	논산시	임금순		예산군	김양진
	계룡시	정은아		태안군	송종진
	금산군	이영림		당진군	황경희
전라북도	전주시	허정근	전라북도	진안군	김명순
	군산시	나정심		무주군	전영수
	익산시	최미숙		장수군	조현희
	정읍시	류성호		임실군	진안나
	김제시	장은주		순창군	곽태용
	남원시	서유미		고창군	유연님
	완주군	유미숙		부안군	김정희
전라남도	목포시	김경희	전라남도	보성군	정현숙
	여수시	이재상		화순군	천명경
	순천시	양현심		장흥군	문 희
	나주시	나영희		강진군	최홍례
	광양시	박효진		해남군	주형천
	담양군	유성임		영암군	최문형
	곡성군	김효순		무안군	박정근
	구례군	정경옥		함평군	이안림
	고흥군	김영옥		영광군	김종구

□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장성군	박형래		진도군	서용우
	완도군	배정남		신안군	강정희
경상북도	포항남구	임동욱	경상북도	군위군	정윤자
	포항북구	이석도		의성군	권기백
	경주시	권선영		청송군	김성한
	김천시	윤현숙		영양군	배재수
	안동시	금교현		영덕군	송병옥
	구미구미	정영식		청도군	조승옥
	구미선산	이명희		고령군	김건순
	영주시	박철환		성주군	윤재형
	영천시	이희열		칠곡군	김운태
	상주시	홍순덕		예천군	서승균
	문경시	정선교		봉화군	박정호
	경산시	황혜숙		울진군	남화옥
				울릉군	김명자
경상남도	창원시	이종민	경상남도	함안군	옥행자
	마산시	김정숙		창녕군	권규나
	진주시	강승현		고성군	김영순
	진해시	김창준		남해군	김민주
	통영시	김효상		하동군	진 학
	사천시	황옥순		산청군	권영채
	김해시	문창곤		함양군	신민주
	밀양시	김재련		거창군	백봉재
	거제시	송영호		합천군	이혜정
	양산시	이은숙			
	의령군	허희자			
제주도	제주보건소	황선건	제주도	서귀포보건소	김신혁
	동부보건소	김진숙		동부보건소	양병화
	서부보건소	조수연		서부보건소	김경환

## 머 리 말

국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공급과 이들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의료서비스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소득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건강과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개선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의 형평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이용과 보건의료자원분포의 조사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관련한 전국 규모와 그리고 지역별로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 그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와 보건의료자원공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수립의 효율성 그리고 건강과 의료이용의 계층 간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화되어 가는 의료에 적절히 대응하며, 보건의료서비스자원의 적정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



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보건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 하에 원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구진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유근춘 연구위원과 허순임 부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 목 차

Abstract .....	17
요 약 .....	19
I. 서론 .....	39
1. 조사배경 .....	39
2. 조사목적 .....	39
3. 조사의 법적 근거 .....	41
II. 조사개요 .....	42
1. 추진배경 .....	42
2. 조사목적 .....	42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43
4. 조사내용 .....	43
5. 조사방법 .....	44
6. 조사교육 및 조사지도감독 .....	46
7. 추진일정 .....	48
III.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 .....	49
1.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	49
2.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	75
3.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	83

IV.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	94
1.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	94
2. 보건의료인력의 국제비교 .....	97
3. 주요의료장비의 국제비교 .....	104
V. 요약 및 정책과제 .....	112
1. 요약 .....	112
가. 지역별 보건의료시설현황 .....	112
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	113
다.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	114
라. 주요 국가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	115
2. 정책과제 .....	116
참고문헌 .....	118
[부록 1: 조사표] .....	123

## 표 목 차

〈표 III- 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I)	50
〈표 III- 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	54
〈표 III- 3〉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포함)	58
〈표 III- 4〉	병의원 진료과 현황	59
〈표 III- 5〉	지역별 병의원 진료과 현황	60
〈표 III- 6〉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62
〈표 III- 7〉	지역별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63
〈표 III- 8〉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현황	64
〈표 III- 9〉	지역별 한방병의원 진료과 현황	65
〈표 III-10〉	지역별 입원병실 및 병상 수 분포	66
〈표 III-1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수	68
〈표 III-1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진료과 분포	71
〈표 III-1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병의원 진료과 분포	73
〈표 III-1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74
〈표 III-1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원병실수 및 입원병상수 분포	75
〈표 III-16〉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77
〈표 III-17〉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인력 현황	82
〈표 III-18〉	지역별 고가장비 현황	84
〈표 III-19〉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고가장비 현황	89
〈표 IV- 1〉	OECD 국가의 급성 병상수	95
〈표 IV- 2〉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수	96
〈표 IV- 3〉	OECD 국가의 활동의사 수	100
〈표 IV- 4〉	OECD 국가의 활동 치과의사수	101
〈표 IV- 5〉	OECD 국가의 활동 간호사수	102
〈표 IV- 6〉	OECD 국가의 활동 약사 수	103

〈표 IV- 7〉 OECD 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	107
〈표 IV- 8〉 OECD 국가의 MRI 보유대수 .....	108
〈표 IV- 9〉 OECD 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	109
〈표 IV-10〉 OECD 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	110
〈표 IV-11〉 OECD 국가의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보유대수 .....	111

## 그림 목차

〔그림 I - 1〕 2008년도 국민보건자원공급 조사방법 .....	44
〔그림 III- 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	51
〔그림 III- 2〕 지역별 병원 분포 .....	51
〔그림 III- 3〕 지역별 치과병원 분포 .....	51
〔그림 III- 4〕 지역별 한방병원 분포 .....	52
〔그림 III- 5〕 지역별 보건기관 분포 .....	52
〔그림 III- 6〕 지역별 약국 분포 .....	52
〔그림 III- 7〕 지역별 개인 설립 의료기관 분포 .....	57
〔그림 III- 8〕 지역별 국공립 의료기관 분포 .....	57
〔그림 III- 9〕 지역별 입원병상 수 .....	67
〔그림 III-10〕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	67
〔그림 III-1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	69
〔그림 III-1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원 현황 .....	69
〔그림 III-1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병원 현황 .....	69
〔그림 III-1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원 현황 .....	70
〔그림 III-1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기관 현황 .....	70
〔그림 III-1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약국 현황 .....	70

[그림 III-17]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원 병상수 .....	75
[그림 III-18]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	76
[그림 III-19]	지역별 치과의사인력 현황 .....	76
[그림 III-20]	지역별 한의사 인력 현황 .....	80
[그림 III-21]	지역별 간호사 인력 현황 .....	80
[그림 III-2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인력 현황 .....	81
[그림 III-2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인력 현황 .....	81
[그림 III-2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의사인력 현황 .....	81
[그림 III-2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인력 현황 .....	82
[그림 III-2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약사인력 현황 .....	82
[그림 III-27]	국내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 .....	85
[그림 III-28]	지역별 혈관조영장치(ANGIO) 현황 .....	86
[그림 III-29]	지역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현황 .....	86
[그림 III-30]	지역별 Gamma Camera 현황 .....	86
[그림 III-31]	지역별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	87
[그림 III-32]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	87
[그림 III-33]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	87
[그림 III-34]	지역별 체외충격파쇄석기(ESWL)현황 .....	88
[그림 III-35]	지역별 단층촬영장치(Mammography) 현황 .....	88
[그림 III-36]	지역별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	88
[그림 III-37]	인구 10만 명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	90
[그림 III-38]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혈관조영장치(ANGIO) 현황 .....	90
[그림 III-39]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현황 .....	91
[그림 III-40]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Gamma Camera 현황 .....	91
[그림 III-4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	91
[그림 III-4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	92
[그림 III-4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	92
[그림 III-4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 현황 .....	92
[그림 III-4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현황 .....	93

[그림 III-4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93
[그림 IV- 1]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수	94
[그림 IV- 2]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	97
[그림 IV- 3]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	98
[그림 IV- 4]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수	98
[그림 IV- 5]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약사 수	99
[그림 IV- 6]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 수	99
[그림 IV- 7]	OECD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104
[그림 IV- 8]	OECD국가의 MRI 보유대수	105
[그림 IV- 9]	OECD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105
[그림 IV-10]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106
[그림 IV-11]	OECD국가의 Mammographs 보유대수	106

## **Abstract**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onitoring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 Health Care Resources, Korea, 2008-)**

#### **1. Objectives**

-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health care resources monitoring system aimed a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 **2. Methods**

- Nationwide on-line survey based on the web system called HRSIC(Health Care Resources & Service Information Center)

#### **3. Procedures**

- To develop health care resources monitoring system
- To publicize the survey to people in charge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medical institutions.
- To conduct the health care resources survey of health care institutions such as clinics and hospitals
- To conduct a follow-up survey to increas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urvey data
- To manage health care resources monitoring system and analyze the survey data

#### **4. Results**

- Results of the survey
- As of June 2008, the total number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orea including pharmacy is 80,167. The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is 29,861 which accounts for 37.2 % of the total number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pharmacies make up 26.0% with 20,809 places nationwide. The number of beds for inpatient is 456,230.
- As of June 2008, 74,394 physicians, 19,974 dentists, 15,165 herb doctors, 105,933 qualified nurses, 103,957 assistant nurses and 32,138 pharmacists, including part-time employees are working in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including drugstores.



- As of June 2008, the number of medical equipments in Korea is as follows: ANGIO 362; CR·DR 1,553; gamma camera 318; PET 70; CT scanner 1,688; MRI 801; ESWL 617; mamographs 2,220; and radiation therapy equipment 242.

□ Policy implications

- Supply regulations of acute and long-term care bed are needed. According to the bed supply trends of OECD countries, acute and long-term care beds have been decreasing or stable. However, the number of acute and long-term care bed per capita in Korea is higher than the average number of those in OECD countries. Moreover, the trends in Korea seem to be on the ris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devise comprehensive measures to meet new and various health care needs for bed.
- Changes in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are needed to avoid over-supply of medical equipments. It is found that among the major medical equipments, the number of CT scanner, MRI, ESWL, and mammographs except radiation therapy equipment per million population is higher than the average number of those in OECD countries. The over-supply of medical technologies deepens supplier-induced demand, which may increase the national health care expenditur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the supply of medical technologies must be connected with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to control over-supply.
- There seem to be imbalances in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health manpower. So it is important that medical policies be developed to minimize and alleviate the inequality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health manpower.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onitoring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the demand and supply of health manpower and principles of the health manpower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The health manpower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th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ment of the health manpower allocation formula, re-establishment of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for primary health care physician and reinforcement of public health manpower. These plans should b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region, which performs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allocation policies for health manpower, especially primary health care physician providing essential medical care services such as primary health care service, emergency care service, baby delivery service and so on.

## 요 약

### 1. 조사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확립하여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2. 조사목적

-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함.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관련 통계요구 자료로 제시하기 위함.

###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대상: 2008. 6. 31. 현재 보건의료기관

- ▶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 포함)
-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전국의 약국

#### ■ 조사기간

- ▶ 본 조사기간: 2008. 8. 11.~2006. 8. 30. (지역별로 조사 일정이 다름)
- ▶ 보완조사 및 추후조사: 2008. 10. 1.~2008. 10. 15.

### 4. 조사방법

#### ■ 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 보건의료자원공급조사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eb 기반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전국보건의료기관대상 조사실시 홍보

- ▶ 시·도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를 소집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각 보건소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자원조사에 관한 안내문과 조사공문을 조사시작(조사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 전에 우편 발송함.

#### ■ 보건의료자원 조사 실시(보건소 및 보건의료기관)

- ▶ 보건의료자원조사는 각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각 보건소는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
- ▶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www.hrsic.go.kr](http://www.hrsic.go.kr))’에 들어가서 이미 웹(Web) 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함.

#### ■ 미완조사 보건의료기관조사 및 추후조사(Follow-up 조사)

- ▶ On-line을 통하여 조사할 수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전체의 5%정도로 추정됨.
- ▶ 이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조사표를 직접 발송하고 수거하여 입력토록 함.
- ▶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체조사기관의 10%정도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함.

#### ■ 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 및 보건의료자원공급분석

- ▶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담당함으로써 상시적인 보건의료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건의료기관 통계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함.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를 관리하고 분석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수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5. 조사내용

####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 ▶ 기관명, 주소지, 진료개시일, 기관종류, 설립구분, 환자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수(병실종류), 구급차, 급식시설, 영안실, 주차시설 등

## ■ 인력현황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관련 종사자 인력현황

## ■ 의료장비현황

- ▶ 주요 검사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치과용 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 등

## ■ 약국현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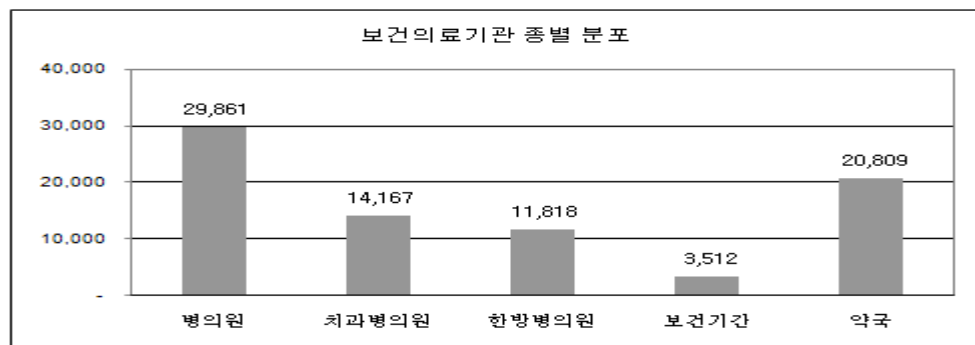
- ▶ 기관명, 주소지,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약사보조 인력현황 등

# 6.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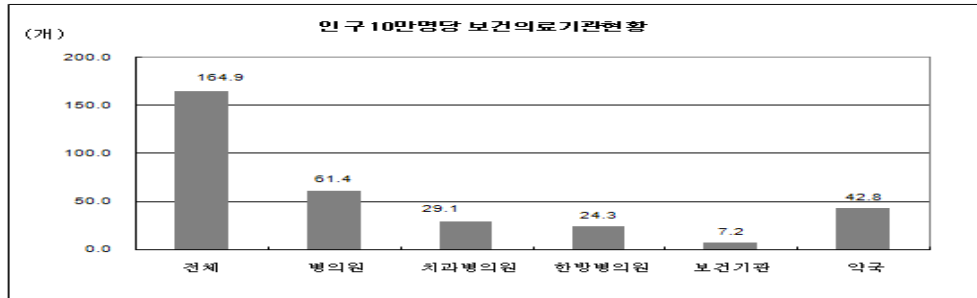
## 가. 지역별 보건의료시설현황

### ■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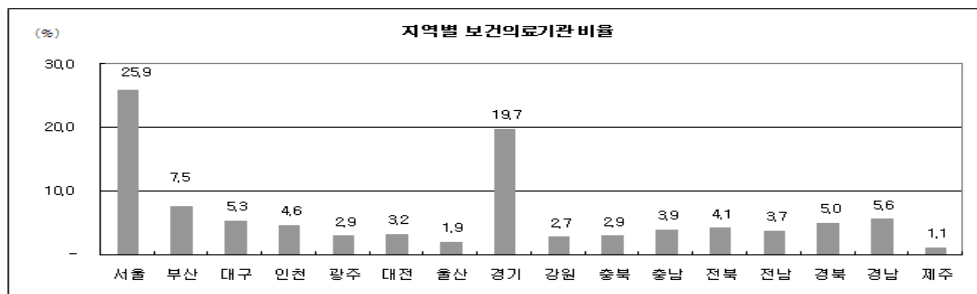
- ▶ 2008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7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29,861개로 37.2%, 그리고 약국은 20,809개로 26.0%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치과병의원은 14,167개(17.7%), 한방병의원 11,818개(14.7%), 보건기관은 3,512개(4.4%)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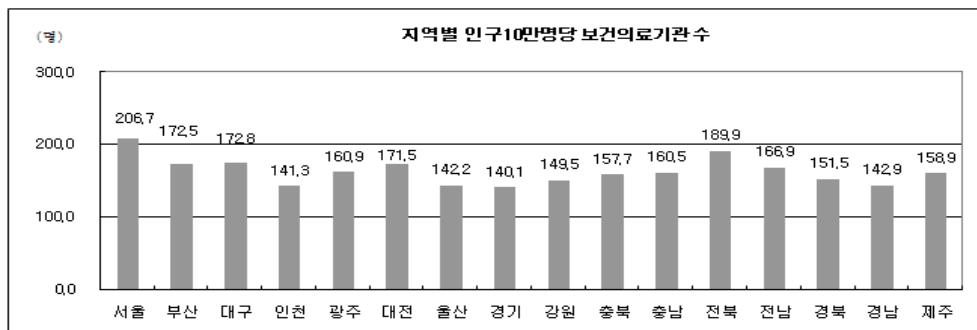
- ▶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9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은 61.4개, 치과병원은 29.1개, 한방병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2개, 약국 42.8개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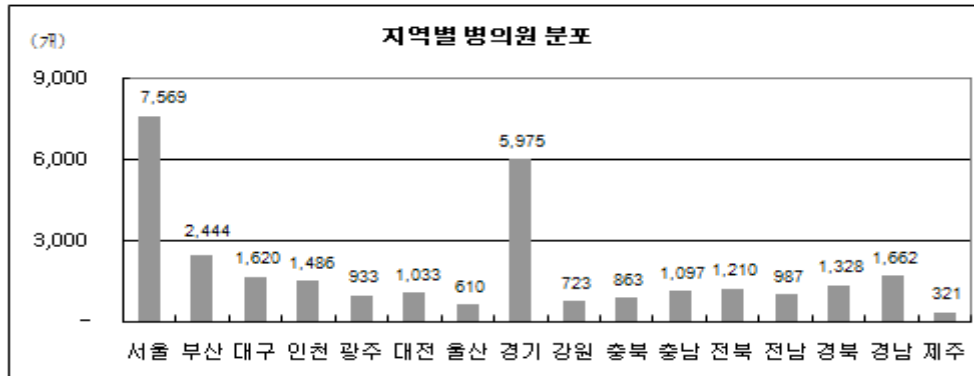
-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9%와 19.7%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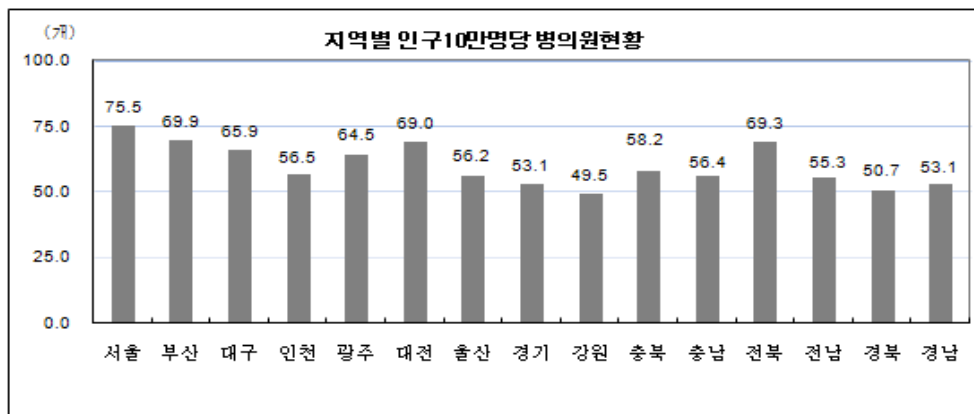
- ▶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140.1개로 조사되었음.



- ▶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569개, 경기도 5,975개, 부산 2,444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치과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429개, 경기도 3,059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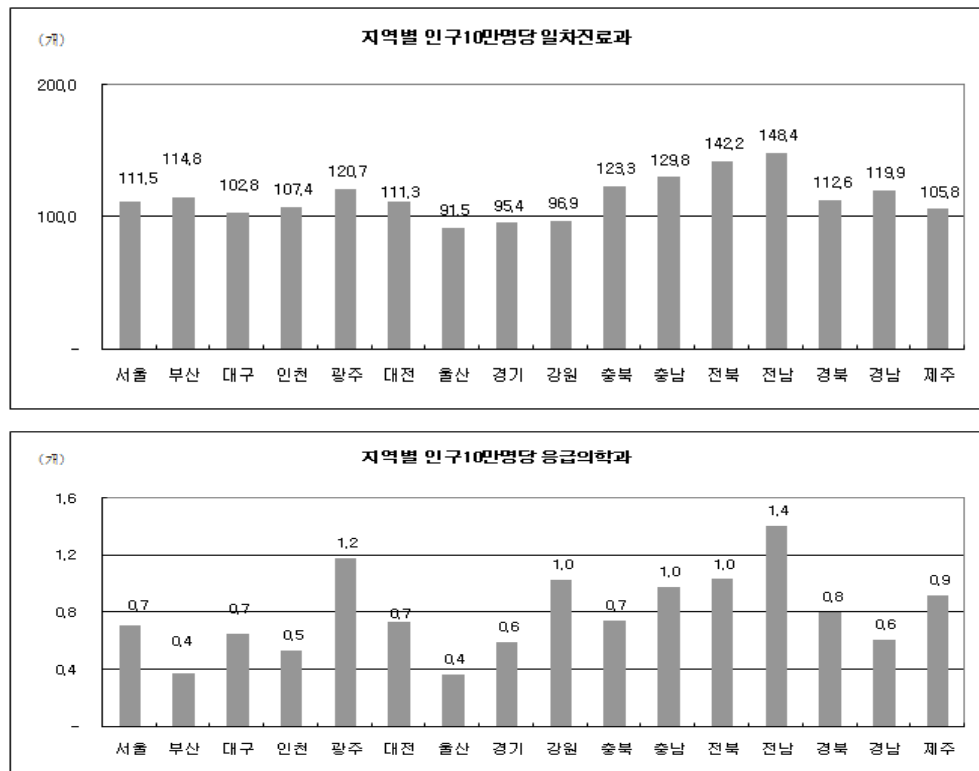


- ▶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5.5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49.5개로 조사되었음.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1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과 경북으로 각각 19.2개소로 나타났음. 한방병의원의 경우 서울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6.1개소로 나타났음.



## ■ 진료과 분포

- ▶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25,973개이며, 그 중 내과가 20,190개로 2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4,893개(16.9%)로 두 번째로 많았음.
- ▶ 인구 10만 명당 일차의료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는 110.8개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48.4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91.5개로 나타났음. 응급의학과는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4개로 가장 많았고 반면 부산지역이 0.4개로 가장 적었음.



- ▶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30,805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중 서울에 42,004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9,033개로 22.2%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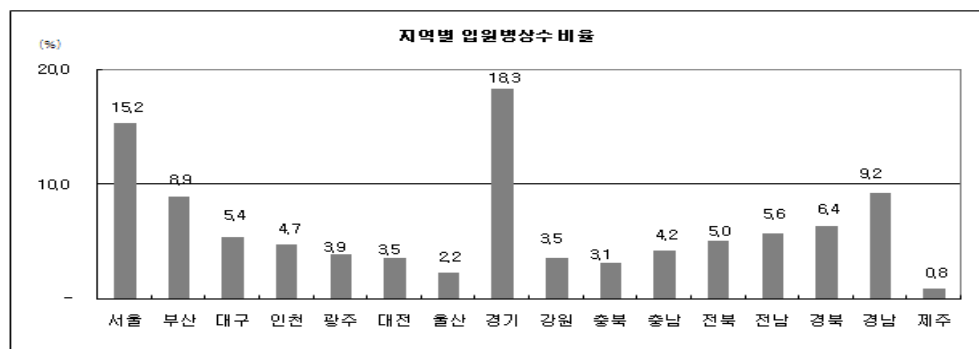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60%이상 개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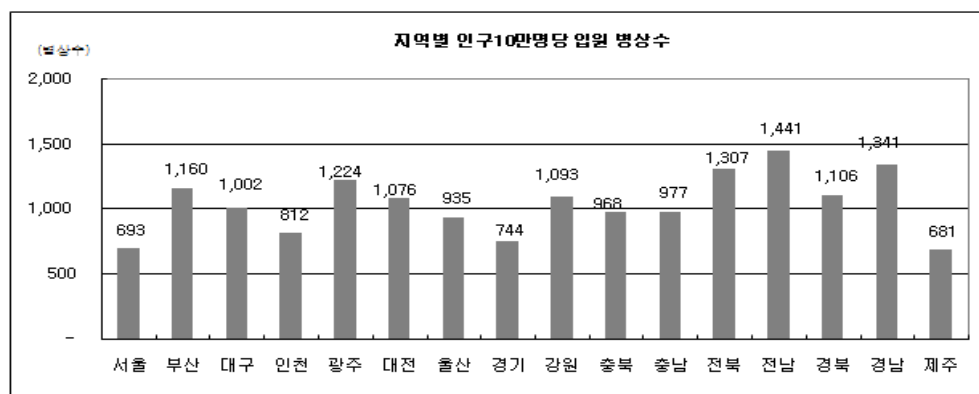
- ▶ 한방 병원의 진료과는 한방내과를 포함하여 10개 진료과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02,273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에 29,988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19,908개로 19.5%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정도가 개설되어 있음.

#### ■ 지역별 병상분포

- ▶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56,230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기지역에 83,669병상(18.3%)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은 서울로 69,534병상(15.2%)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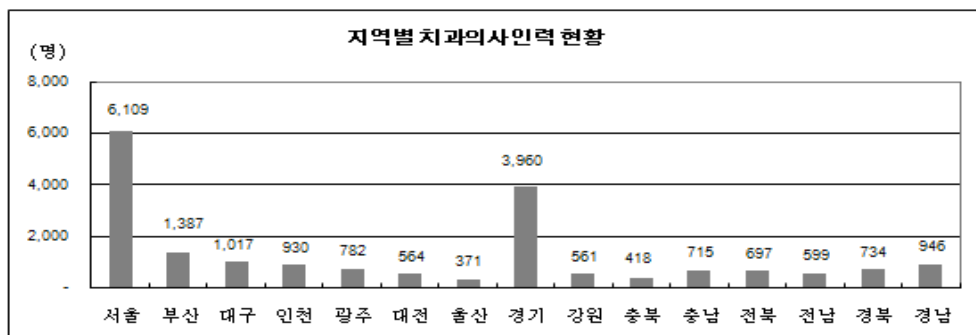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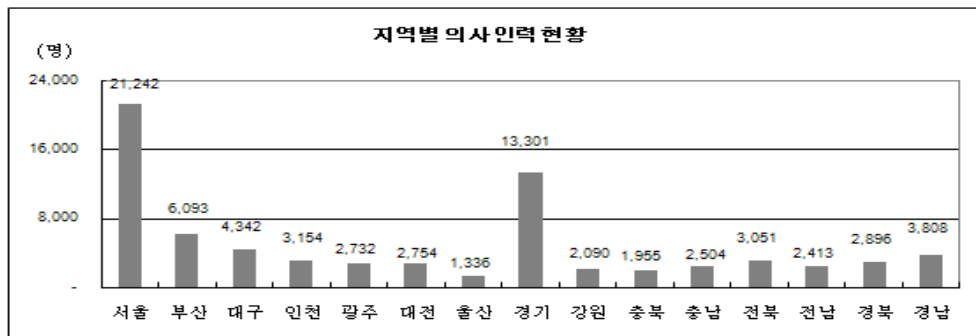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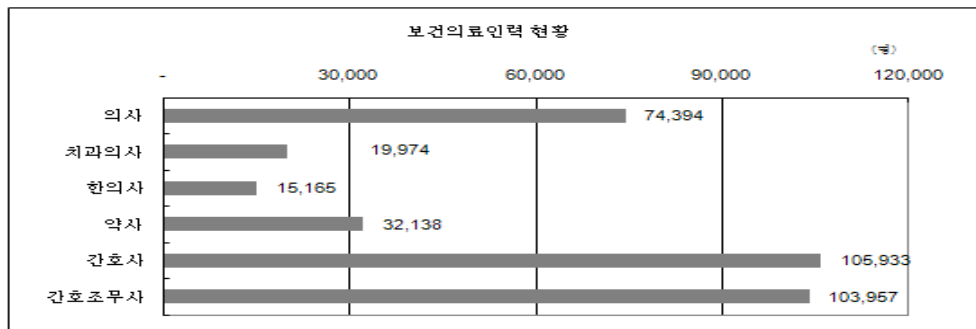
- ▶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441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81병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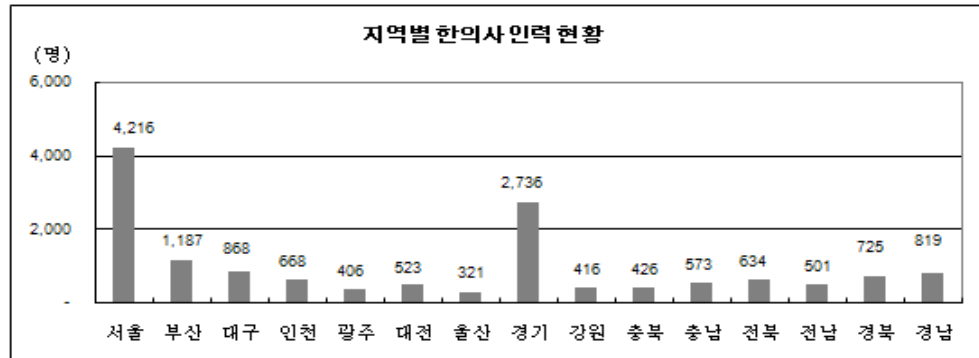


## 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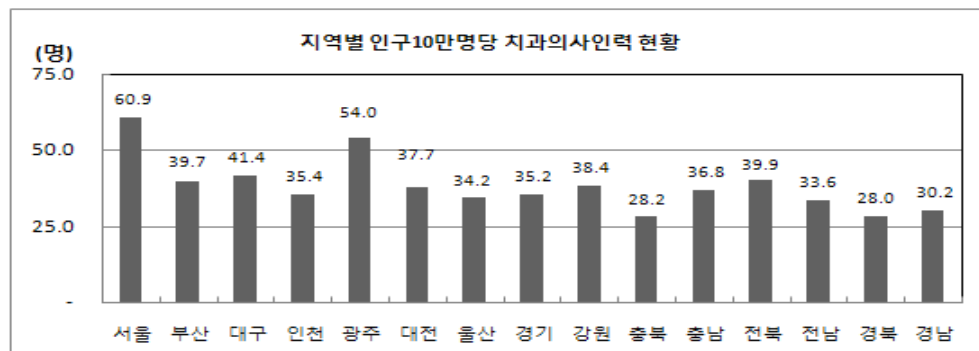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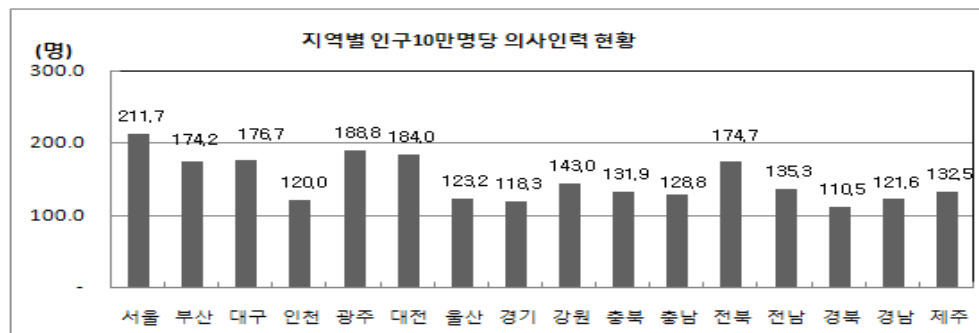
### ■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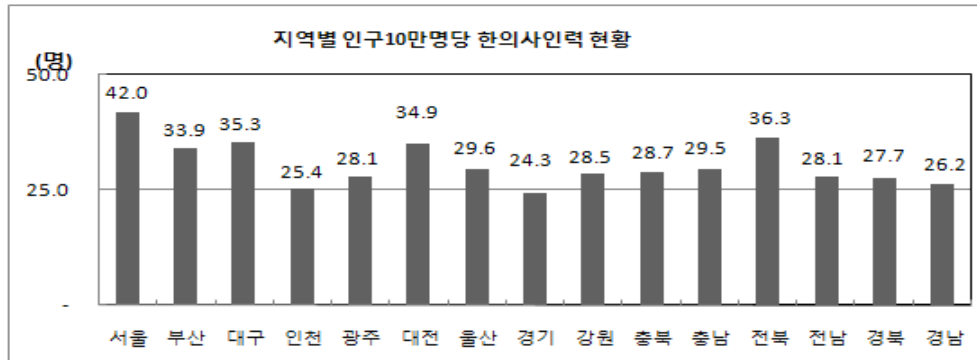
▶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비상근 포함)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수는 총 74,394명이고, 치과의사는 19,974명, 한의사수는 15,165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05,933명, 간호조무사 103,957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138명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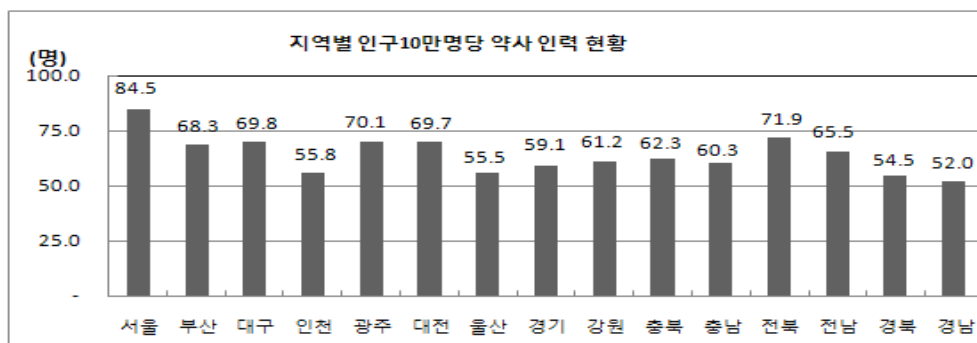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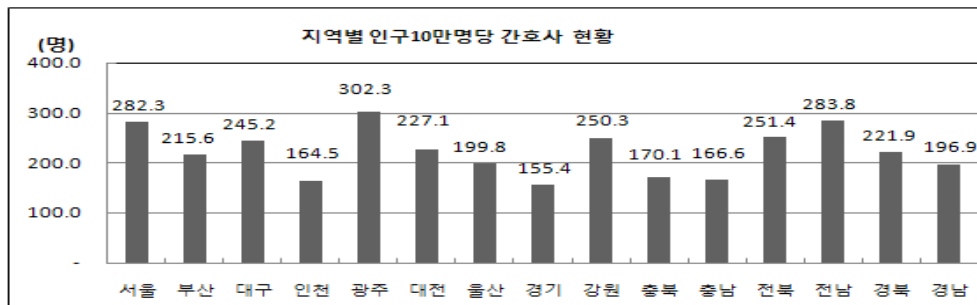


▶ 인구 10만 명당 주요 보건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53.1명, 치과의사 41.1명, 한의사 31.2명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서울이 2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광주 188.8명, 대전 18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110.5명으로 조사되었음.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는 서울이 60.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8.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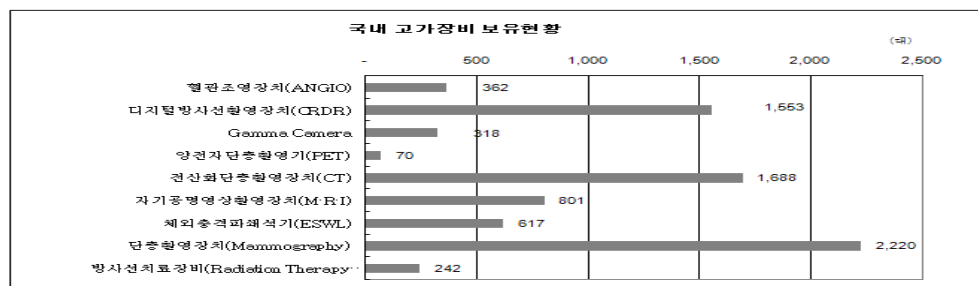
▶ 인구 10만 명당 지원보건의료인력은 간호사 217.9명, 약사(병원약사와 개업약사 포함) 66.1명, 간호조무사 213.9명, 임상병리사 32.6명, 방사선사 31.8명, 물리치료사 41.5명, 작업치료사 3.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4.3명과 40.1명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간호사는 광주가 3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5.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는 부산이 2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45.0명으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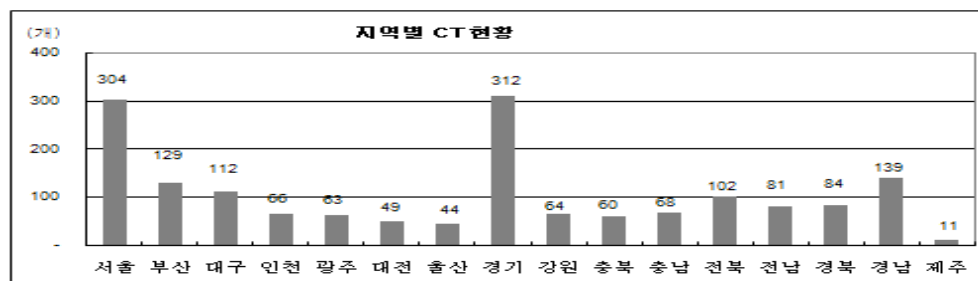
## 다.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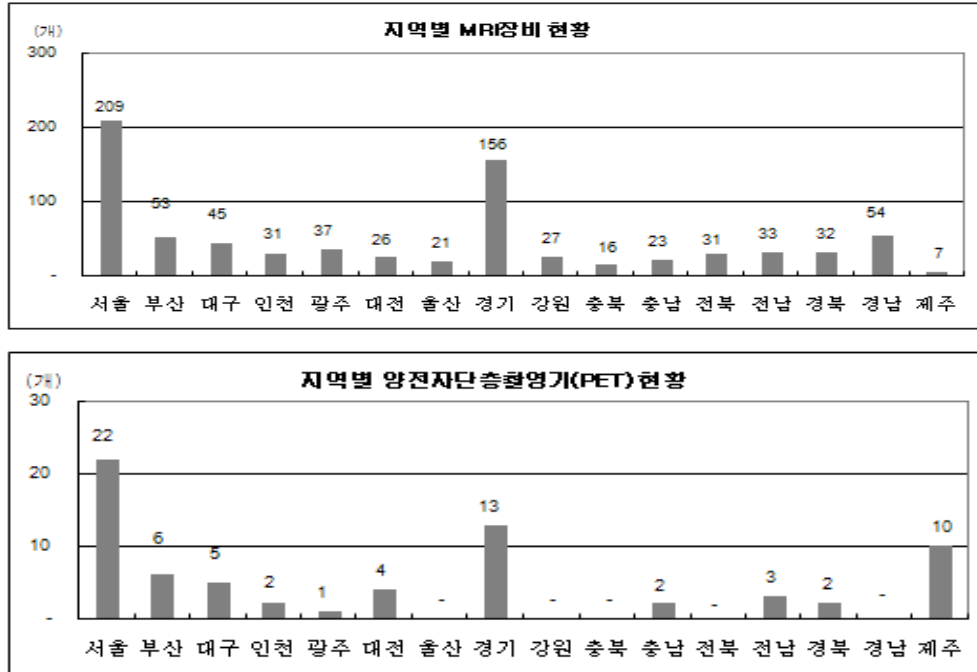
### ■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 ▶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중 혈관조영장치(ANGIO)는 362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1,553대, Gamma Camera 318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0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688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80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17대,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2,220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242대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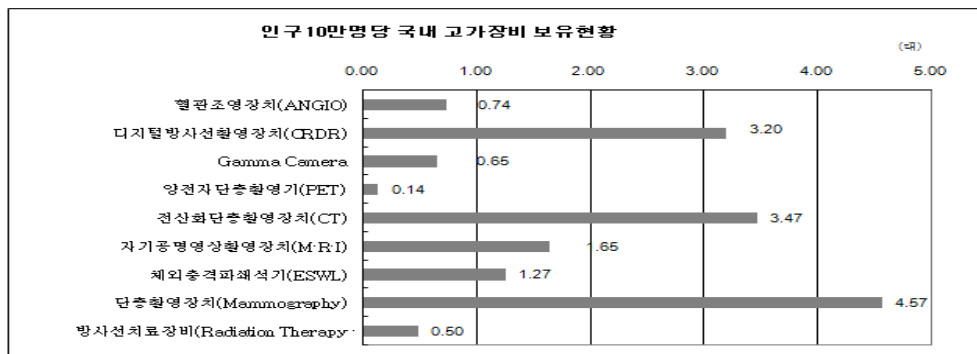
- ▶ 지역별로 보면 M.R.I.는 서울 209대, 경기 156대가 설치되어 전체 M.R.I.장비 중 45.6%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으며, CT의 경우는 서울에서 304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와 부산 순으로 각각 312대와 12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22대 경기지역에 13대가 설치되어 약 5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체외충격파쇄석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125대, 121대로 나타났으며, 경남과 부산이 각각 52대, 46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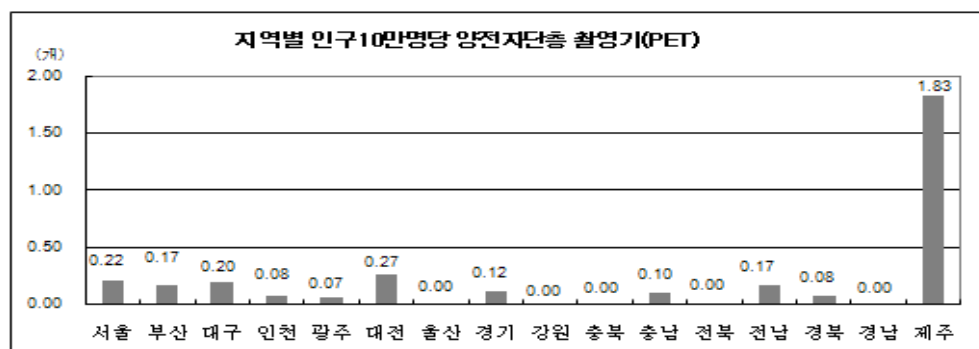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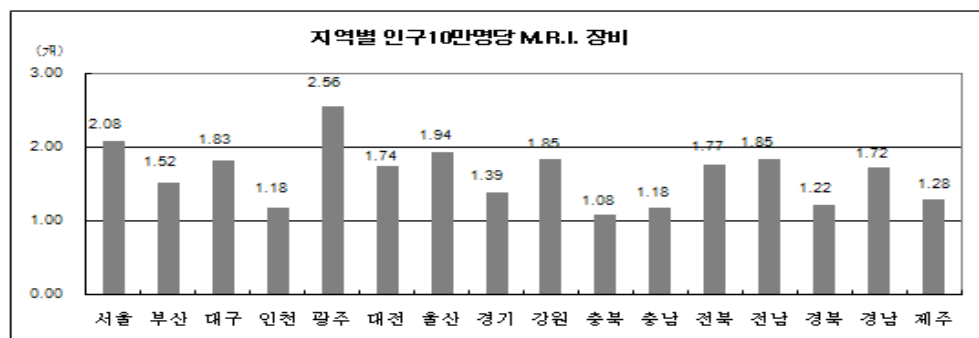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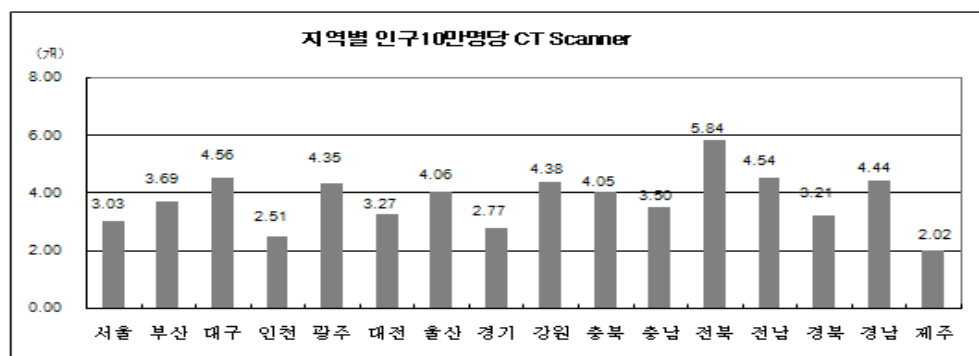


#### ■ 지역별 인구1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현황

- ▶ 인구 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74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3.20대, Gamma Camera 0.65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47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6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27대,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5.22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0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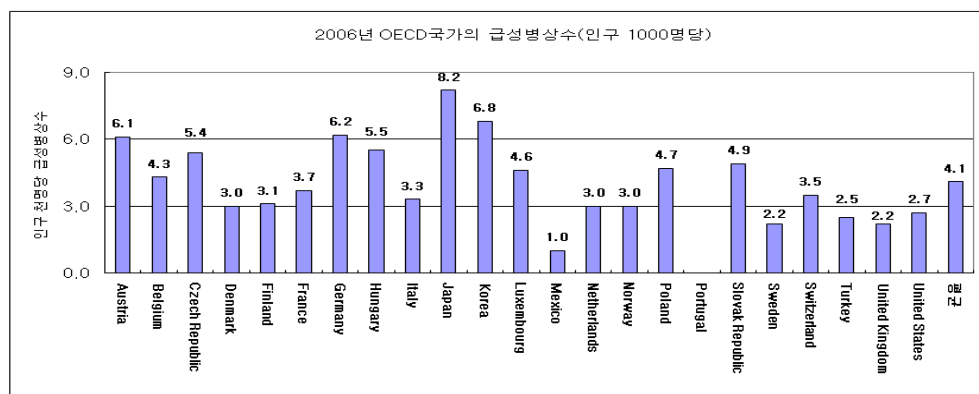
- ▶ 인구10만 명당 지역별 분포를 보면, CT는 전북이 5.84대로 가장 많고 제주가 2.02대로 가장 적었으며, MRI는 전남 광주에서 2.56대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08대로 나타났음. 단층촬영장치는 전남 광주에서 7.46대로 가장 많았고 제주지역이 4.22대로 가장 적었으며, 방사선치료장비는 대전지역이 0.80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이 0.14대로 가장 적었음.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전남 광주가 1.80대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0.99대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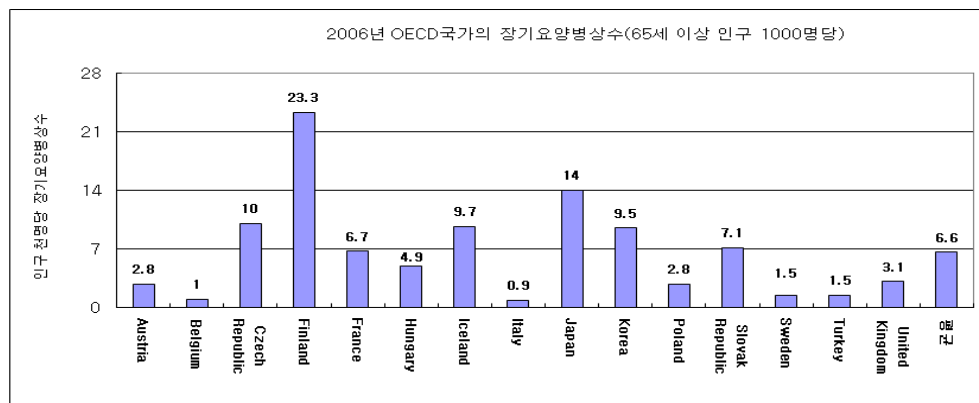
## 라. 주요 국가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 ■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 ▶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6.8병상으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인 4.1병상보다 1.6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5배와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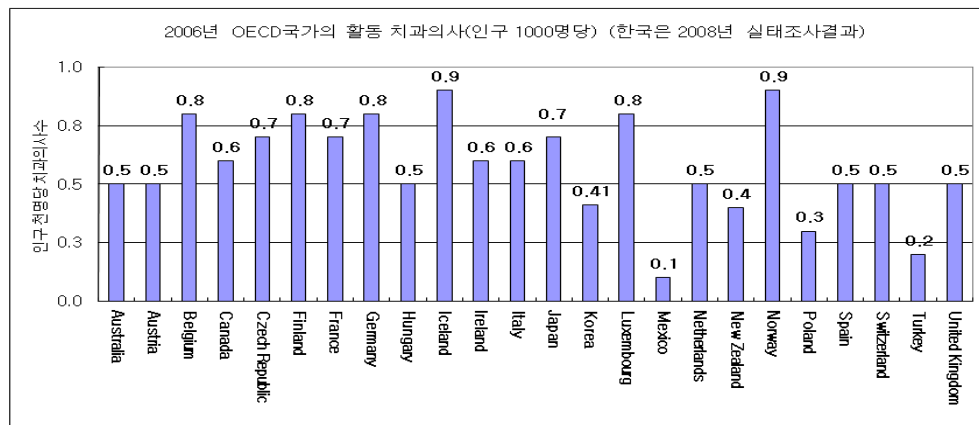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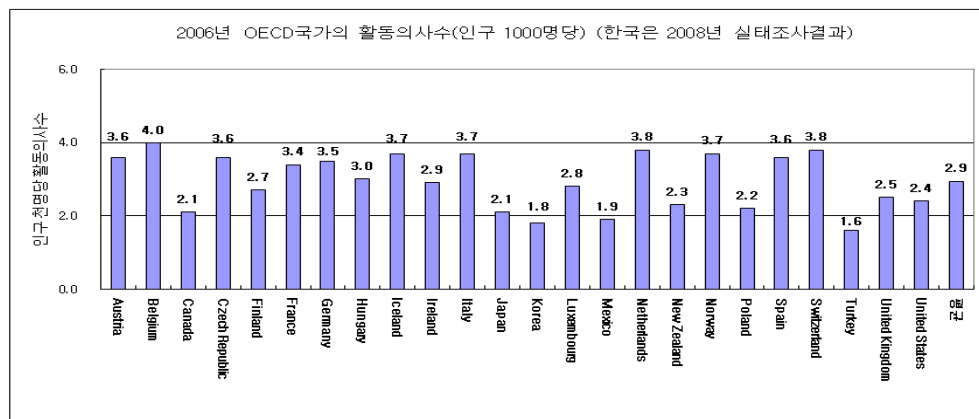
-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병상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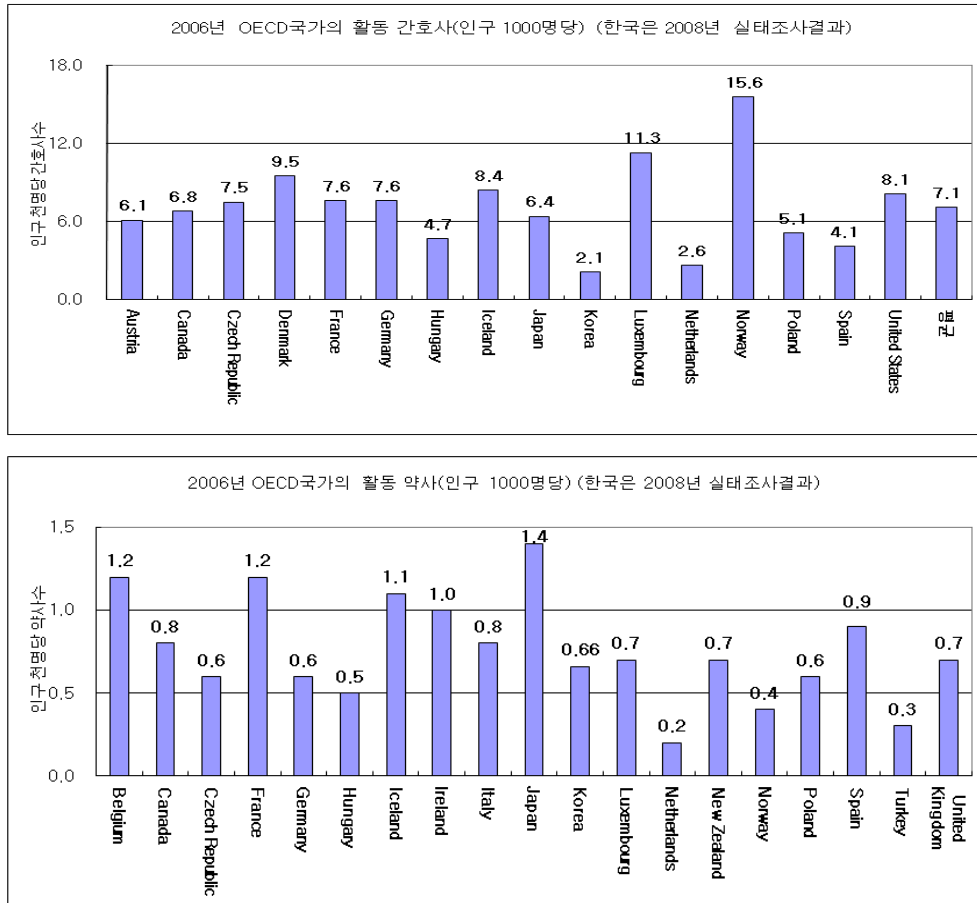




## ■ 보건의료인력 국제비교

- ▶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8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6배정도 많았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41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은 0.5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25배 높았음.
- ▶ 약사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6명으로 OECD국가평균인 0.7명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인 7.1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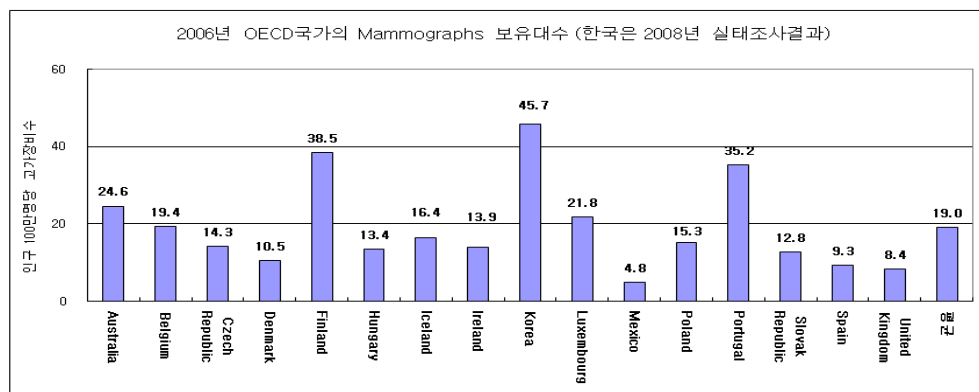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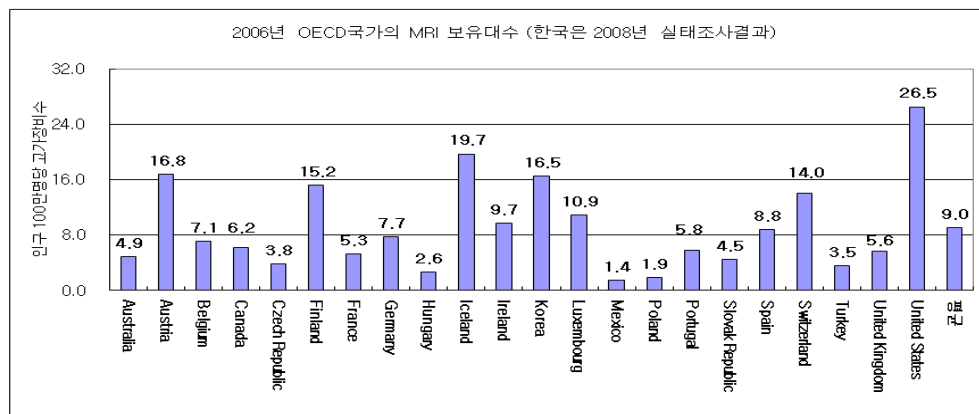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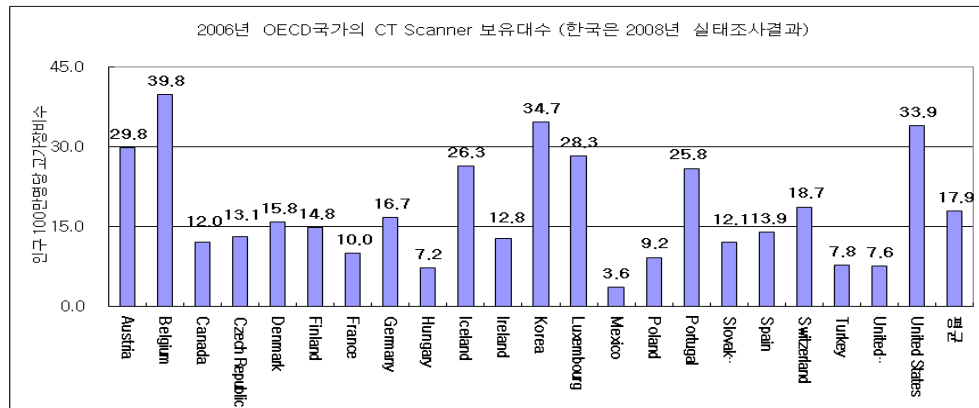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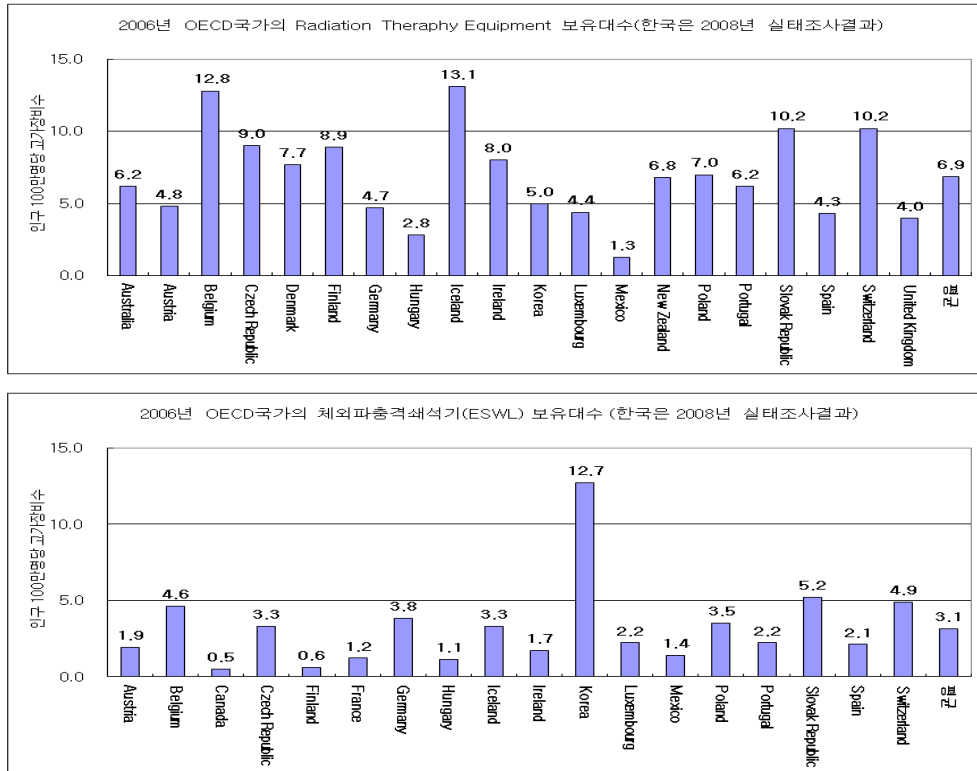


#### ■ 주요 의료장비 국제비교

- ▶ CT Scanner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4.7대로 OECD 국가평균인 17.9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았고,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6.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0대보다 1.8배정도 많았음.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2.7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많았음.
- ▶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5.0대로 OECD 평균인 6.9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5.7대로 OECD 평균인 18.3대보다 2.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파충격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았음.





## 7. 정책적 시사점

### ■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병상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 변화

- 고가의료장비 중 대표적인 5개인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파충격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높음.
- 공급자 유인수요를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큼.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 하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 자원배분 정책에는 일차진료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 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I. 서론

## 1. 조사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의 일환으로 200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보건의료자원실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매년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자원통계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유인수요(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2. 조사목적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이다.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

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없었다.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생산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자원공급과 관련된 통계는 매년 초 보건소에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의료기관 실태보고의 병상, 환자수 및 종사인력 관련자료, 환자조사의 일부항목, 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 급여대상 장비신고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모자이크식으로 국가통계를 산출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체계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보건의료자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둘째, 보건정책 수립에 적절한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통계생산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조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관실태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환자조사 등 관련조사에서의 한계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보건정책 수립에 적절한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셋째, 시·도 및 보건소 측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한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법 제2조 및 제5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통계자료의 부족과 미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많은 애로가 있다. 주민의 의료이용수준 및 건강수준, 보건의식행태와 관련한 지역 통계가 부재하고, 시설, 인력 및 장비 관련 통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체계 부재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수립과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정확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는 크게는 지역과 의료기관유형별로 의료자원공급분석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별과 의료기관 유형별로 주요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의 보유실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조사의 법적 근거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2000. 1. 12. 공포)
- 동법 제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Ⅱ. 조사개요

### 1. 추진배경

-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조사목적

- ☐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한다.
-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 관련 통계요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 대상: 2008. 6. 31. 현재 보건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 포함)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전국의 약국

#### ☐ 조사시점 및 기간

- 본 조사기간: 2008. 8. 11.~2006. 8. 30. (지역별로 조사 일정이 다름)
- 보완조사 및 추후조사: 2008. 10. 1.~2008. 10. 15.

### 4. 조사내용

#### ☐ 전반적 내용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의 실태 및 특성(조사표 참조)
- 보건의료자원의 분포현황 파악,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활용도 실태 조사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별로 공급자 유형, 공급량, 공급조직, 수행기능 등을 조사·수집

####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 기관명, 주소지, 진료개시일, 기관종류, 설립구분, 환자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수(병실종류), 구급차, 급식시설, 영안실, 주차시설 등

□ 인력현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관련 종사자 인력현황

□ 의료장비 현황

- 주요 검사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치과용 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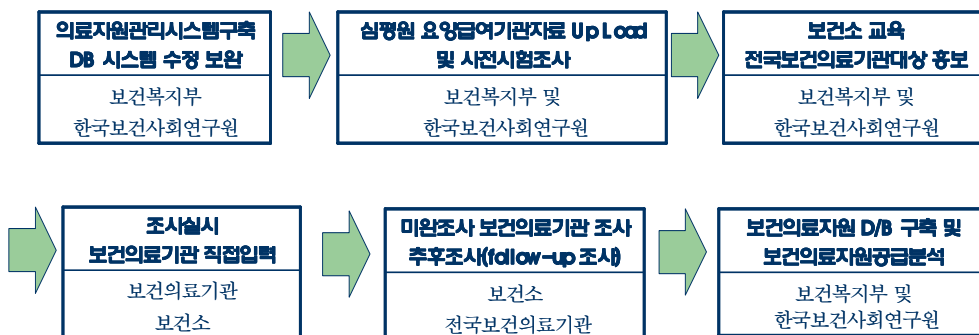
□ 약국 현황실태

- 기관명, 주소지,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약사보조 인력현황 등

## 5. 조사방법

구축된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 의거 보건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확인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작성 및 작성결과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체계 마련한다.

[그림 1-1] 2008년도 국민보건자원공급 조사방법



□ 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 개선 및 보완 구축

- 보건의료자원공급조사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eb기반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 구축 한다.

- 보건소 담당자교육 및 전국 보건의료기관 대상 조사 실시·홍보
  - 시·도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를 소집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각 보건소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자원조사에 관한 안내문과 조사공문을 조사시작(조사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 발송한다.
- 보건의료자원 조사 실시(보건소 및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자원조사는 각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각 보건소는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www.hrsic.go.kr](http://www.hrsic.go.kr))’에 들어가서 이미 웹(Web) 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한다.
- 미완조사 보건의료기관 조사 및 추후조사(follow-up조사)(보건소)
  - On-line을 통하여 조사할 수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전체의 5%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조사표를 직접 발송하고 수거하여 입력토록 한다.
  - 또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체조사기관의 10%정도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 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 및 보건의료자원공급분석
  -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담당함으로써 상시적인 보건의료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건의료기관 통계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를 관리하고 분석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수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6. 조사교육 및 조사지도감독

### □ 실태조사 관련자 교육

#### ○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

- 교육시간: 2008. 7. 29(화)
- 교육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
- 교육대상: 시·도 및 보건소(예방의약계장 등) 관계공무원
- 교육내용: 보건의료실태조사 업무처리요령 등  
※ 교육교재 및 조사표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준비
- 교육강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순서	시간	대상 시·도	담당
1	14:00~14:20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2	14:20~14:40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개요 및 경과사항	보건복지부
3	14:40~15:00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내용 및 조사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15:00~16:00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 DB시스템 설명	시스템 개발업체
	16:00~16:20	휴식시간	
5	16:20~17:30	조사표/조사지침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달교육 (시·도 및 보건소)

- 교육일시 및 방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전달교육은 조사안내문과 조사공문을 조사시작(지역별 조사기간이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여건이 허락하는 보건소의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교육 실시(시·도 및 보건소 단위별)
- 교육대상: 관할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지소 및 진료소)
- 교육내용: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
- 교육강사: 시·도 및 보건소 조사책임자

□ 조사안내문 등 유인물 배부

○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계획, 시·도 및 보건소 집계표, 조사표 등 교육용 관련 서식을 시·도 및 보건소에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필요시 인쇄해서 사용
- 2008년 보건의료자원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on-line조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표는 없지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 및 보건소에 조사표를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필요시 인쇄해서 사용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달 교육 시 (시·도 및 보건소)

- 보건소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은 안내문과 함께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와 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조사시작(조사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질문에 대하여 설명
- 인터넷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발송하고 수거하여 보건소에서 입력
- 신규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번호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또는 요양기관번호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만들어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전화상으로 고지

□ 조사 실시 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 조사기간 중 조사 지도를 위한 순회점검반 편성 운영
- 시·도 및 보건소 : 조사대상기관의 조사표 작성지도 및 독려반 편성 운영

□ 관련기관 협조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 협조
  - 중앙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
  - 관련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무기록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7. 추진일정

추진사항	일 정	관련(협조)기관
○ 기본계획 수립	2008. 1.	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자료 수집 및 조사 설계	2008. 1.~2.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2008. 4~6.	보건사회연구원
○ 예비조사 및 시스템 보완	2008. 7.	복지부·보사연
○ 조사 관련자 교육	2008. 7.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본 조사 실시	2008. 8.	시·도(보건소), 대상기관
○ 조사자료 검토 및 보완 (보완조사 및 follow-up조사)	2008. 10	시·도(보건소)
○ 조사기관 명단 취합 및 자료정리	2008. 10	시·도(보건소) ⇒ 복지부
○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08. 1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대보건의료기관 조사홍보

- 조사대상인 보건의료기관의 협조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일간지 및 전문지에 조사목적, 조사일정 및 조사내용 등 국민보건의료자원조사에 대한 사항을 게재함.

### Ⅲ.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

#### 1.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 가.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

2008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7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병의원은 29,861개로 37.2%, 그리고 약국은 20,809개로 2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치과병의원은 14,167개로 17.7%, 한방병의원은 11,818개로 14.7%, 보건기관은 3,512개로 4.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45%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 25.9%, 경기지역에 19.7%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와 울산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에 1.1%, 울산지역에 1.9%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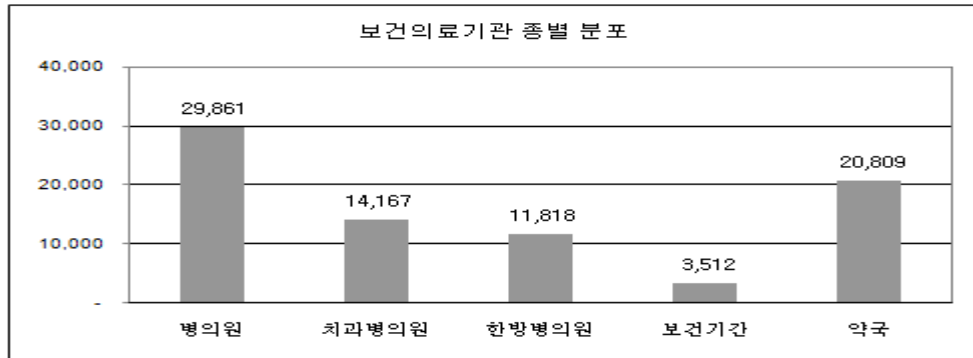
보건의료기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병의원의 경우 서울 25.3%, 경기도 20.0%, 부산 8.2%의 순으로 수도권지역에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는 1.1%로 전체 병의원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치과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31.3%, 경기도 21.6% 순이었고 제주도는 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방병원도 서울 28.7%, 경기도 18.8%, 부산 8.2%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방병원의 절반(47.5%)가량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보건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보다는 지방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으로 각각 16.1%와 15.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남 11.8%, 전북 11.4%, 경남 11.7%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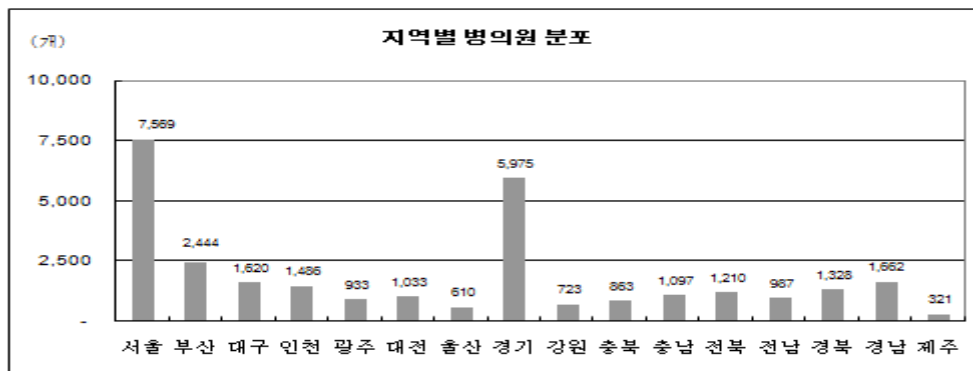
〈표 III-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I)

지역		전체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전체	N	80,167	29,861	14,167	11,818	3,512	20,809
	지역 내%	100.0	37.2	17.7	14.7	4.4	26.0
	의료기간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20,732	7,569	4,429	3,389	32	5,313
	지역 내%	100.0	36.5	21.4	16.3	0.2	25.6
	의료기간 내%	25.9	25.3	31.3	28.7	0.9	25.5
부산	N	6,034	2,444	1,042	969	45	1,534
	지역 내%	100.0	40.5	17.3	16.1	0.7	25.4
	의료기간 내%	7.5	8.2	7.4	8.2	1.3	7.4
대구	N	4,246	1,620	699	747	28	1,152
	지역 내	100.0	38.2	16.5	17.6	0.7	27.1
	의료기간 내%	5.3	5.4	4.9	6.3	0.8	5.5
인천	N	3,714	1,486	673	531	62	962
	지역 내%	100.0	40.0	18.1	14.3	1.7	25.9
	의료기간 내%	4.6	5.0	4.8	4.5	1.8	4.6
광주	N	2,328	933	457	291	19	628
	지역 내%	100.0	40.1	19.6	12.5	0.8	27.0
	의료기간 내%	2.9	3.1	3.2	2.5	0.5	3.0
대전	N	2,567	1,033	420	415	23	676
	지역 내%	100.0	40.2	16.4	16.2	0.9	26.3
	의료기간 내%	3.2	3.5	3.0	3.5	0.7	3.2
울산	N	1,543	610	304	247	26	356
	지역 내%	100.0	39.5	19.7	16.0	1.7	23.1
	의료기간 내%	1.9	2.0	2.1	2.1	0.7	1.7
경기	N	15,756	5,975	3,059	2,220	343	4,159
	지역 내%	100.0	37.9	19.4	14.1	2.2	26.4
	의료기간 내%	19.7	20.0	21.6	18.8	9.8	20.0
강원	N	2,185	723	307	296	250	609
	지역 내%	100.0	33.1	14.1	13.5	11.4	27.9
	의료기간 내%	2.7	2.4	2.2	2.5	7.1	2.9
충북	N	2,338	863	287	306	273	609
	지역내%	100.0	36.9	12.3	13.1	11.7	26.0
	의료기간내%	2.9	2.9	2.0	2.6	7.8	2.9
충남	N	3,120	1,097	402	402	414	805
	지역내%	100.0	35.2	12.9	12.9	13.3	25.8
	의료기간내%	3.9	3.7	2.8	3.4	11.8	3.9
전북	N	3,316	1,210	426	423	402	855
	지역내%	100.0	36.5	12.8	12.8	12.1	25.8
	의료기간내%	4.1	4.1	3.0	3.6	11.4	4.1
전남	N	2,977	987	343	288	565	794
	지역내%	100.0	33.2	11.5	9.7	19.0	26.7
	의료기간내%	3.7	3.3	2.4	2.4	16.1	3.8
경북	N	3,969	1,328	504	542	555	1,040
	지역내%	100.0	33.5	12.7	13.7	14.0	26.2
	의료기간내%	5.0	4.4	3.6	4.6	15.8	5.0
경남	N	4,475	1,662	671	634	410	1,098
	지역내%	100.0	37.1	15.0	14.2	9.2	24.5
	의료기간내%	5.6	5.6	4.7	5.4	11.7	5.3
제주	N	867	321	144	118	65	219
	지역내%	100.0	37.0	16.6	13.6	7.5	25.3
	의료기간내%	1.1	1.1	1.0	1.0	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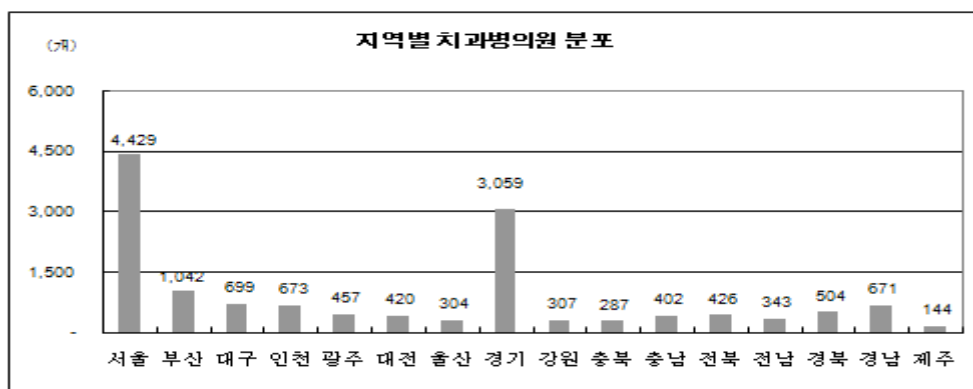
[그림 Ⅲ-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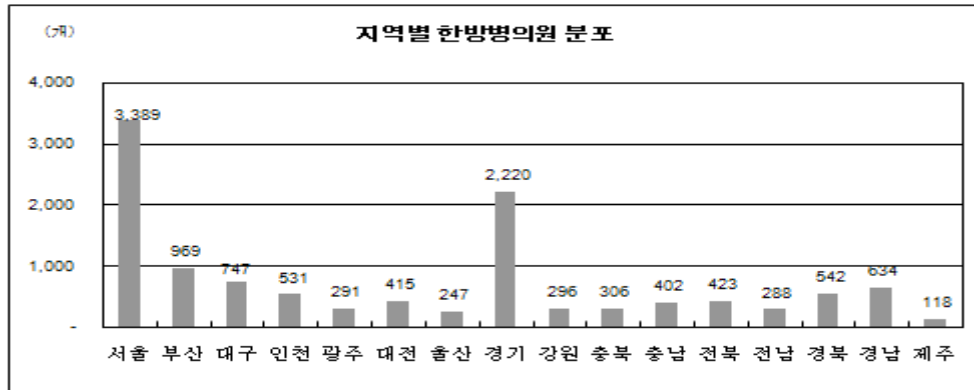
[그림 Ⅲ-2] 지역별 병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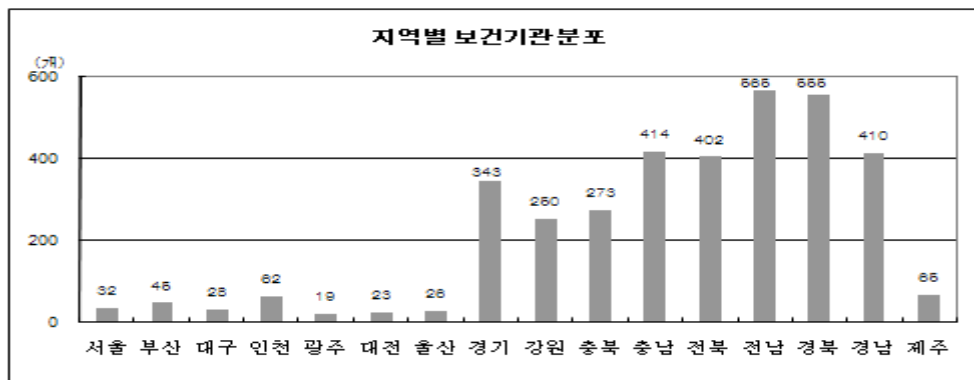
[그림 Ⅲ-3] 지역별 치과병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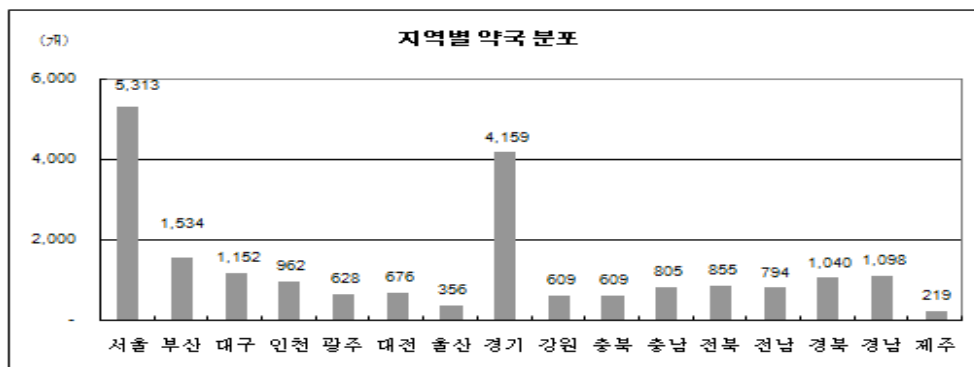
[그림 III-4] 지역별 한방병의원 분포



[그림 III-5] 지역별 보건기관 분포



[그림 III-6] 지역별 약국 분포



다음 <표 III-2>는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일반 의원이 34.6%, 치과의원 17.5%, 그리고 한의원 14.5%로 전체 66.6%를 차지하고 있고, 약국이 26.0%, 약 7.5%가 나머지 의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1%로 전체 43개 중에서 20개소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소는 울산광역시와 제외된 5개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3%의 비율로 매우 낮고 서울 및 경기지역이 각각 15.2%, 17.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1.5%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어 서울이 13.9%를 나타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의원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의원 중에서도 의원의 비율은 95.88%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 경기도가 20.2%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체의 약 46%가량의 의원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제주가 서울, 경기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인 1.1%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약 2~8%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치과병원은 0.2%, 치과의원은 17.5%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도 병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경기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인 대구가 9.3%에 그쳐 서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원 또한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7.4%)을 보였으나 서울(31.2%), 경기(21.6%)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인데, 치과병원이 전무하고 치과의원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2%를, 한의원은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이 각각 20.6%와 28.8%로 가장 많은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지역이 각각 약 1%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보건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는 총 240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0.3%를 차지하며 경기지역이 1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10.4%, 경북 9.2%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6대 광역시에 비해서 기타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지소의 경우 총 1,289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1.6%이며 전남이 16.2%, 경북지역이 16.9%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서울이나

〈표 III-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

	지역	전체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전체	N	80,167	43	276	1189	647	27,706	162	14,005
	지역내%	100.0	0.1	0.3	1.5	0.8	34.6	0.2	17.5
	의료기간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20,732	20	42	165	54	7,288	64	4,365
	지역내%	100.0	0.1	0.2	0.8	0.3	35.2	0.3	21.1
	의료기간내%	25.9	46.5	15.2	13.9	8.3	26.3	39.5	31.2
부산	N	6,034	4	23	93	80	2,244	9	1,033
	지역내%	100.0	0.1	0.4	1.5	1.3	37.2	0.1	17.1
	의료기간내%	7.5	9.3	8.3	7.8	12.4	8.1	5.6	7.4
대구	N	4,246	4	8	88	32	1,488	15	684
	지역내%	100.0	0.1	0.2	2.1	0.8	35.0	0.4	16.1
	의료기간내%	5.3	9.3	2.9	7.4	4.9	5.4	9.3	4.9
인천	N	3,714	2	11	52	27	1,394	4	669
	지역내%	100.0	0.1	0.3	1.4	0.7	37.5	0.1	18.0
	의료기간내%	4.6	4.7	4.0	4.4	4.2	5.0	2.5	4.8
광주	N	2,328	2	17	48	15	851	4	453
	지역내%	100.0	0.1	0.7	2.1	0.6	36.6	0.2	19.5
	의료기간내%	2.9	4.7	6.2	4.0	2.3	3.1	2.5	3.2
대전	N	2,567	2	7	30	28	966	6	414
	지역내%	100.0	0.1	0.3	1.2	1.1	37.6	0.2	16.1
	의료기간내%	3.2	4.7	2.5	2.5	4.3	3.5	3.7	3.0
울산	N	1,543	-	4	40	26	540	3	301
	지역내%	100.0	-	0.3	2.6	1.7	35.0	0.2	19.5
	의료기간내%	1.9	-	1.4	3.4	4.0	1.9	1.9	2.1
경기	N	15,756	1	48	226	117	5,583	31	3,028
	지역내%	100.0	0.0	0.3	1.4	0.7	35.4	0.2	19.2
	의료기간내%	19.7	2.3	17.4	19.0	18.1	20.2	19.1	21.6
강원	N	2,185	2	14	39	14	654	1	306
	지역내%	100.0	0.1	0.6	1.8	0.6	29.9	0.0	14.0
	의료기간내%	2.7	4.7	5.1	3.3	2.2	2.4	0.6	2.2
충북	N	2,338	1	10	33	20	799	1	286
	지역내%	100.0	0.0	0.4	1.4	0.9	34.2	0.0	12.2
	의료기간내%	2.9	2.3	3.6	2.8	3.1	2.9	0.6	2.0
충남	N	3,120	2	9	43	40	1,003	6	396
	지역내%	100.0	0.1	0.3	1.4	1.3	32.1	0.2	12.7
	의료기간내%	3.9	4.7	3.3	3.6	6.2	3.6	3.7	2.8
전북	N	3,316	2	13	59	51	1,085	2	424
	지역내%	100.0	0.1	0.4	1.8	1.5	32.7	0.1	12.8
	의료기간내%	4.1	4.7	4.7	5.0	7.9	3.9	1.2	3.0
전남	N	2,977	-	22	68	26	871	3	340
	지역내%	100.0	-	0.7	2.3	0.9	29.3	0.1	11.4
	의료기간내%	3.7	-	8.0	5.7	4.0	3.1	1.9	2.4
경북	N	3,969	-	19	69	60	1,180	7	497
	지역내%	100.0	-	0.5	1.7	1.5	29.7	0.2	12.5
	의료기간내%	5.0	-	6.9	5.8	9.3	4.3	4.3	3.5
경남	N	4,475	1	23	131	50	1,457	6	665
	지역내%	100.0	0.0	0.5	2.9	1.1	32.6	0.1	14.9
	의료기간내%	5.6	2.3	8.3	11.0	7.7	5.3	3.7	4.7
제주	N	867	-	6	5	7	303	-	144
	지역내%	100.0	-	0.7	0.6	0.8	34.9	-	16.6
	의료기간내%	1.1	-	2.2	0.4	1.1	1.1	-	1.0

〈표 III-2〉 계속

	지역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화보건소	약국
전체	N	160	11,658	54	240	1,289	1,912	17	20,809
	지역내%	0.2	14.5	0.1	0.3	1.6	2.4	0.0	26.0
	의료기간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33	3,356	6	25	1	-	-	5,313
	지역내%	0.2	16.2	0.0	0.1	0.0	-	-	25.6
	의료기간내%	20.6	28.8	11.1	10.4	0.1	-	-	25.5
부산	N	8	961	15	16	9	5	-	1,534
	지역내%	0.1	15.9	0.2	0.3	0.1	0.1	-	25.4
	의료기간내%	5.0	8.2	27.8	6.7	0.7	0.3	-	7.4
대구	N	8	739	2	8	9	9	-	1,152
	지역내%	0.2	17.4	0.0	0.2	0.2	0.2	-	27.1
	의료기간내%	5.0	6.3	3.7	3.3	0.7	0.5	-	5.5
인천	N	14	517	1	10	25	26	-	962
	지역내%	0.4	13.9	0.0	0.3	0.7	0.7	-	25.9
	의료기간내%	8.8	4.4	1.9	4.2	1.9	1.4	-	4.6
광주	N	9	282	4	5	-	10	-	628
	지역내%	0.4	12.1	0.2	0.2	-	0.4	-	27.0
	의료기간내%	5.6	2.4	7.4	2.1	-	0.5	-	3.0
대전	N	5	410	2	5	8	8	-	676
	지역내%	0.2	16.0	0.1	0.2	0.3	0.3	-	26.3
	의료기간내%	3.1	3.5	3.7	2.1	0.6	0.4	-	3.2
울산	N	4	243	-	5	10	11	-	356
	지역내%	0.3	15.7	-	0.3	0.6	0.7	-	23.1
	의료기간내%	2.5	2.1	-	2.1	0.8	0.6	-	1.7
경기	N	29	2,191	9	45	125	163	1	4,159
	지역내%	0.2	13.9	0.1	0.3	0.8	1.0	0.0	26.4
	의료기간내%	18.1	18.8	16.7	18.8	9.7	8.5	5.9	20.0
강원	N	3	293	4	18	94	132	2	609
	지역내%	0.1	13.4	0.2	0.8	4.3	6.0	0.1	27.9
	의료기간내%	1.9	2.5	7.4	7.5	7.3	6.9	11.8	2.9
충북	N	3	303	3	13	94	163	-	609
	지역내%	0.1	13.0	0.1	0.6	4.0	7.0	-	26.0
	의료기간내%	1.9	2.6	5.6	5.4	7.3	8.5	-	2.9
충남	N	8	394	-	14	158	240	2	805
	지역내%	0.3	12.6	-	0.4	5.1	7.7	0.1	25.8
	의료기간내%	5.0	3.4	-	5.8	12.3	12.6	11.8	3.9
전북	N	9	414	-	10	148	240	4	855
	지역내%	0.3	12.5	-	0.3	4.5	7.2	0.1	25.8
	의료기간내%	5.6	3.6	-	4.2	11.5	12.6	23.5	4.1
전남	N	7	281	4	18	209	330	4	794
	지역내%	0.2	9.4	0.1	0.6	7.0	11.1	0.1	26.7
	의료기간내%	4.4	2.4	7.4	7.5	16.2	17.3	23.5	3.8
경북	N	14	528	-	22	218	312	3	1,040
	지역내%	0.4	13.3	-	0.6	5.5	7.9	0.1	26.2
	의료기간내%	8.8	4.5	-	9.2	16.9	16.3	17.6	5.0
경남	N	5	629	3	20	169	217	1	1,098
	지역내%	0.1	14.1	0.1	0.4	3.8	4.8	0.0	24.5
	의료기간내%	3.1	5.4	5.6	8.3	13.1	11.3	5.9	5.3
제주	N	1	117	1	6	12	46	-	219
	지역내%	0.1	13.5	0.1	0.7	1.4	5.3	-	25.3
	의료기간내%	0.6	1.0	1.9	2.5	0.9	2.4	-	1.1

6대 광역시의 경우 약 1% 이하로 보유비율이 매우 낮았다.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비해 지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남이 17.3%로 가장 높고 경북이 16.3%로 그 다음을 이었다. 약국은 전체 의료기관 중 26.0%로 의원(34.6%)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 내에서 약국의 비중은 최고 27.9%(강원), 최저 23.1%(울산)로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25.5%(5,313개)로 가장 많은 약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이 219개(1.1%)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다.

#### 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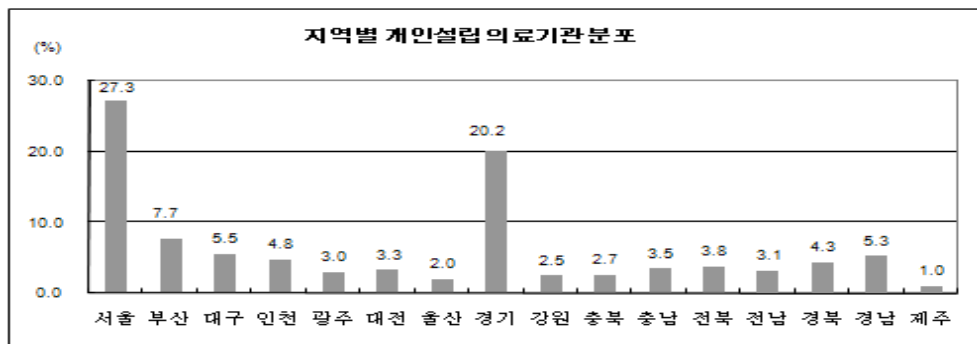
보건의료기관을 설립구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93.1%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공립의 형태가 4.4%로 많았으며 의료법인 1.1%, 사단법인 0.3%, 재단법인 0.3%, 학교법인 0.2%, 사회복지법인 0.2%, 특수법인이 0.2%, 회사법인이 0.1%, 군병원 0.1%, 기타 0.1%, 국립과 종교법인이 0.0%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에 의해 설립된 병원의 경우 서울지역이 27.3%로 가장 많으며 경기지역이 20.2%로 다음으로 많았고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7.7%)을 보였으나, 서울, 경기의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제주는 1.0%의 비율을 보여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비율을 보면 서울(98.3%), 대구(97.2%), 광주(9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경기지역은 총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이 개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78.2%)이며, 다음으로 경북(81.5%)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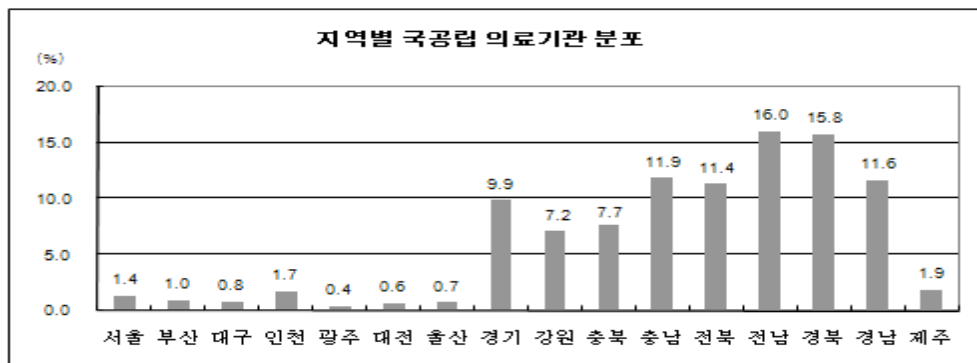
반면에 국립의료기관은 46.4%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립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은 153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이며 서울지역이 33개(21.6%)로 가장 많았다. 특수법인은 134개로 부산지역에 44개(32.8%)가 위치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은 총 142개로 서울(15.2%), 경기(14.8%), 부산(9.9%) 순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은 부산지역이 총 224개 중 36개를 보유(15.2%)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재단법인은 경기(18.7%), 서울(16.3%) 및 부산(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법인은 서울이 24.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는 15.3%, 경북이 12.9% 순

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경기지역이 913개 중 180개인 1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제주가 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군병원은 군부대가 많은 경기지역(22.7%)과 강원지역(20.5%)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남지역도 44개 중 4개인 9.1%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III-7] 지역별 개인 설립 의료기관 분포



[그림 III-8] 지역별 국공립 의료기관 분포





〈표 III-3〉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포함)

	지역	국립	공립	학교 법인	특수 법인	종교 법인	사회 복지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회사 법인	의료 법인	개인	군병원	기타
전체	N	28	3,540	153	134	4	142	224	203	85	913	74,607	44	85
	지역내%	0.0	4.4	0.2	0.2	0.0	0.2	0.3	0.3	0.1	1.1	93.1	0.1	0.1
	설립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13	36	33	15	1	26	34	33	21	101	20,370	2	47
	지역내%	0.1	0.2	0.2	0.1	0.0	0.1	0.2	0.2	0.1	0.5	98.3	0.0	0.2
	설립간%	46.4	1.0	21.6	11.2	25.0	18.3	15.2	16.3	24.7	11.1	27.3	4.5	55.3
부산	N	1	34	12	44	-	14	36	23	3	84	5,780	3	-
	지역내%	0.0	0.6	0.2	0.7	-	0.2	0.6	0.4	0.0	1.4	95.8	0.0	-
	설립간%	3.6	1.0	7.8	32.8	-	9.9	16.1	11.3	3.5	9.2	7.7	6.8	-
대구	N	1	29	8	4	-	8	11	15	1	40	4,128	-	1
	지역내%	0.0	0.7	0.2	0.1	-	0.2	0.3	0.4	0.0	0.9	97.2	-	0.0
	설립간%	3.6	0.8	5.2	3.0	-	5.6	4.9	7.4	1.2	4.4	5.5	-	1.2
인천	N	-	62	6	4	-	12	16	4	3	30	3,570	-	5
	지역내%	-	1.7	0.2	0.1	-	0.3	0.4	0.1	0.1	0.8	96.2	-	0.1
	설립간%	-	1.8	3.9	3.0	-	8.5	7.1	2.0	3.5	3.3	4.8	-	5.9
광주	N	-	15	8	3	-	3	9	7	7	14	2,261	-	1
	지역내%	-	0.6	0.3	0.1	-	0.1	0.4	0.3	0.3	0.6	97.1	-	0.0
	설립간%	-	0.4	5.2	2.2	-	2.1	4.0	3.4	8.2	1.5	3.0	-	1.2
대전	N	-	23	8	7	-	14	12	3	1	30	2,464	4	1
	지역내%	-	0.9	0.3	0.3	-	0.5	0.5	0.1	0.0	1.2	96.0	0.2	0.0
	설립간%	-	0.6	5.2	5.2	-	9.9	5.4	1.5	1.2	3.3	3.3	9.1	1.2
울산	N	-	26	3	11	-	3	8	1	5	26	1,457	-	3
	지역내%	-	1.7	0.2	0.7	-	0.2	0.5	0.1	0.3	1.7	94.4	-	0.2
	설립간%	-	0.7	2.0	8.2	-	2.1	3.6	0.5	5.9	2.8	2.0	-	3.5
경기	N	3	350	22	11	1	21	29	38	13	180	15,066	10	11
	지역내%	0.0	2.2	0.1	0.1	0.0	0.1	0.2	0.2	0.1	1.1	95.6	0.1	0.1
	설립간%	10.7	9.9	14.4	8.2	25.0	14.8	12.9	18.7	15.3	19.7	20.2	22.7	12.9
강원	N	2	254	4	6	2	3	10	8	2	29	1,856	9	-
	지역내%	0.1	11.6	0.2	0.3	0.1	0.1	0.5	0.4	0.1	1.3	84.9	0.4	-
	설립간%	7.1	7.2	2.6	4.5	50.0	2.1	4.5	3.9	2.4	3.2	2.5	20.5	-
충북	N	-	274	7	10	-	7	16	3	2	32	1,983	2	2
	지역내%	-	11.7	0.3	0.4	-	0.3	0.7	0.1	0.1	1.4	84.8	0.1	0.1
	설립간%	-	7.7	4.6	7.5	-	4.9	7.1	1.5	2.4	3.5	2.7	4.5	2.4
충남	N	3	421	10	4	-	5	9	7	4	44	2,604	4	5
	지역내%	0.1	13.5	0.3	0.1	-	0.2	0.3	0.2	0.1	1.4	83.5	0.1	0.2
	설립간%	10.7	11.9	6.5	3.0	-	3.5	4.0	3.4	4.7	4.8	3.5	9.1	5.9
전북	N	-	405	12	4	-	4	12	28	-	50	2,801	-	-
	지역내%	-	12.2	0.4	0.1	-	0.1	0.4	0.8	-	1.5	84.5	-	-
	설립간%	-	11.4	7.8	3.0	-	2.8	5.4	13.8	-	5.5	3.8	-	-
전남	N	3	568	6	-	-	2	2	5	4	55	2,327	3	2
	지역내%	0.1	19.1	0.2	-	-	0.1	0.1	0.2	0.1	1.8	78.2	0.1	0.1
	설립간%	10.7	16.0	3.9	-	-	1.4	0.9	2.5	4.7	6.0	3.1	6.8	2.4
경북	N	-	562	13	1	-	9	5	20	11	105	3,235	3	3
	지역내%	-	14.2	0.3	0.0	-	0.2	0.1	0.5	0.3	2.6	81.5	0.1	0.1
	설립간%	-	15.9	8.5	0.7	-	6.3	2.2	9.9	12.9	11.5	4.3	6.8	3.5
경남	N	2	413	1	9	-	8	11	6	8	83	3,926	4	4
	지역내%	0.0	9.2	0.0	0.2	-	0.2	0.2	0.1	0.2	1.9	87.7	0.1	0.1
	설립간%	7.1	11.7	0.7	6.7	-	5.6	4.9	3.0	9.4	9.1	5.3	9.1	4.7
제주	N	-	68	-	1	-	3	4	2	-	10	779	-	-
	지역내%	-	7.8	-	0.1	-	0.3	0.5	0.2	-	1.2	89.9	-	-
	설립간%	-	1.9	-	0.7	-	2.1	1.8	1.0	-	1.1	1.0	-	-

다. 지역별 진료과 분포

1) 26개 일반진료과 분포

전국 병의원에 개설되어 있는 총 진료과 수는 125,973개이며, 그 중 내과를 개설한 병의원이 20,190개(2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4,893개(16.9%)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피부과(14.3%) 이비인후과(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병의원 진료과 현황

순위	진료과	합계(개)	비율(%)	순위	진료과	합계(개)	비율(%)
1	내과	20,190	22.9	14	마취통증의학과	3,263	3.7
2	소아청소년과	14,893	16.9	15	신경과	3,191	3.6
3	피부과	12,603	14.3	16	성형외과	2,952	3.4
4	이비인후과	9,943	11.3	17	정신과	2,116	2.4
5	정형외과	9,278	10.5	18	진단검사의학과	1,784	2.0
6	외과	9,056	10.3	19	흉부외과	779	0.9
7	비뇨기과	8,270	9.4	20	병리과	700	0.8
8	가정의학과	5,711	6.5	21	응급의학과	346	0.4
9	신경외과	4,823	5.5	22	결핵과	258	0.3
10	산부인과	4,010	4.6	23	산업의학과	198	0.2
11	재활의학과	3,987	4.5	24	예방의학과	182	0.2
12	영상의학과	3,634	4.1	25	방사선종양학과	108	0.1
13	안과	3,601	4.1	26	핵의학과	97	0.1

이러한 진료과의 순위는 지역별로 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외과 및 비뇨기과의 7개 진료과가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진료과 현황을 보면, 우선 내과는 서울이 19.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기(19.3%), 경남(7.3%)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지역과 타 지역 간의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는 224개로 전체 내과 중 1.1%를 차지하였다. 26개 진료과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아청소년과는 경기가 22.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20.7%를 차지하고 있었고, 부산이 7.4%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피부과도 서울 22.9%, 경기도 20.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산(8.2%), 경남(7.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5〉 지역별 병의원 진료과 현황

	지역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서울	N	3,971	657	556	1,713	1,778	900	124	1,043	656	1,058	3,084	769	2,069
	%	19.7	20.6	26.3	18.9	19.2	18.7	15.9	35.3	20.1	26.4	20.7	21.4	20.8
부산	N	1,446	257	150	662	701	395	61	235	264	339	1,102	204	673
	%	7.2	8.1	7.1	7.3	7.6	8.2	7.8	8.0	8.1	8.5	7.4	5.7	6.8
대구	N	943	177	89	333	388	253	23	127	219	202	776	224	532
	%	4.7	5.5	4.2	3.7	4.2	5.2	3.0	4.3	6.7	5.0	5.2	6.2	5.4
인천	N	1,009	130	87	505	528	293	29	140	121	181	843	147	512
	%	5.0	4.1	4.1	5.6	5.7	6.1	3.7	4.7	3.7	4.5	5.7	4.1	5.1
광주	N	602	126	100	333	302	168	42	123	156	155	465	152	332
	%	3.0	3.9	4.7	3.7	3.3	3.5	5.4	4.2	4.8	3.9	3.1	4.2	3.3
대전	N	614	142	96	264	282	129	33	88	85	118	472	103	316
	%	3.0	4.5	4.5	2.9	3.0	2.7	4.2	3.0	2.6	2.9	3.2	2.9	3.2
울산	N	382	81	35	148	161	94	18	47	85	80	293	58	214
	%	1.9	2.5	1.7	1.6	1.7	1.9	2.3	1.6	2.6	2.0	2.0	1.6	2.2
경기	N	3,888	577	414	1,790	1,875	983	147	561	563	732	3,288	671	2,182
	%	19.3	18.1	19.6	19.8	20.2	20.4	18.9	19.0	17.3	18.3	22.1	18.6	21.9
강원	N	606	53	45	248	267	115	25	50	81	101	355	80	227
	%	3.0	1.7	2.1	2.7	2.9	2.4	3.2	1.7	2.5	2.5	2.4	2.2	2.3
충북	N	751	113	69	313	323	157	31	48	112	113	455	104	295
	%	3.7	3.5	3.3	3.5	3.5	3.3	4.0	1.6	3.4	2.8	3.1	2.9	3.0
충남	N	1,041	151	88	466	471	206	45	76	137	139	616	140	380
	%	5.2	4.7	4.2	5.1	5.1	4.3	5.8	2.6	4.2	3.5	4.1	3.9	3.8
전북	N	973	128	85	424	431	255	38	58	129	160	567	181	404
	%	4.8	4.0	4.0	4.7	4.6	5.3	4.9	2.0	4.0	4.0	3.8	5.0	4.1
전남	N	1,035	110	73	550	482	237	49	85	172	171	656	221	484
	%	5.1	3.4	3.4	6.1	5.2	4.9	6.3	2.9	5.3	4.3	4.4	6.1	4.9
경북	N	1,230	194	78	523	506	228	47	86	197	179	740	237	529
	%	6.1	6.1	3.7	5.8	5.5	4.7	6.0	2.9	6.0	4.5	5.0	6.6	5.3
경남	N	1,475	262	127	681	675	367	59	164	257	237	1,017	274	685
	%	7.3	8.2	6.0	7.5	7.3	7.6	7.6	5.6	7.9	5.9	6.8	7.6	6.9
제주	N	224	33	24	103	108	43	8	21	29	45	164	36	109
	%	1.1	1.0	1.1	1.1	1.2	0.9	1.0	0.7	0.9	1.1	1.1	1.0	1.1
전체	N	20,190	3,191	2,116	9,056	9,278	4,823	779	2,952	3,263	4,010	14,893	3,601	9,94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5〉 계속

지역		피부 과	비뇨 기과	영상 의학 과	방사선 종양 학과	병리 과	진단 검사 의학과	결핵 과	재활 의학 과	핵의 학과	가정 의학 과	응급 의학 과	산업 의학 과	예방 의학 과
서울	N	2,892	1,709	837	38	149	416	66	896	28	1,356	71	30	23
	%	22.9	20.7	23.0	35.2	21.3	23.3	25.6	22.5	28.9	23.7	20.5	15.2	12.6
부산	N	1,037	686	292	9	59	161	39	300	8	468	13	10	8
	%	8.2	8.3	8.0	8.3	8.4	9.0	15.1	7.5	8.2	8.2	3.8	5.1	4.4
대구	N	562	325	209	5	50	190	8	188	7	273	16	8	8
	%	4.5	3.9	5.8	4.6	7.1	10.7	3.1	4.7	7.2	4.8	4.6	4.0	4.4
인천	N	644	498	194	4	34	53	7	217	2	285	14	11	3
	%	5.1	6.0	5.3	3.7	4.9	3.0	2.7	5.4	2.1	5.0	4.0	5.6	1.6
광주	N	428	291	282	4	57	193	16	215	6	191	17	11	10
	%	3.4	3.5	7.8	3.7	8.1	10.8	6.2	5.4	6.2	3.3	4.9	5.6	5.5
대전	N	408	236	86	4	17	32	5	160	5	197	11	5	6
	%	3.2	2.9	2.4	3.7	2.4	1.8	1.9	4.0	5.2	3.4	3.2	2.5	3.3
울산	N	277	192	76	1	12	22	3	82	2	90	4	8	2
	%	2.2	2.3	2.1	0.9	1.7	1.2	1.2	2.1	2.1	1.6	1.2	4.0	1.1
경기	N	2,543	1,663	607	19	96	212	50	746	20	1,031	67	36	31
	%	20.2	20.1	16.7	17.6	13.7	11.9	19.4	18.7	20.6	18.1	19.4	18.2	17.0
강원	N	260	192	87	3	15	31	3	80	2	106	15	8	6
	%	2.1	2.3	2.4	2.8	2.1	1.7	1.2	2.0	2.1	1.9	4.3	4.0	3.3
충북	N	345	243	77	2	15	23	10	134	1	196	11	6	8
	%	2.7	2.9	2.1	1.9	2.1	1.3	3.9	3.4	1.0	3.4	3.2	3.0	4.4
충남	N	527	360	121	2	13	39	7	192	1	261	19	14	14
	%	4.2	4.4	3.3	1.9	1.9	2.2	2.7	4.8	1.0	4.6	5.5	7.1	7.7
전북	N	490	334	107	4	19	43	7	134	4	359	18	3	6
	%	3.9	4.0	2.9	3.7	2.7	2.4	2.7	3.4	4.1	6.3	5.2	1.5	3.3
전남	N	566	425	233	3	54	148	10	229	2	235	25	8	16
	%	4.5	5.1	6.4	2.8	7.7	8.3	3.9	5.7	2.1	4.1	7.2	4.0	8.8
경북	N	581	404	159	5	48	100	9	166	2	279	21	17	14
	%	4.6	4.9	4.4	4.6	6.9	5.6	3.5	4.2	2.1	4.9	6.1	8.6	7.7
경남	N	928	636	249	3	58	112	17	214	5	343	19	20	25
	%	7.4	7.7	6.9	2.8	8.3	6.3	6.6	5.4	5.2	6.0	5.5	10.1	13.7
제주	N	115	76	18	2	4	9	1	34	2	41	5	3	2
	%	0.9	0.9	0.5	1.9	0.6	0.5	0.4	0.9	2.1	0.7	1.4	1.5	1.1
전체	N	12,603	8,270	3,634	108	700	1,784	258	3,987	97	5,711	346	198	18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다른 진료과들을 살펴보면, 성형외과의 경우 서울이 35.3%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9.0%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합치면 54.3%가 되어, 절반이상의 성형외과가 서울 및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의학과는 서울에 23.0%, 경기지역에 1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산이 8.0%, 광주가 7.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사선종양학과는 서울(35.2%), 경기(17.6%), 부산(8.3%)지역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서울(416개, 23.3%)지역을 제외하면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및 전남 지역이 약 10% 안팎으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핵의학과는 경우도 총 97개 중 서울이 28개(28.9%), 경기가 20개(20.6%)로 전체 49.5%를 차지하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예방의학과는 경우 다른 과들과는 달리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17.0%이며 경남은 13.7%, 서울이 12.6%의 비중을 나타냈고 전남 또한 8.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 치과 전문 진료과 분포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11개 진료과의 총 수는 130,805개로 나타났고, 서울에서 42,004개의 진료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진료과 중 32.1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9,033개로 22.19%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치과일반 5.4%를 제외한 10개의 진료과들은 8.8~9.8%의 비중으로 고르게 나타나 진료과별 비중의 차이는 비교적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모든 진료과에 걸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울산과 제주도는 제일 낮은 보유비중을 나타냈다.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서울 및 경기지역과 부산, 대구 및 인천 등 광역시에서 타지방에 비해 보유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표 III-6〉 치과병원 진료과 현황

순위	진 료 과	진료과수(개)	비율(%)
1	치과보철과	12,764	9.8
2	치과보존과	12,705	9.7
3	치주과	12,686	9.7
4	소아치과	12,623	9.7
5	구강악안면외과	12,524	9.6
6	예방치과	12,443	9.5
7	구강내과	12,305	9.4
8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2,200	9.3
9	치과교정과	12,066	9.2
10	구강병리과	11,484	8.8
11	치과일반	7,005	5.4



## 3) 한방 전문 진료과 분포

한방 병의원의 진료과는 한방내과, 한방 부인과를 포함하여 총 10개 진료과로 분류하였으며, 한방병의원 중 가장 많이 설치된 진료과는 한방내과로 총 11,943개,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응급 및 한방일반을 제외한 8개과의 보유비율의 차이는 9~11% 사이로 그리 크지 않다. 각 한방진료과의 비중을 아래<표 III-8>에 나타내었다.

&lt;표 III-8&gt;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현황

순위	진 료 과	진료과수(개)	비율(%)
1	한방내과	11,943	11.7
2	침구과	11,781	11.5
3	한방부인과	11,717	11.5
4	한방소아과	11,629	11.4
5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1,523	11.3
6	한방신경정신과	11,327	11.1
7	한방재활의학과	10,312	10.1
8	사상체질과	9,935	9.7
9	한방응급	7,409	7.2
10	한방일반	4,697	4.6

한방병의원은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 III-9>와 같으며, 대부분의 진료과는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한방내과는 서울이 28.5%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18.9%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세 번째로 부산지역은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0.9%에 그쳤다. 또한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 재활의학과는 모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의 순으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상체질과와 한방응급과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경남의 순으로 나타나 부산보다 대구가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한방응급은 총 2,371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이 7.1%, 인천이 5.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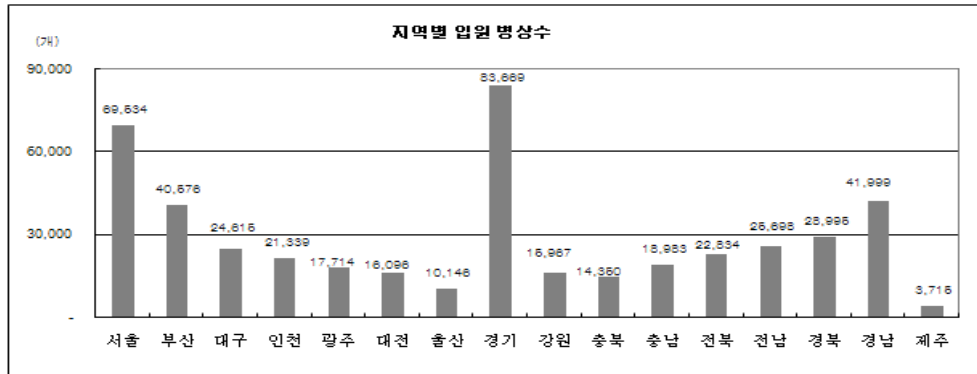
〈표 III-9〉 지역별 한방병의원 진료과 현황

[illegible]





[그림 III-9] 지역별 입원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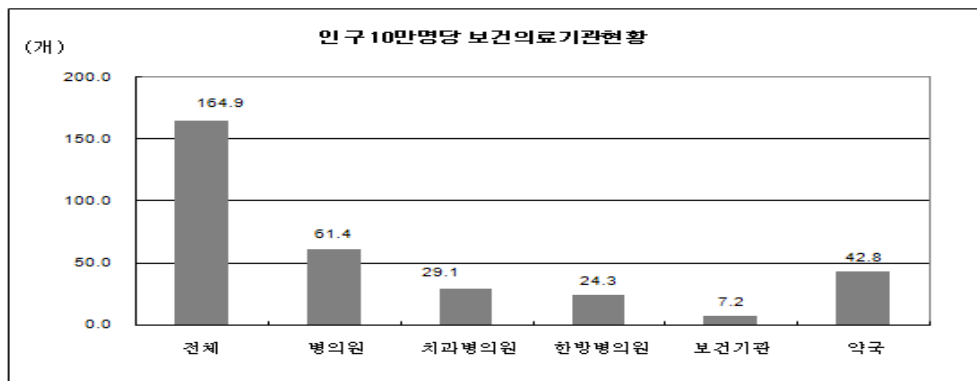


#### 마. 지역별 인구대비 의료시설 분포

##### 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수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9개이며 병의원은 61.4개, 치과병의원은 29.1개, 한방병의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2개, 약국 42.8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6.7개로 인구대비 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병상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로 인구 10만 명당 141.3개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각 보건의료기관의 형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I-10]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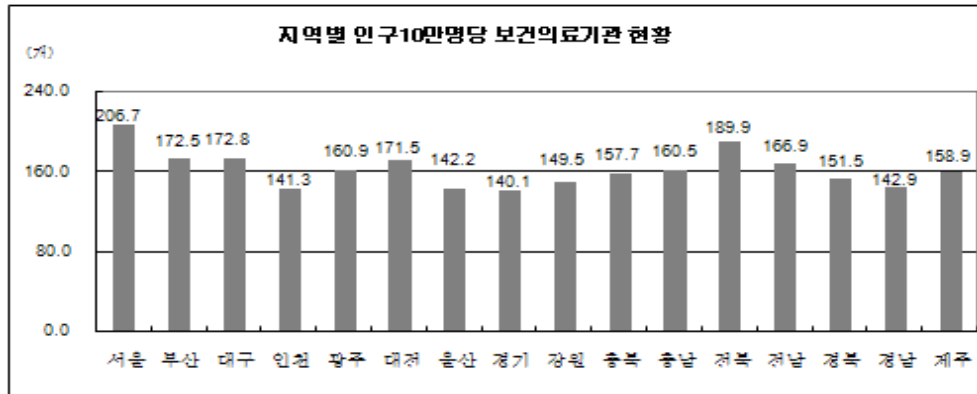


〈표 III-1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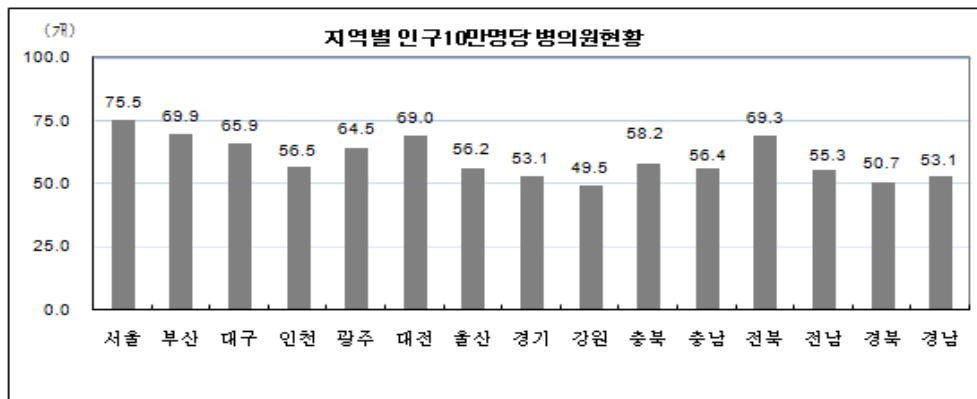
구분	전체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기관	약국
전체	164.9	61.4	29.1	24.3	7.2	42.8
서울	206.7	75.5	44.1	33.8	0.3	53.0
부산	172.5	69.9	29.8	27.7	1.3	43.9
대구	172.8	65.9	28.4	30.4	1.1	46.9
인천	141.3	56.5	25.6	20.2	2.4	36.6
광주	160.9	64.5	31.6	20.1	1.3	43.4
대전	171.5	69.0	28.1	27.7	1.5	45.2
울산	142.2	56.2	28.0	22.8	2.4	32.8
경기	140.1	53.1	27.2	19.7	3.0	37.0
강원	149.5	49.5	21.0	20.3	17.1	41.7
충북	157.7	58.2	19.4	20.6	18.4	41.1
충남	160.5	56.4	20.7	20.7	21.3	41.4
전북	189.9	69.3	24.4	24.2	23.0	49.0
전남	166.9	55.3	19.2	16.1	31.7	44.5
경북	151.5	50.7	19.2	20.7	21.2	39.7
경남	142.9	53.1	21.4	20.2	13.1	35.1
제주	158.9	58.8	26.4	21.6	11.9	40.1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61.4개소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병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인구 10만 명당 75.5개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49.5개소로 파악되었다. 치과병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9.1개소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9.2개소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4.1개소로 가장 적은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이 2.3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4.3개소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6.1개소였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3.8개소로 나타났다. 보건기관은 인구 10만 명당 7.2개소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전북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보건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는 서울이 53.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북이 49.0개소로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으로 는 울산이 32.8개소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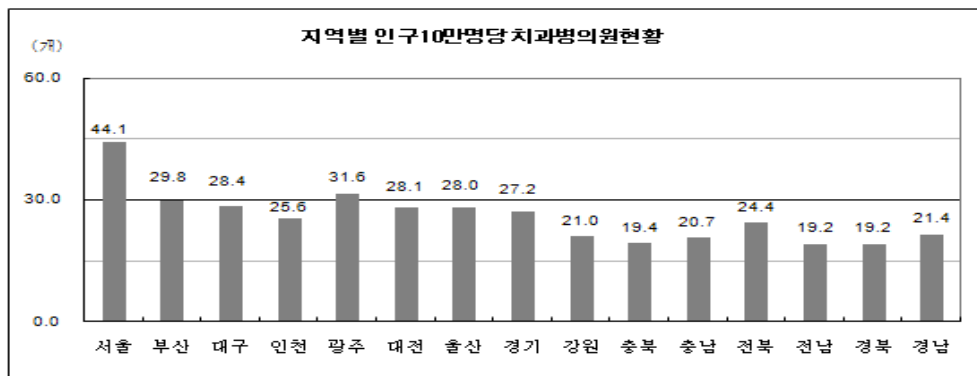
[그림 III-1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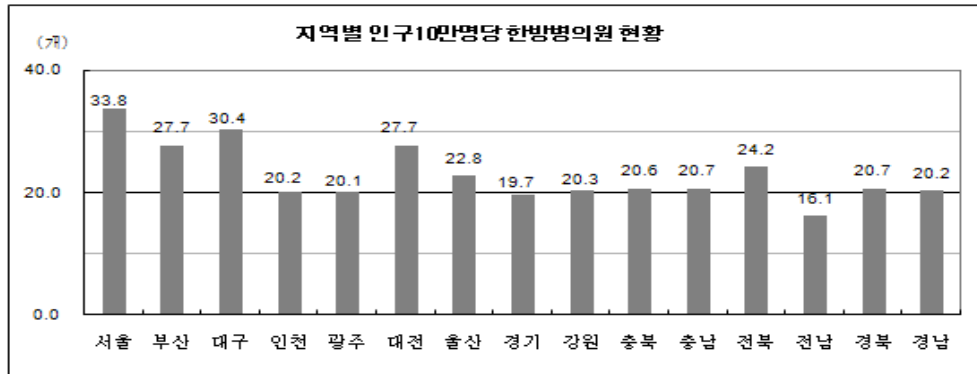
[그림 III-1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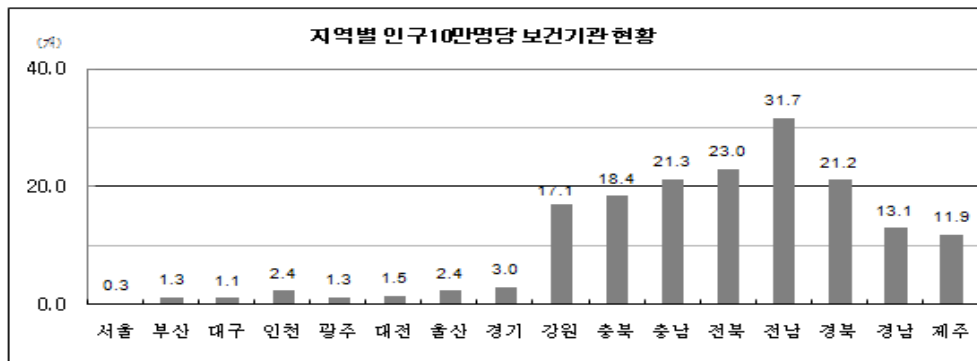
[그림 III-1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병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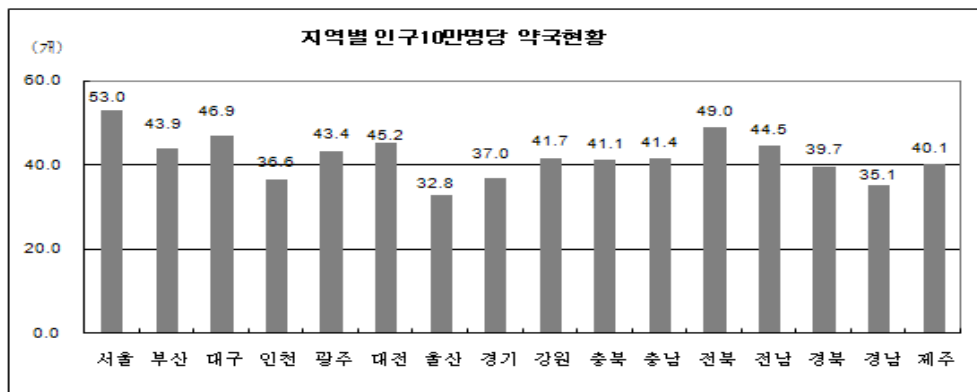
[그림 III-1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의원 현황



[그림 III-1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기관 현황



[그림 III-1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약국 현황



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과

양방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26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인구 10만 명당 내과가 41.5개 그리고 소아청소년과가 30.6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과 25.9개, 이비인후과 20.5개, 정형외과 19.1개, 외과 18.6개, 비뇨기과 17.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일차진료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를 합한 일차진료과목은 인구 10만 명당 110.8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개설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48.4개였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1.5개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이 전북지역보다 1.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가장 많이 개설된 곳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4개로 가장 적은 지역인 울산에 비해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순으로 개설되었으나 강원지역에서는 외과와 피부과가 다른 진료과목보다 많았다.

〈표 III-1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진료과 분포

지역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 의학과
전체	41.5	6.6	4.4	18.6	19.1	9.9	1.6	6.1	6.7
서울	39.6	6.5	5.5	17.1	17.7	9.0	1.2	10.4	6.5
부산	41.3	7.3	4.3	18.9	20.0	11.3	1.7	6.7	7.5
대구	38.4	7.2	3.6	13.6	15.8	10.3	0.9	5.2	8.9
인천	38.4	4.9	3.3	19.2	20.1	11.1	1.1	5.3	4.6
광주	41.6	8.7	6.9	23.0	20.9	11.6	2.9	8.5	10.8
대전	41.0	9.5	6.4	17.6	18.8	8.6	2.2	5.9	5.7
울산	35.2	7.5	3.2	13.6	14.8	8.7	1.7	4.3	7.8
경기	34.6	5.1	3.7	15.9	16.7	8.7	1.3	5.0	5.0
강원	41.5	3.6	3.1	17.0	18.3	7.9	1.7	3.4	5.5
충북	50.7	7.6	4.7	21.1	21.8	10.6	2.1	3.2	7.6
충남	53.6	7.8	4.5	24.0	24.2	10.6	2.3	3.9	7.0
전북	55.7	7.3	4.9	24.3	24.7	14.6	2.2	3.3	7.4
전남	58.0	6.2	4.1	30.8	27.0	13.3	2.7	4.8	9.6
경북	46.9	7.4	3.0	20.0	19.3	8.7	1.8	3.3	7.5
경남	47.1	8.4	4.1	21.7	21.6	11.7	1.9	5.2	8.2
제주	41.1	6.0	4.4	18.9	19.8	7.9	1.5	3.8	5.3

〈표 III-12〉 계속

지역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 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전체	8.2	30.6	7.4	20.5	25.9	17.0	7.5	0.2	1.4
서울	10.5	30.7	7.7	20.6	28.8	17.0	8.3	0.4	1.5
부산	9.7	31.5	5.8	19.2	29.6	19.6	8.3	0.3	1.7
대구	8.2	31.6	9.1	21.7	22.9	13.2	8.5	0.2	2.0
인천	6.9	32.1	5.6	19.5	24.5	18.9	7.4	0.2	1.3
광주	10.7	32.1	10.5	22.9	29.6	20.1	19.5	0.3	3.9
대전	7.9	31.5	6.9	21.1	27.3	15.8	5.7	0.3	1.1
울산	7.4	27.0	5.3	19.7	25.5	17.7	7.0	0.1	1.1
경기	6.5	29.2	6.0	19.4	22.6	14.8	5.4	0.2	0.9
강원	6.9	24.3	5.5	15.5	17.8	13.1	6.0	0.2	1.0
충북	7.6	30.7	7.0	19.9	23.3	16.4	5.2	0.1	1.0
충남	7.2	31.7	7.2	19.5	27.1	18.5	6.2	0.1	0.7
전북	9.2	32.5	10.4	23.1	28.1	19.1	6.1	0.2	1.1
전남	9.6	36.8	12.4	27.1	31.7	23.8	13.1	0.2	3.0
경북	6.8	28.2	9.0	20.2	22.2	15.4	6.1	0.2	1.8
경남	7.6	32.5	8.8	21.9	29.6	20.3	8.0	0.1	1.9
제주	8.2	30.1	6.6	20.0	21.1	13.9	3.3	0.4	0.7

지역	진단검사 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 의학과	응급 의학과	산업 의학과	예방 의학과
전체	3.7	0.5	8.2	0.2	11.7	0.7	0.4	0.4
서울	4.1	0.7	8.9	0.3	13.5	0.7	0.3	0.2
부산	4.6	1.1	8.6	0.2	13.4	0.4	0.3	0.2
대구	7.7	0.3	7.7	0.3	11.1	0.7	0.3	0.3
인천	2.0	0.3	8.3	0.1	10.8	0.5	0.4	0.1
광주	13.3	1.1	14.9	0.4	13.2	1.2	0.8	0.7
대전	2.1	0.3	10.7	0.3	13.2	0.7	0.3	0.4
울산	2.0	0.3	7.6	0.2	8.3	0.4	0.7	0.2
경기	1.9	0.4	6.6	0.2	9.2	0.6	0.3	0.3
강원	2.1	0.2	5.5	0.1	7.3	1.0	0.5	0.4
충북	1.6	0.7	9.0	0.1	13.2	0.7	0.4	0.5
충남	2.0	0.4	9.9	0.1	13.4	1.0	0.7	0.7
전북	2.5	0.4	7.7	0.2	20.6	1.0	0.2	0.3
전남	8.3	0.6	12.8	0.1	13.2	1.4	0.4	0.9
경북	3.8	0.3	6.3	0.1	10.6	0.8	0.6	0.5
경남	3.6	0.5	6.8	0.2	11.0	0.6	0.6	0.8
제주	1.6	0.2	6.2	0.4	7.5	0.9	0.5	0.4

치과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11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6.개 정도 개

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진료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예방치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로 각 인구 10만 명당 25개 정도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병의원 진료과 분포

구분	치과 일반	구강악 안면 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 치과	치주과	치과 보존과	구강 내과	구강악 안면방 사선과	구강 병리과	예방 치과
전체	14.4	25.8	26.3	24.8	26.0	26.1	26.1	25.3	25.1	23.6	25.6
서울	17.7	40.2	41.1	39.5	40.5	40.9	41.1	39.9	39.6	38.1	40.1
부산	12.7	21.4	21.8	21.0	21.6	21.7	21.6	21.1	20.9	20.2	21.4
대구	11.8	25.8	25.9	24.9	25.7	25.8	25.8	25.2	25.2	24.0	25.6
인천	6.4	24.0	24.2	23.1	23.9	24.0	24.0	23.3	23.1	21.9	23.7
광주	14.1	29.4	29.6	28.5	29.4	29.4	29.7	29.2	28.9	26.9	29.0
대전	15.0	25.5	26.1	24.8	25.9	25.7	25.8	25.4	24.9	23.7	25.4
울산	12.2	23.1	23.9	22.8	23.6	23.8	23.3	23.0	22.9	21.8	23.0
경기	12.5	24.8	25.4	24.0	25.2	25.2	25.2	24.3	24.3	22.5	24.7
강원	18.1	17.1	16.7	15.2	16.9	16.8	16.9	16.5	15.9	14.6	16.7
충북	14.9	17.3	16.9	16.1	17.2	17.0	17.1	16.7	16.5	15.0	16.9
충남	17.1	18.0	18.7	16.5	18.3	18.4	18.3	17.1	16.8	15.0	17.9
전북	16.4	22.6	23.2	21.5	23.3	23.2	23.2	22.7	22.1	20.9	23.0
전남	17.5	17.4	17.9	16.3	17.6	17.3	17.3	15.6	15.5	13.6	15.9
경북	14.4	16.8	16.9	15.0	16.5	16.7	16.6	16.4	16.1	15.0	16.3
경남	15.2	16.4	17.1	15.0	16.9	17.2	17.2	16.5	16.4	14.7	16.9
제주	16.3	20.0	20.2	18.5	20.5	20.3	20.0	19.8	18.9	17.6	19.8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10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4개 정도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진료과로는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3개 정도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구분	한방 일반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 신경 정신과	침구과	한방 재활 의학과	사상 체질과	한방 응급
전체	9.7	24.6	24.1	23.9	23.7	23.3	24.2	21.2	20.4	15.2
서울	10.1	34.0	33.8	33.6	33.6	33.4	33.8	31.6	31.3	23.6
부산	9.5	23.5	23.3	23.0	22.9	22.1	23.3	20.4	19.0	15.0
대구	9.3	31.1	31.0	30.9	30.6	30.5	30.9	28.2	27.6	23.5
인천	5.9	20.9	20.5	20.3	20.3	20.0	20.5	18.2	18.1	14.4
광주	6.7	22.0	21.0	21.4	21.0	19.6	21.9	15.5	14.0	5.3
대전	12.4	27.8	27.1	27.3	26.7	26.3	27.3	24.3	22.9	16.6
울산	6.9	24.2	23.1	22.5	22.2	21.7	23.5	17.3	17.7	8.3
경기	7.4	20.0	19.8	19.7	19.6	19.4	19.9	18.4	17.8	15.0
강원	12.7	20.8	19.9	19.8	19.2	18.6	20.3	17.1	16.3	12.1
충북	13.2	21.3	20.7	20.7	20.4	19.6	21.1	17.3	15.0	11.9
충남	13.7	22.2	20.8	20.5	20.1	19.4	20.9	16.8	14.8	8.7
전북	12.5	26.4	25.4	25.3	24.7	24.2	25.6	22.3	21.2	13.4
전남	12.0	17.5	16.2	16.1	15.5	15.1	16.7	11.5	9.9	3.9
경북	12.0	21.4	20.5	20.0	19.3	18.9	21.0	15.3	15.3	10.2
경남	10.4	20.9	20.5	20.0	19.8	19.4	20.4	15.6	14.9	10.1
제주	10.6	19.4	18.9	18.9	19.2	17.8	19.2	16.7	15.2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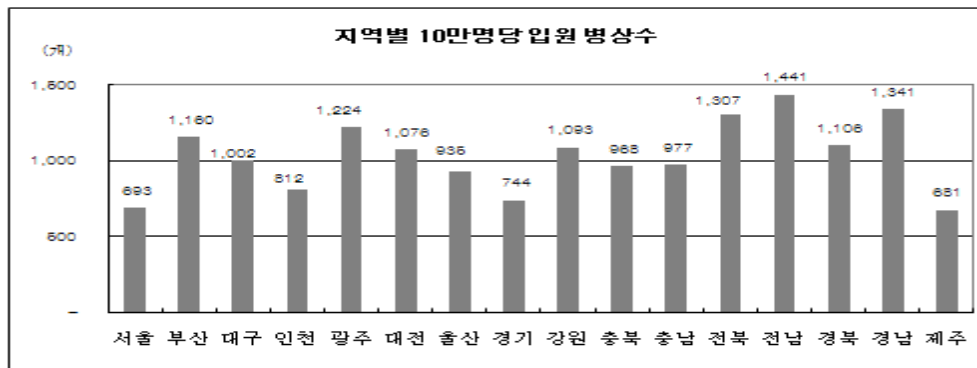
## 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입원병상수는 989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1,441병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681병상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간 차이가 2배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급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85병상, 269병상, 227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상급병상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136병상과 129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원병실수 및 입원병상수 분포

구분	입원병실 계	상급입원병실	일반입원병실	입원병상 계	상급입원병상	일반입원병상
전체	207	104	101	693	193	488
서울	306	136	167	1,160	269	873
부산	252	94	154	1,002	166	806
대구	221	79	141	812	156	651
인천	361	175	180	1,224	285	901
광주	297	127	168	1,076	227	833
대전	240	97	140	935	164	748
울산	193	74	117	744	136	596
경기	278	87	189	1,093	143	942
강원	251	86	158	968	153	785
충북	248	76	168	977	129	809
충남	364	116	246	1,307	171	1,122
전북	365	124	237	1,441	208	1,214
전남	268	80	168	1,106	142	878
경북	292	110	173	1,341	205	1,057
경남	202	94	105	681	162	494
제주	247	98	145	939	177	737

〔그림 III-17〕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원 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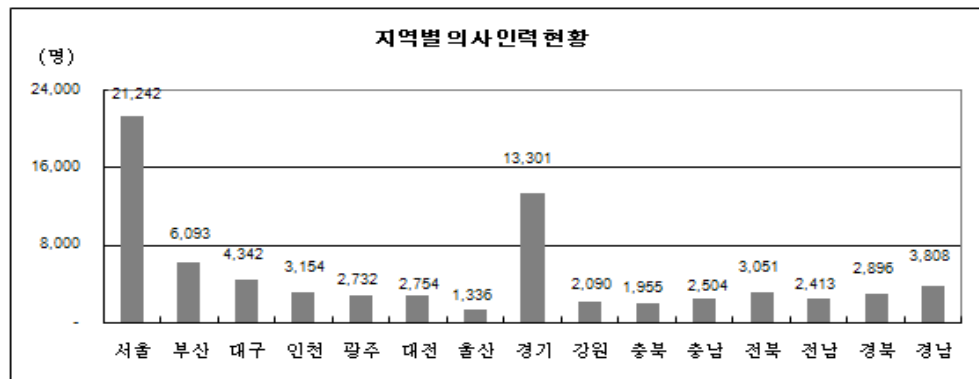
## 2.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 가.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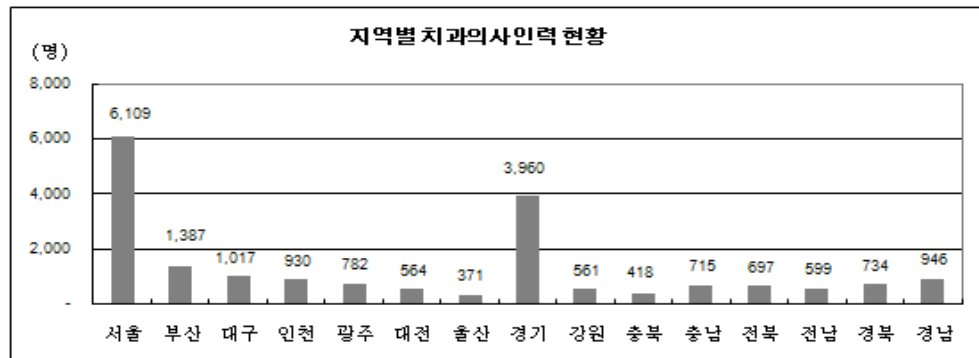
아래 표는 지역별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의사는 74,394명이고, 치과의사는 19,974명, 한의사수는 15,165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105,933명, 조산사 1,322명, 간호조무사 103,957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138명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의료인력은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III-18]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그림 III-19] 지역별 치과의사인력 현황



〈표 III-16〉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지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 조무사	간호 보조원
전체	N	74,394	19,974	15,165	32,138	105,933	1,322	103,957	4,098
	인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21,242	6,109	4,216	8,472	28,322	232	22,822	1,105
	인력 내%	28.6	30.6	27.8	26.4	26.7	17.5	22.0	27.0
부산	N	6,093	1,387	1,187	2,389	7,541	261	9,660	190
	인력 내%	8.2	6.9	7.8	7.4	7.1	19.7	9.3	4.6
대구	N	4,342	1,017	868	1,716	6,025	56	5,077	150
	인력 내%	5.8	5.1	5.7	5.3	5.7	4.2	4.9	3.7
인천	N	3,154	930	668	1,468	4,326	44	5,182	106
	인력 내%	4.2	4.7	4.4	4.6	4.1	3.3	5.0	2.6
광주	N	2,732	782	406	1,015	4,374	37	3,192	67
	인력 내%	3.7	3.9	2.7	3.2	4.1	2.8	3.1	1.6
대전	N	2,754	564	523	1,043	3,399	28	3,482	143
	인력 내%	3.7	2.8	3.4	3.2	3.2	2.1	3.3	3.5
울산	N	1,336	371	321	602	2,167	23	2,146	138
	인력 내%	1.8	1.9	2.1	1.9	2.0	1.7	2.1	3.4
경기	N	13,301	3,960	2,736	6,653	17,480	242	20,067	696
	인력 내%	17.9	19.8	18.0	20.7	16.5	18.3	19.3	17.0
강원	N	2,090	561	416	894	3,657	36	3,040	104
	인력 내%	2.8	2.8	2.7	2.8	3.5	2.7	2.9	2.5
충북	N	1,955	418	426	924	2,521	31	3,589	197
	인력 내%	2.6	2.1	2.8	2.9	2.4	2.3	3.5	4.8
충남	N	2,504	715	573	1,173	3,238	27	4,586	326
	인력 내%	3.4	3.6	3.8	3.6	3.1	2.0	4.4	8.0
전북	N	3,051	697	634	1,256	4,391	49	4,662	207
	인력 내%	4.1	3.5	4.2	3.9	4.1	3.7	4.5	5.1
전남	N	2,413	599	501	1,169	5,063	67	4,286	149
	인력 내%	3.2	3.0	3.3	3.6	4.8	5.1	4.1	3.6
경북	N	2,896	734	725	1,427	5,814	86	4,768	218
	인력 내%	3.9	3.7	4.8	4.4	5.5	6.5	4.6	5.3
경남	N	3,808	946	819	1,628	6,167	90	6,607	290
	인력 내%	5.1	4.7	5.4	5.1	5.8	6.8	6.4	7.1
제주	N	723	184	146	309	1,448	13	791	12
	인력 내%	1.0	0.9	1.0	1.0	1.4	1.0	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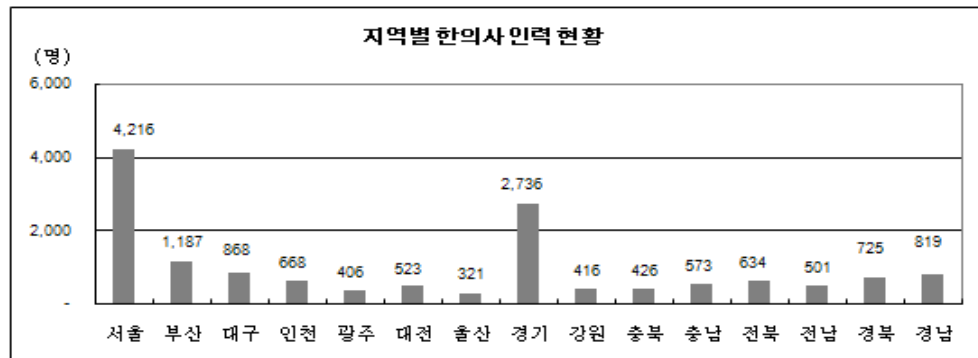
〈표 III-16〉 계속

지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전체	N	15,859	15,459	20,173	1,640	2,105	19,504	2,991
	인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4,045	3,692	3,540	349	541	5,620	606
	인력 내%	25.5	23.9	17.5	21.3	25.7	28.8	20.3
부산	N	1,238	1,168	1,386	117	178	755	271
	인력 내%	7.8	7.6	6.9	7.1	8.5	3.9	9.1
대구	N	1,099	1,010	995	112	188	1,204	183
	인력 내%	6.9	6.5	4.9	6.8	8.9	6.2	6.1
인천	N	604	743	1,082	135	78	667	99
	인력 내%	3.8	4.8	5.4	8.2	3.7	3.4	3.3
광주	N	669	570	665	47	90	939	114
	인력 내%	4.2	3.7	3.3	2.9	4.3	4.8	3.8
대전	N	557	574	714	75	73	697	192
	인력 내%	3.5	3.7	3.5	4.6	3.5	3.6	6.4
울산	N	309	303	376	11	49	272	44
	인력 내%	1.9	2.0	1.9	0.7	2.3	1.4	1.5
경기	N	2,540	2,892	4,086	466	351	3,930	444
	인력 내%	16.0	18.7	20.3	28.4	16.7	20.1	14.8
강원	N	433	426	590	29	40	526	78
	인력 내%	2.7	2.8	2.9	1.8	1.9	2.7	2.6
충북	N	454	431	747	22	17	396	76
	인력 내%	2.9	2.8	3.7	1.3	0.8	2.0	2.5
충남	N	529	544	1,010	72	87	542	150
	인력 내%	3.3	3.5	5.0	4.4	4.1	2.8	5.0
전북	N	791	658	1,006	25	60	791	221
	인력 내%	5.0	4.3	5.0	1.5	2.9	4.1	7.4
전남	N	653	556	1,182	42	66	653	124
	인력 내%	4.1	3.6	5.9	2.6	3.1	3.3	4.1
경북	N	775	786	1,133	41	144	883	168
	인력 내%	4.9	5.1	5.6	2.5	6.8	4.5	5.6
경남	N	999	942	1,369	69	126	1,391	174
	인력 내%	6.3	6.1	6.8	4.2	6.0	7.1	5.8
제주	N	164	164	292	28	17	238	47
	인력 내%	1.0	1.1	1.4	1.7	0.8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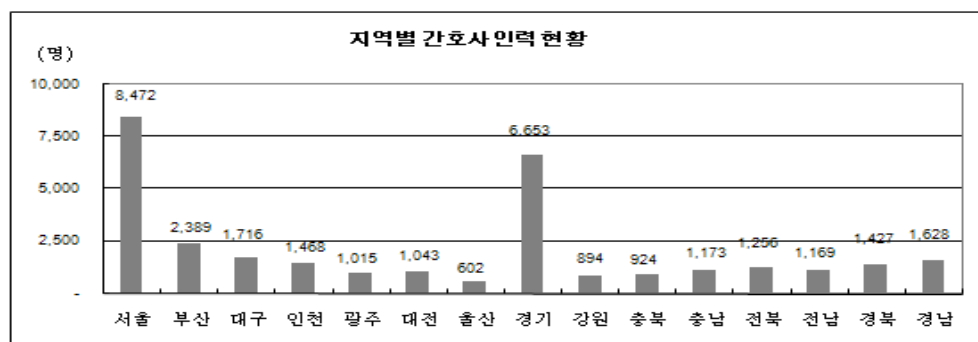
〈표 III-16〉 계속

지역		응급의료기사(1급)	응급의료기사(2급)	영양사	안경사
전체	N	840	59	3,274	384
	인력 내%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70	2	421	119
	인력 내%	8.3	3.4	12.9	31.0
부산	N	7	1	315	61
	인력 내%	0.8	1.7	9.6	15.9
대구	N	12	7	204	12
	인력 내%	1.4	11.9	6.2	3.1
인천	N	19	-	71	16
	인력 내%	2.3	0.0	2.2	4.2
광주	N	99	-	173	14
	인력 내%	11.8	0.0	5.3	3.6
대전	N	6	-	116	23
	인력 내%	0.7	0.0	3.5	6.0
울산	N	14	5	97	14
	인력 내%	1.7	8.5	3.0	3.6
경기	N	124	3	587	54
	인력 내%	14.8	5.1	17.9	14.1
강원	N	14	1	73	5
	인력 내%	1.7	1.7	2.2	1.3
충북	N	51	1	116	9
	인력 내%	6.1	1.7	3.5	2.3
충남	N	61	4	146	9
	인력 내%	7.3	6.8	4.5	2.3
전북	N	10	1	225	8
	인력 내%	1.2	1.7	6.9	2.1
전남	N	102	3	207	5
	인력 내%	12.1	5.1	6.3	1.3
경북	N	36	11	194	7
	인력 내%	4.3	18.6	5.9	1.8
경남	N	137	14	301	21
	인력 내%	16.3	23.7	9.2	5.5
제주	N	78	6	28	7
	인력 내%	9.3	10.2	0.9	1.8

[그림 III-20] 지역별 한의사 인력 현황



[그림 III-21] 지역별 간호사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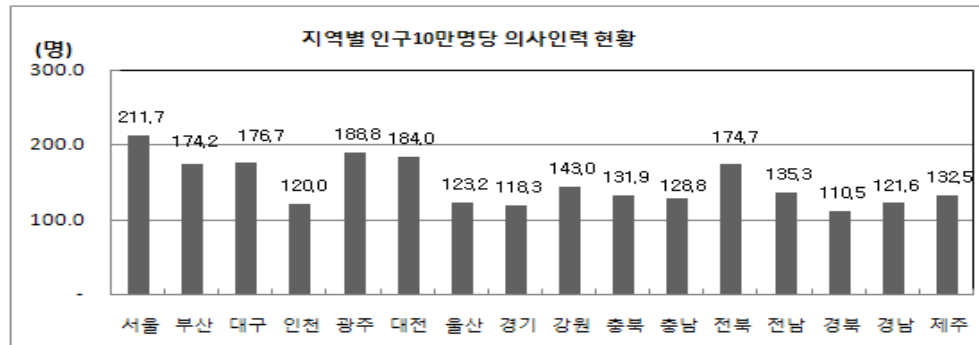


#### 나. 지역별 인구대비 보건의료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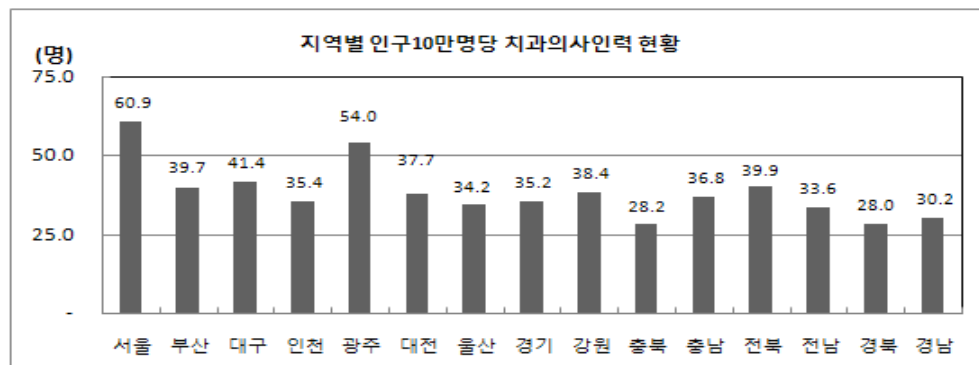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53.1명, 치과의사 41.1명, 한의사 31.2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서울이 2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광주 188.8명, 대전 18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110.5명으로 조사되었다.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과 전북이 각각 42.0명과 36.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60.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8.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지원보건의료 인력은 간호사 217.9명, 약사(병원약사와 개업약사 포함) 66.1명, 간호조무사 213.9명, 임상병리사 32.6명, 방사선사 31.8명, 물리치료사 41.5명, 작업치료사 3.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4.3명과 40.1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간호사의 경

우 광주가 3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5.4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부산이 2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45.0명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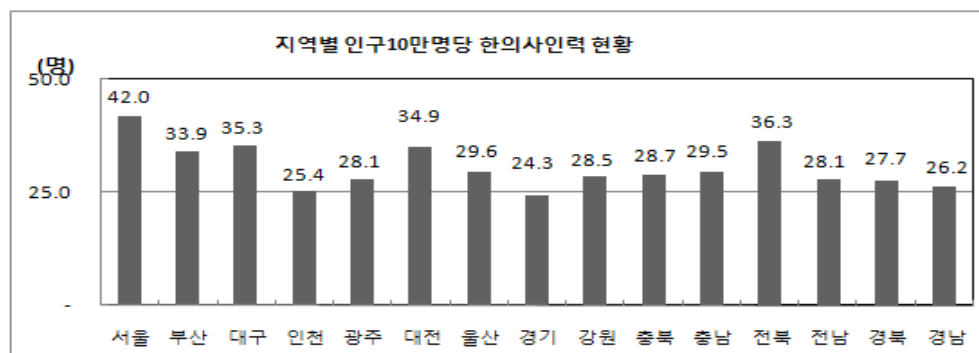
[그림 Ⅲ-2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인력 현황



[그림 Ⅲ-2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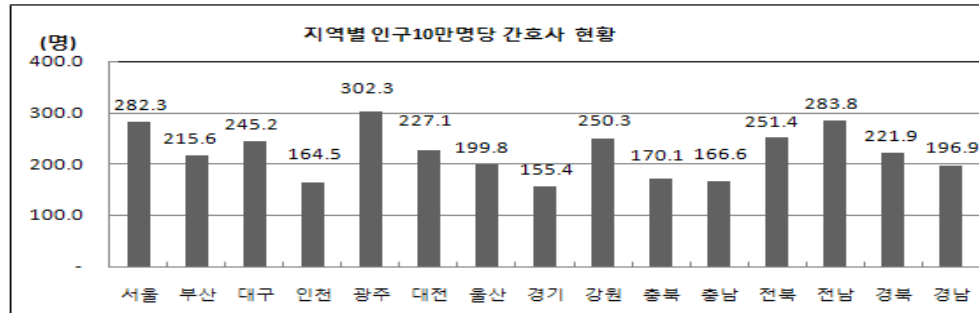


[그림 Ⅲ-2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한의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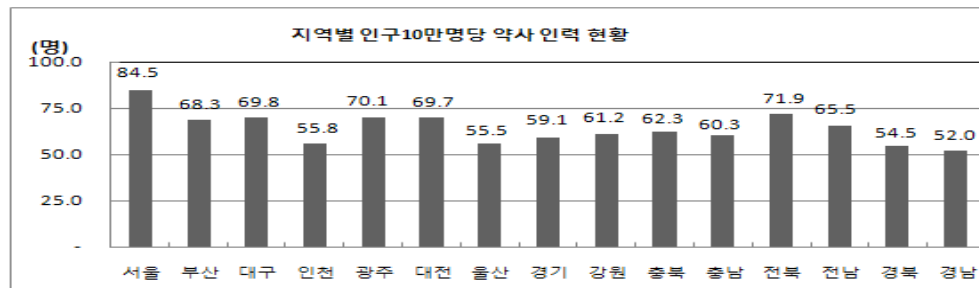




〔그림 III-2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인력 현황



〔그림 III-2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약사인력 현황



〈표 III-17〉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인력 현황

종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 조무사	간호 보조원	임상 병리사	방사 선사
전체	153.1	41.1	31.2	66.1	217.9	2.7	213.9	8.4	32.6	31.8
서울	211.7	60.9	42.0	84.5	282.3	2.3	227.5	11.0	40.3	36.8
부산	174.2	39.7	33.9	68.3	215.6	7.5	276.2	5.4	35.4	33.4
대구	176.7	41.4	35.3	69.8	245.2	2.3	206.6	6.1	44.7	41.1
인천	120.0	35.4	25.4	55.8	164.5	1.7	197.1	4.0	23.0	28.3
광주	188.8	54.0	28.1	70.1	302.3	2.6	220.6	4.6	46.2	39.4
대전	184.0	37.7	34.9	69.7	227.1	1.9	232.7	9.6	37.2	38.4
울산	123.2	34.2	29.6	55.5	199.8	2.1	197.8	12.7	28.5	27.9
경기	118.3	35.2	24.3	59.1	155.4	2.2	178.4	6.2	22.6	25.7
강원	143.0	38.4	28.5	61.2	250.3	2.5	208.0	7.1	29.6	29.2
충북	131.9	28.2	28.7	62.3	170.1	2.1	242.2	13.3	30.6	29.1
충남	128.8	36.8	29.5	60.3	166.6	1.4	235.9	16.8	27.2	28.0
전북	174.7	39.9	36.3	71.9	251.4	2.8	266.9	11.9	45.3	37.7
전남	135.3	33.6	28.1	65.5	283.8	3.8	240.3	8.4	36.6	31.2
경북	110.5	28.0	27.7	54.5	221.9	3.3	182.0	8.3	29.6	30.0
경남	121.6	30.2	26.2	52.0	196.9	2.9	211.0	9.3	31.9	30.1
제주	132.5	33.7	26.8	56.6	265.5	2.4	145.0	2.2	30.1	30.1

〈표 Ⅲ-17〉 계속

종합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 기록사	응급의료 기사(1급)	응급의료 기사(2급)	영양사	안경사
전체	41.5	3.4	4.3	40.1	6.2	1.7	0.1	6.7	0.8
서울	35.3	3.5	5.4	56.0	6.0	0.7	0.0	4.2	1.2
부산	39.6	3.3	5.1	21.6	7.7	0.2	0.0	9.0	1.7
대구	40.5	4.6	7.7	49.0	7.4	0.5	0.3	8.3	0.5
인천	41.2	5.1	3.0	25.4	3.8	0.7	-	2.7	0.6
광주	46.0	3.2	6.2	64.9	7.9	6.8	-	12.0	1.0
대전	47.7	5.0	4.9	46.6	12.8	0.4	-	7.8	1.5
울산	34.7	1.0	4.5	25.1	4.1	1.3	0.5	8.9	1.3
경기	36.3	4.1	3.1	34.9	3.9	1.1	0.0	5.2	0.5
강원	40.4	2.0	2.7	36.0	5.3	1.0	0.1	5.0	0.3
충북	50.4	1.5	1.1	26.7	5.1	3.4	0.1	7.8	0.6
충남	52.0	3.7	4.5	27.9	7.7	3.1	0.2	7.5	0.5
전북	57.6	1.4	3.4	45.3	12.7	0.6	0.1	12.9	0.5
전남	66.3	2.4	3.7	36.6	7.0	5.7	0.2	11.6	0.3
경북	43.2	1.6	5.5	33.7	6.4	1.4	0.4	7.4	0.3
경남	43.7	2.2	4.0	44.4	5.6	4.4	0.4	9.6	0.7
제주	53.5	5.1	3.1	43.6	8.6	14.3	1.1	5.1	1.3

### 3.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 가.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분포

고가의료장비는 OECD 통계에 나와 있는 5개 장비를 포함해서 총 9개 장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고가의료장비의 수는 보건의료기관이 많이 위치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그리고 대도시에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가의료장비별로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는 362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1,553대, Gamma Camera 318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0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1,688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80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17대, 단층촬영장치(Mamographs)<sup>1)</sup> 2,220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Therapy Equipment) 242대로 조사되었다.

1) 2008년 조사에서 단층촬영장치 (Mamographs)에는 Tomography도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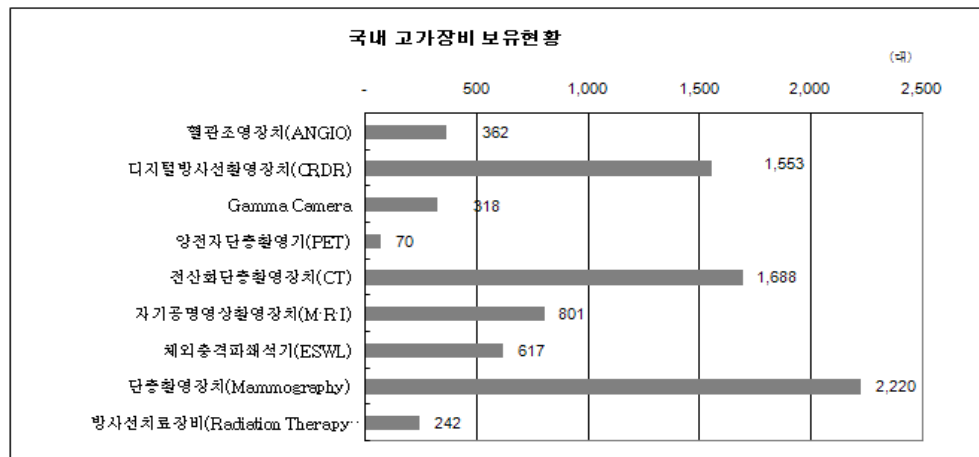
〈표 III-18〉 지역별 고가장비 현황

지역		혈관조영 장치 (ANGIO)	디지털방 사선촬영 장치 (CR.DR)	Gamma Camera	양전자단 층촬영기 (PET)	전산화단 층촬영장 치 (CT)	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M·R·I)	체외충격 파쇄석기 (ESWL)	단층촬영 장치 (Mamogr aphs)	방사선 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전국	N	362	1,553	318	70	1,688	801	617	2220	242
	장비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N	121	359	119	22	304	209	125	477	75
	장비내%	33.4	23.1	37.4	31.4	18.0	26.1	20.3	21.5	31.0
부산	N	37	85	29	6	129	53	46	170	22
	장비내%	10.2	5.5	9.1	8.6	7.6	6.6	7.5	7.7	9.1
대구	N	20	90	22	5	112	45	37	122	18
	장비내%	5.5	5.8	6.9	7.1	6.6	5.6	6.0	5.5	7.4
인천	N	9	37	9	2	66	31	28	115	13
	장비내%	2.5	2.4	2.8	2.9	3.9	3.9	4.5	5.2	5.4
광주	N	11	69	11	1	63	37	26	94	8
	장비내%	3.0	4.4	3.5	1.4	3.7	4.6	4.2	4.2	3.3
대전	N	15	89	15	4	49	26	21	71	12
	장비내%	4.1	5.7	4.7	5.7	2.9	3.2	3.4	3.2	5.0
울산	N	5	23	7	-	44	21	17	47	4
	장비내%	1.4	1.5	2.2	-	2.6	2.6	2.8	2.1	1.7
경기	N	65	272	48	13	312	156	121	443	40
	장비내%	18.0	17.5	15.1	18.6	18.5	19.5	19.6	20.0	16.5
강원	N	10	48	9	-	64	27	18	70	2
	장비내%	2.8	3.1	2.8	-	3.8	3.4	2.9	3.2	0.8
충북	N	7	44	7	-	60	16	16	67	6
	장비내%	1.9	2.8	2.2	-	3.6	2.0	2.6	3.0	2.5
충남	N	14	78	5	2	68	23	29	79	8
	장비내%	3.9	5.0	1.6	2.9	4.0	2.9	4.7	3.6	3.3
전북	N	10	64	10	-	102	31	24	94	11
	장비내%	2.8	4.1	3.1	-	6.0	3.9	3.9	4.2	4.5
전남	N	8	57	8	3	81	33	25	88	7
	장비내%	2.2	3.7	2.5	4.3	4.8	4.1	4.1	4.0	2.9
경북	N	13	109	11	2	84	32	26	96	7
	장비내%	3.6	7.0	3.5	2.9	5.0	4.0	4.2	4.3	2.9
경남	N	14	104	6	-	139	54	52	165	7
	장비내%	3.9	6.7	1.9	-	8.2	6.7	8.4	7.4	2.9
제주	N	3	25	2	10	11	7	6	22	2
	장비내%	0.8	1.6	0.6	14.3	0.7	0.9	1.0	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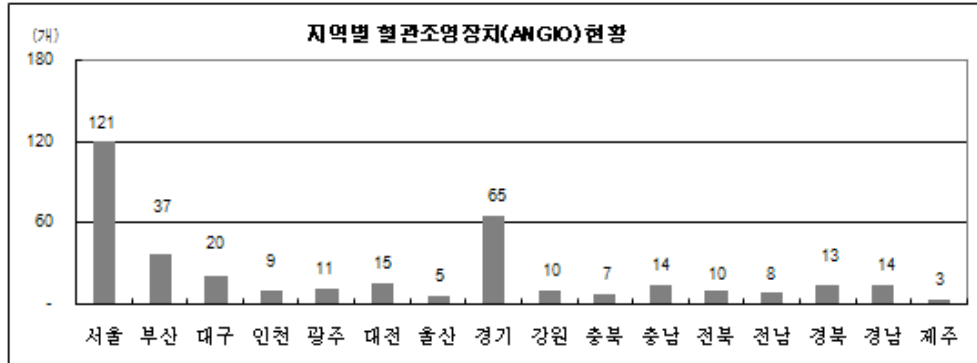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M.R.I.는 서울 209대, 경기 156대가 설치되어 전체 M.R.I.장비 중 45.6%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CT의 경우는 서울에서 304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와 부산 순으로 각각 312대와 12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22대 경기지역에 13대가 설치되어 약 5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설치되어 있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125대, 121대로 나타났으며, 경남과 부산이 각각 52대, 46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의 경우 서울이 359대, 경기지역이 272대로 보유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지역에서 각각 90대, 109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단층촬영장치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477대, 44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남지역이 165대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코발트치료기, 선형가속 치료장치, 후장전 치료장치, 이리디움 치료기, 및 혈액 방사선 조사기를 합한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방사선치료장비는 서울지역이 71대로 31%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지역이 40대로 16.5%를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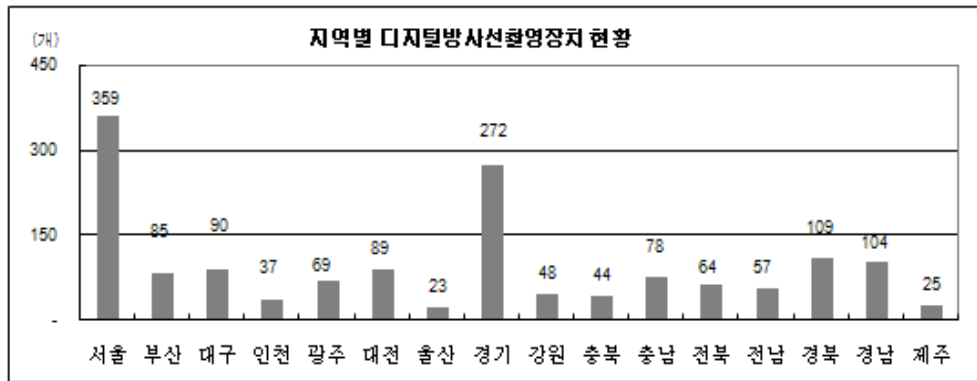
[그림 III-27] 국내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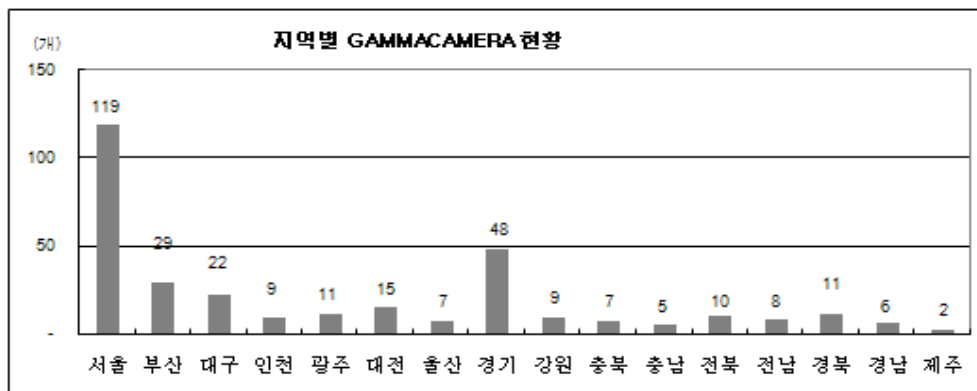
[그림 III-28] 지역별 혈관조영장치(ANGIO)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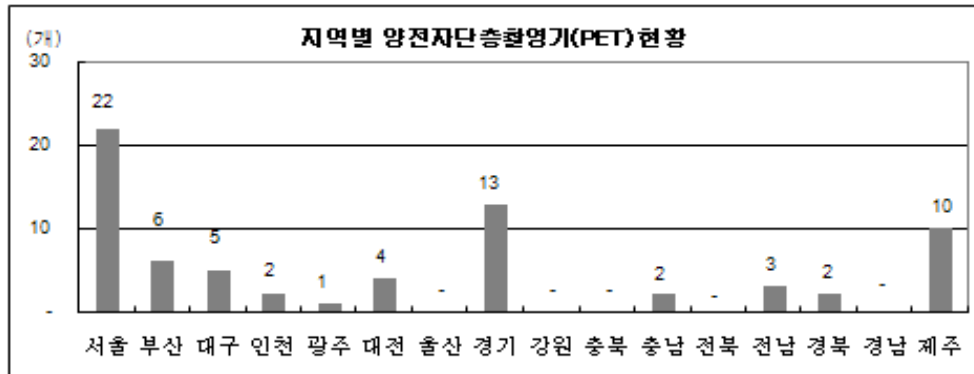
[그림 III-29] 지역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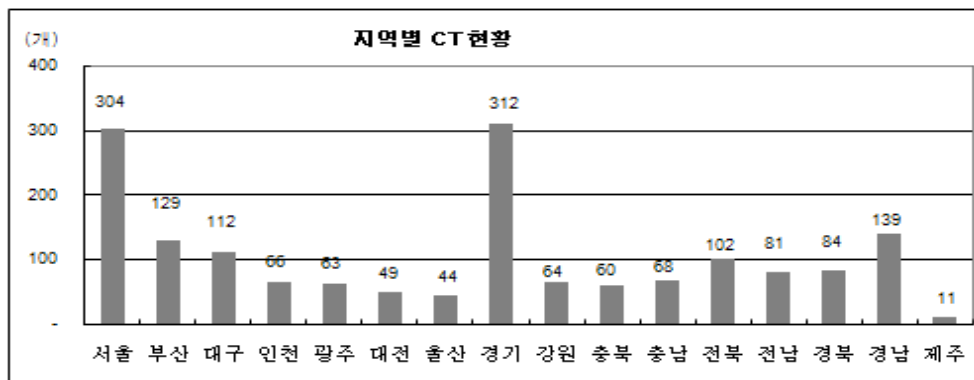
[그림 III-30] 지역별 Gamma Camer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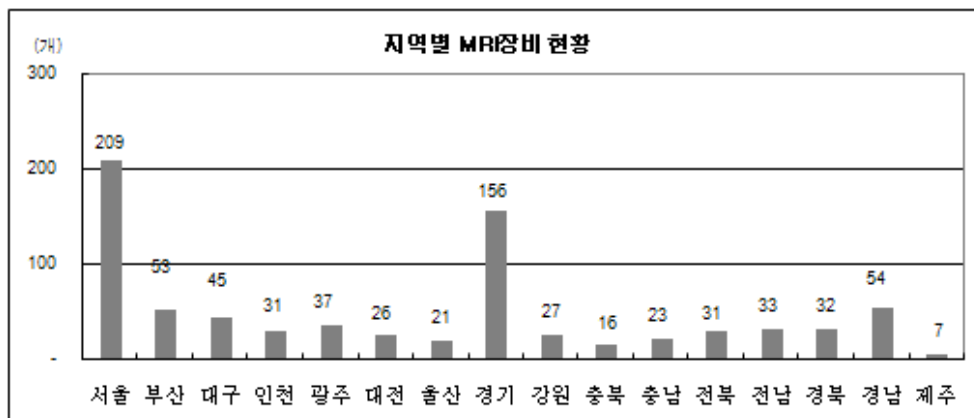
[그림 III-31] 지역별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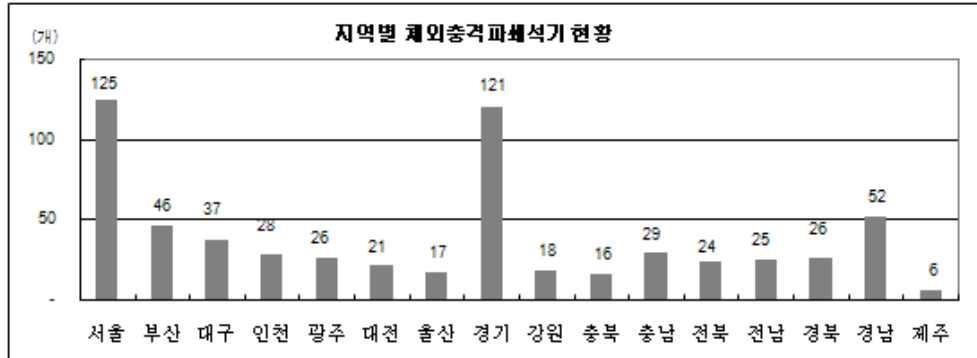
[그림 III-32]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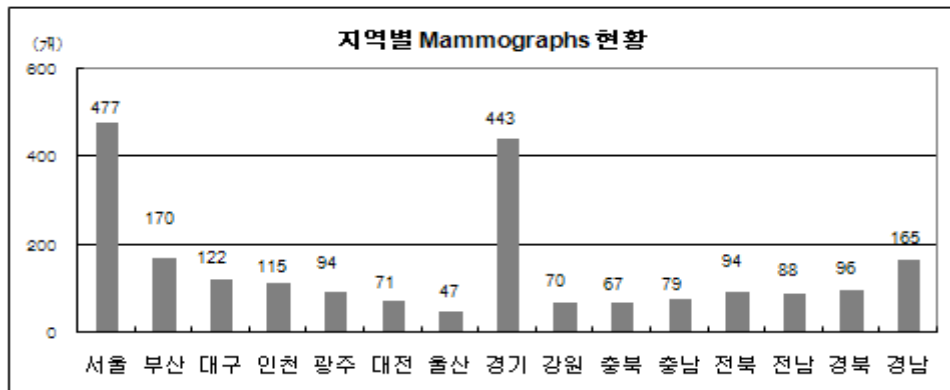
[그림 III-33]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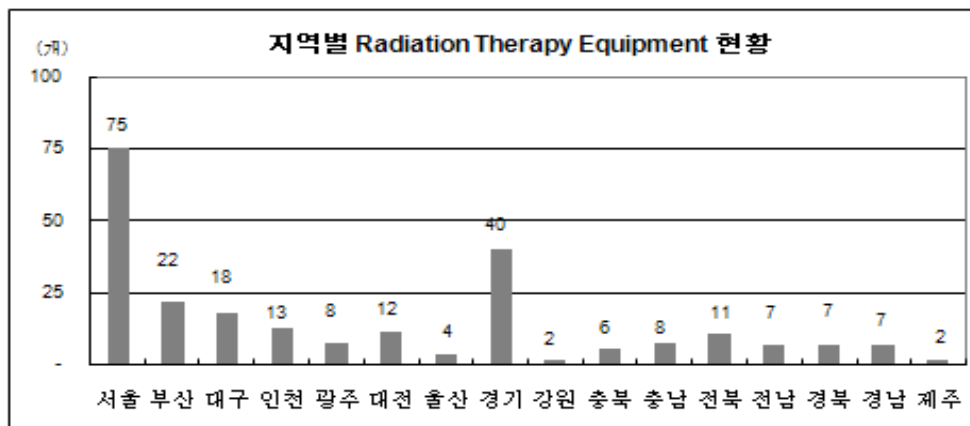
[그림 III-34] 지역별 체외충격파쇄석기(ESWL)현황



[그림 III-35] 지역별 단층촬영장치(Mammography) 현황



[그림 III-36] 지역별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나. 지역별 인구대비 고가의료장비 분포

인구 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74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CR.DR) 3.20대, Gamma Camera 0.65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47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6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27대, 단층촬영장치(Mamographs) 4.5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0대로 나타났다.

〈표 III-19〉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고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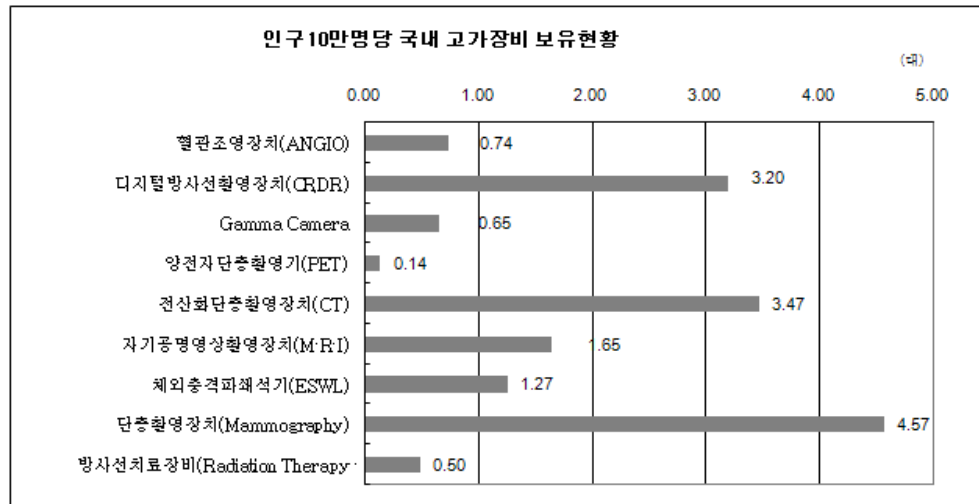
지역	혈관조영 장치 (ANGIO)	디지털방 사선촬영 장치 (CR.DR)	Gamma Camera	양전자단 층촬영기 (PET)	전산화단 층촬영장 치 (CT)	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M·R·I)	체외충격 파쇄석기 (ESWL)	단층촬영장치 (Mamography)	방사선치 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전국	0.74	3.20	0.65	0.14	3.47	1.65	1.27	4.57	0.50
서울	1.21	3.58	1.19	0.22	3.03	2.08	1.25	4.75	0.75
부산	1.06	2.43	0.83	0.17	3.69	1.52	1.32	4.86	0.63
대구	0.81	3.66	0.90	0.20	4.56	1.83	1.51	4.97	0.73
인천	0.34	1.41	0.34	0.08	2.51	1.18	1.06	4.37	0.49
광주	0.76	4.77	0.76	0.07	4.35	2.56	1.80	6.50	0.55
대전	1.00	5.95	1.00	0.27	3.27	1.74	1.40	4.74	0.80
울산	0.46	2.12	0.65	0.00	4.06	1.94	1.57	4.33	0.37
경기	0.58	2.42	0.43	0.12	2.77	1.39	1.08	3.94	0.36
강원	0.68	3.28	0.62	0.00	4.38	1.85	1.23	4.79	0.14
충북	0.47	2.97	0.47	0.00	4.05	1.08	1.08	4.52	0.40
충남	0.72	4.01	0.26	0.10	3.50	1.18	1.49	4.06	0.41
전북	0.57	3.66	0.57	0.00	5.84	1.77	1.37	5.38	0.63
전남	0.45	3.20	0.45	0.17	4.54	1.85	1.40	4.93	0.39
경북	0.50	4.16	0.42	0.08	3.21	1.22	0.99	3.66	0.27
경남	0.45	3.32	0.19	0.00	4.44	1.72	1.66	5.27	0.22
제주	0.55	4.58	0.37	1.83	2.02	1.28	1.10	4.03	0.37

지역별로 보면 CT의 인구 10만 명당 보유대수는 전북이 5.84대로 가장 많고 제주가 2.02대로 가장 적었다. MRI는 인구 10만 명당 보유대수가 전남 광주에서 2.56대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08대로 나타났다. 단층촬영장치의 경우도 전남 광주에서 인구 10만 명당 6.50대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이 3.66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치료장비는 대전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0.80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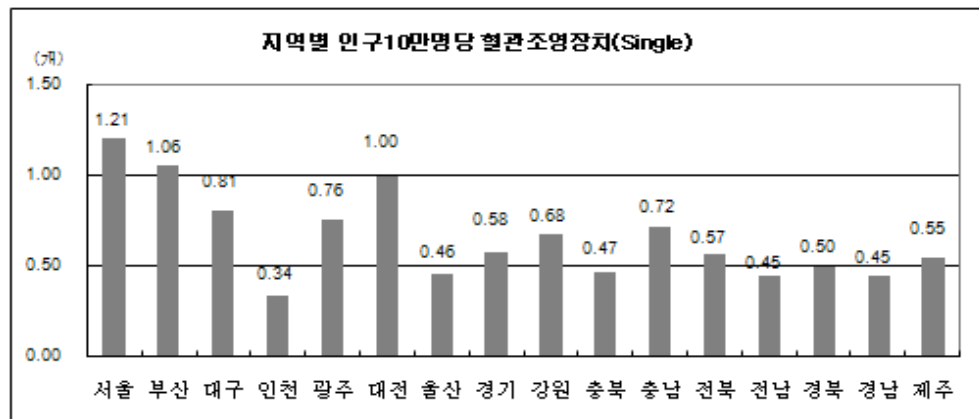


있는 반면 강원지역이 0.14대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전남 광주가 1.80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이 0.99대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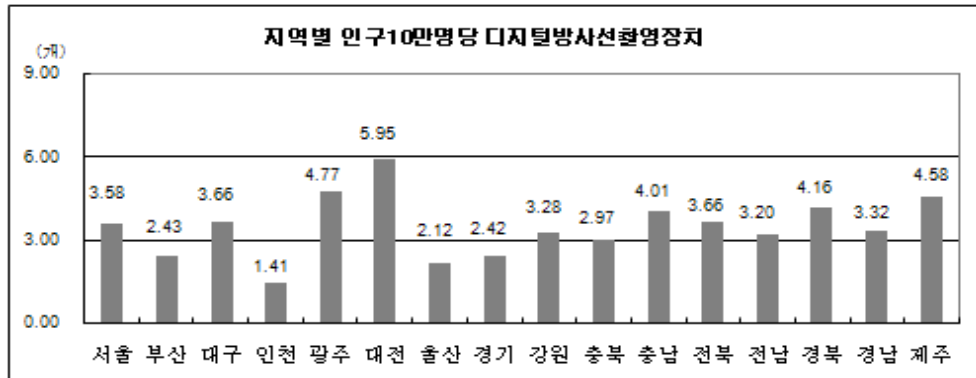
[그림 III-37] 인구 10만 명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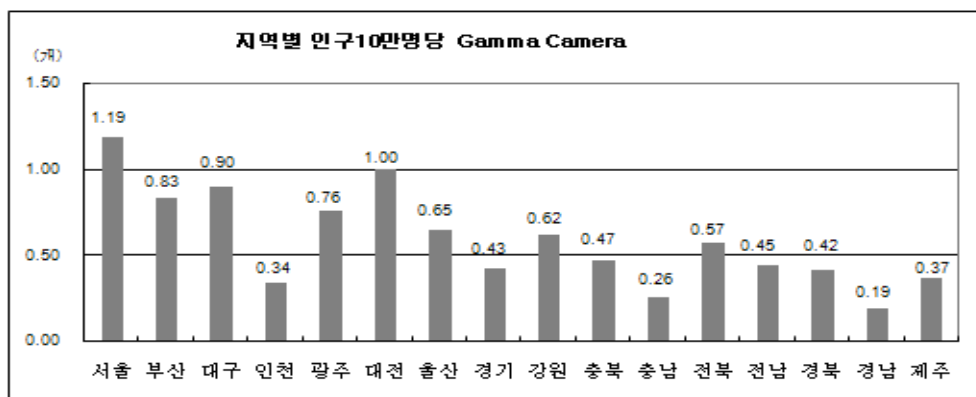
[그림 III-38]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혈관조영장치(ANGIO)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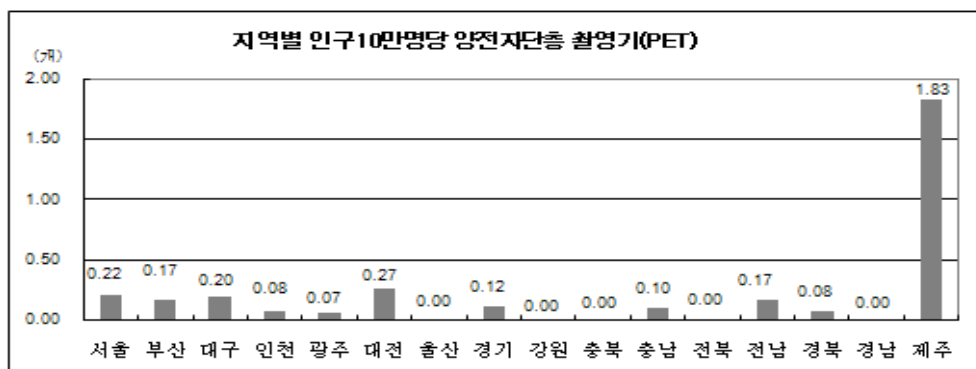
[그림 III-39]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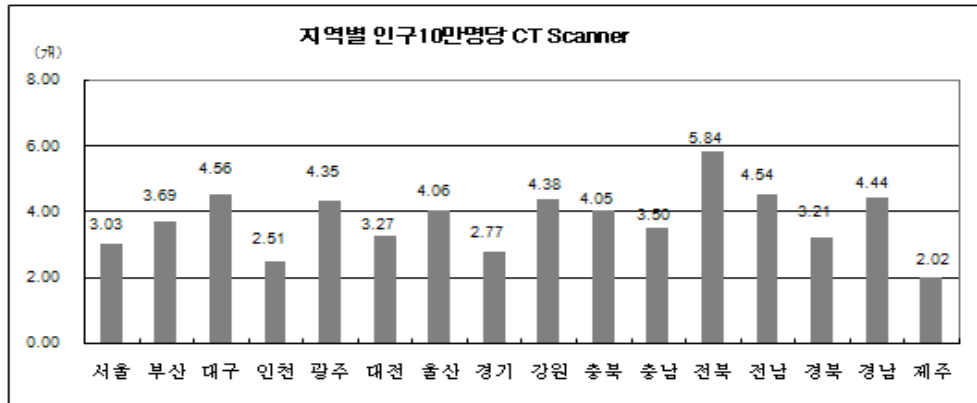
[그림 III-40]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Gamma Camer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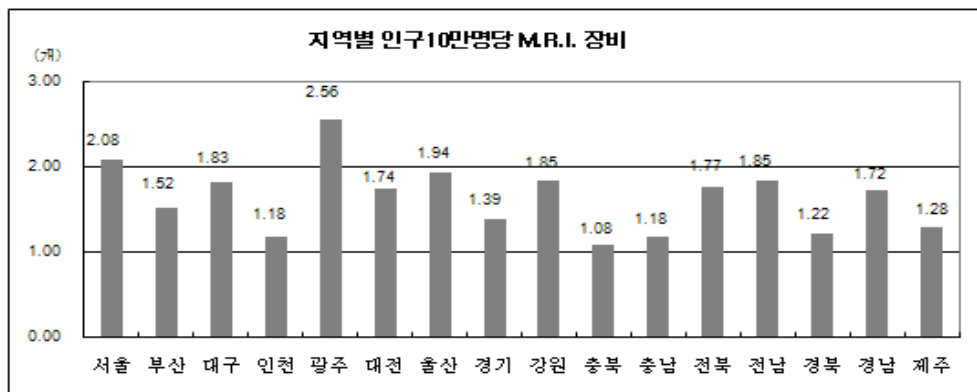
[그림 III-41]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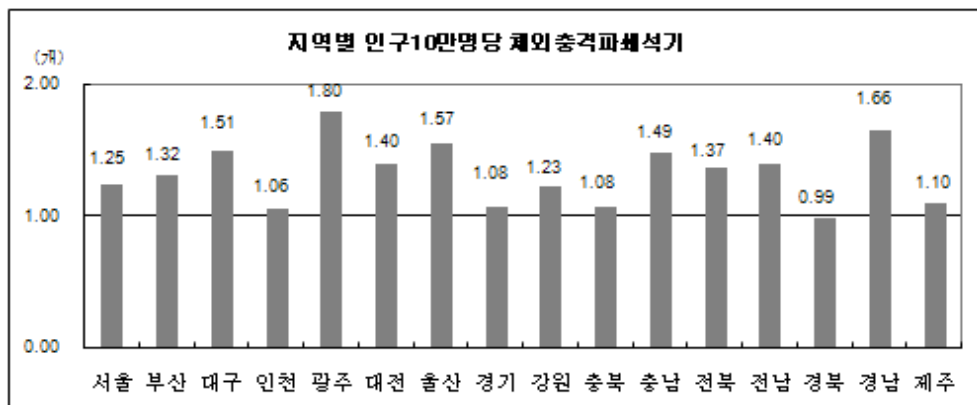
[그림 III-4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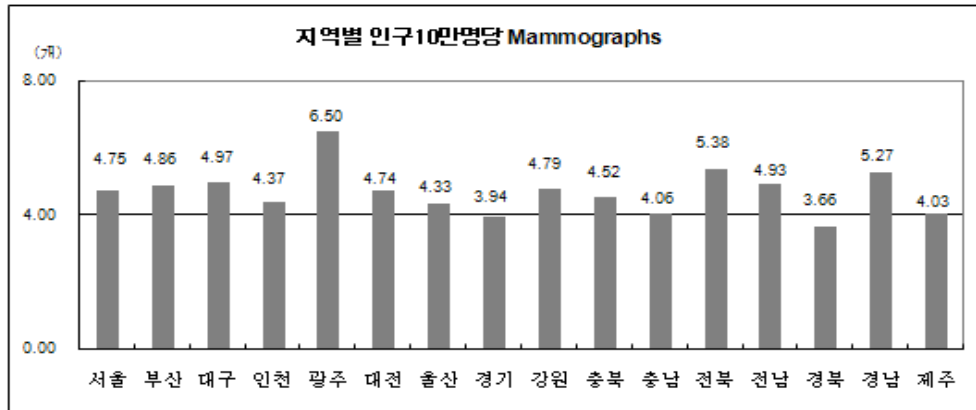
[그림 III-4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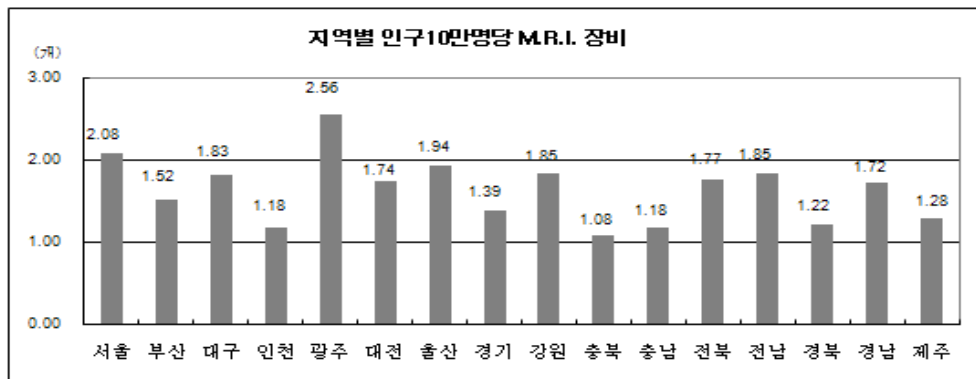
[그림 III-44]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 현황



[그림 III-45]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현황



[그림 III-46]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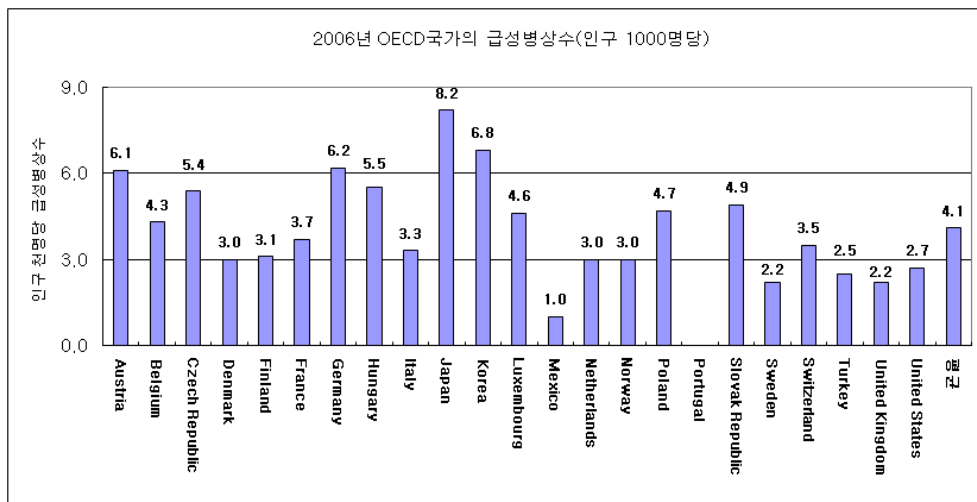


## Ⅳ.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 1.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병상은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sup>2)</sup>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6.8병상으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인 4.1병상보다 1.6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5배와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병상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수



2) 우리나라의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은 2008년 OECD통계에 제시된 2006년 통계수치를 적용하였음.

〈표 IV-1〉 OECD 국가의 급성 병상수

(단위: 인구 1000명당 병상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6.4	5.3		4.1	3.6	3.5	3.5	3.5	3.6	3.5	
Austria		8.3	7.5	6.8	6.3	6.3	6.2	6.1	6.2	6.1	6.1
Belgium			5.2	5	4.7	4.6	4.6	4.5	4.5	4.4	4.3
Canada	4.6	4.4	4	4.1	3.2	3.1	3.1	2.9	2.9	2.8	
Czech Republic	8.3	8.3	8.2	7	5.9	5.8	5.8	5.7	5.6	5.5	5.4
Denmark	5.3	4.7	4.1	3.9	3.5	3.4	3.4	3.3	3.1	3.1	3
Finland	4.9	4.8	4.3	4	3.4	3.4	3.4	3.3	3.1	3.1	3.1
France	6.2	5.7	5.2	4.6	4.1	4	3.9	3.8	3.8	3.7	3.7
Germany				7.5	6.8	6.7	6.6	6.6	6.4	6.4	6.2
Greece	4.9	4.3		3.9	3.8	3.8	3.8	3.8	3.8	3.9	
Hungary	6.6	6.8	7.1	6.5	5.8	5.6	5.5	5.5	5.5	5.5	5.5
Iceland			4.3	3.8							
Ireland	4.3	4.1	3.2	3.1	2.8	2.8	2.8	2.8	2.8	2.8	
Italy	8	7	6.2	5.6	4.1	3.9	3.7	3.5	3.4	3.3	3.3
Japan				12	9.6	9.3	8.9	8.5	8.4	8.2	8.2
Korea			2.7	3.8	5.2	5.2	5.7	6.2	6.4	6.6	6.8
Luxembourg									5.1	4.6	4.6
Mexico			1	1.1	1	1	1	1	1	1	1
Netherlands			3.8	3.4	3.1	3	3.2	3.1	3.1	3.1	3
New Zealand											
Norway	5.2	4.7	3.8	3.3	3.1	3.1	3.1	3.1	3.1	3	3
Poland	5.6	5.7	6.3	5.8	5.2	5.1	4.7	4.9	4.8	4.7	4.7
Portugal	4.1	3.5	3.4	3.3	3.2	3.2	3.1	3.1	3.1	3	
Slovak Republic					5.8	5.6	5.5	5.2	4.9	5	4.9
Spain	3.8	3.7	3.6	3.5	2.8	2.7	2.7	2.6	2.6	2.5	
Sweden	5.1	4.6	4.1	3	2.4	2.3	2.3	2.2	2.2	2.2	2.2
Switzerland	7.2	6.8	6.5	5.5	4.1	4	3.9	3.9	3.8	3.6	3.5
Turkey	1.5	1.6	2	2.1	2.2	2.2	2.1	2.3	2.4	2.5	2.5
United Kingdom				4.1	2.4	2.4	2.4	2.4	2.4	2.3	2.2
United States	4.4	4.2	3.7	3.4	2.9	2.9	2.9	2.8	2.8	2.7	2.7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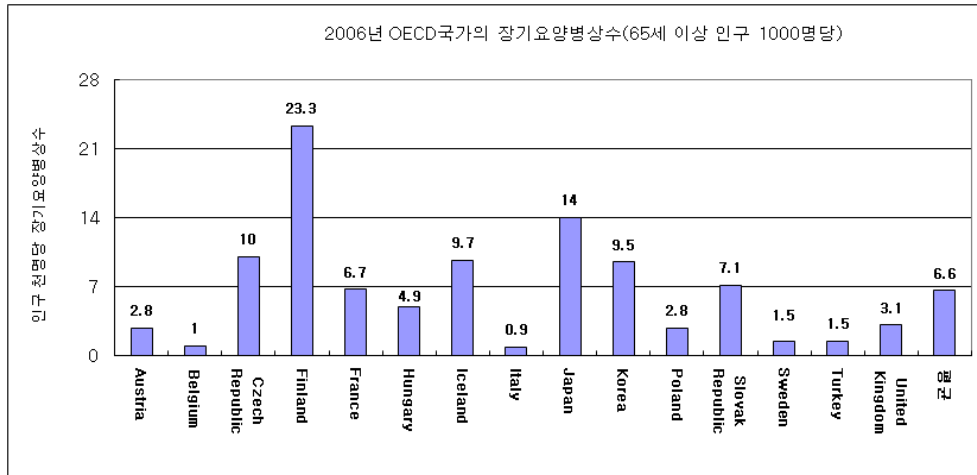
〈표 IV-2〉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수

(단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Austria		17.9	8.7	8.4	7.6	7.6	6.9	6.9	2.9	2.8	2.8
Belgium			3.3	1.1	1.1	1.1	1.2	1.2	1.1	1.1	1
Canada	22.7	22.7	17.2	2.7	1.7	1.8	1.8	1.6	1.5	1.9	
Czech Republic	4.2	5.9	6.7	4.9	8.2	8.7	9	9.4	9.9	10	10
Denmark											
Finland					27.8	27.1	26.6	25.9	25	24.3	23.3
France	5.1	7.7	8.5	9.1	8.8	8.7	8.4	8.1	7.7	7.2	6.7
Germany											
Greece											
Hungary				4.7	4.5	4.6	4.7	4.7	4.7	4.8	4.9
Iceland			28.3	23	13.3	11.5	12	11.6	10.4	9.6	9.7
Ireland			18.6	17.2	16.6	16.3	16	15.9	16	15.2	
Italy					1	1	0.9	0.9	0.9	0.9	0.9
Japan					12	12.9	13.8	15.1	15	14.9	14
Korea								2.1	2.5	5.8	9.5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0	0	0	0	0
New Zealand											
Norway											
Poland								3.2	3.2	3	2.8
Portugal											
Slovak Republic					10	10.3	10	9.8	9.5	8.1	7.1
Spain		2.3	2.3	2.1	1.9	1.9	1.9	2	2	2	
Sweden				3.6	2.1	1.8	1.6	1.6	1.6	1.5	1.5
Switzerland											
Turkey										1.5	1.5
United Kingdom			8.5	4.6	3.7	3.7	3.6	3.6	3.5	3.3	3.1
United States				1	0.9	1	0.9	0.9	0.8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그림 IV-2〕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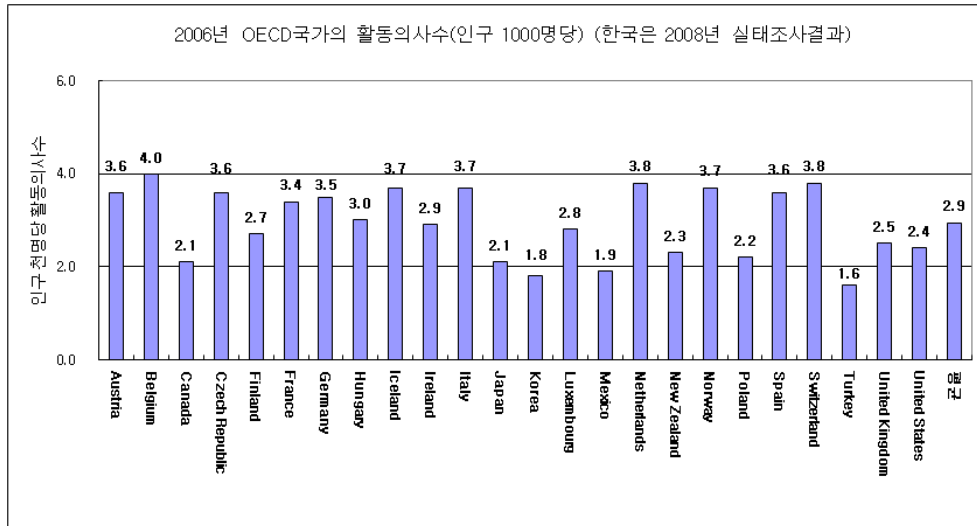


## 2. 보건의료인력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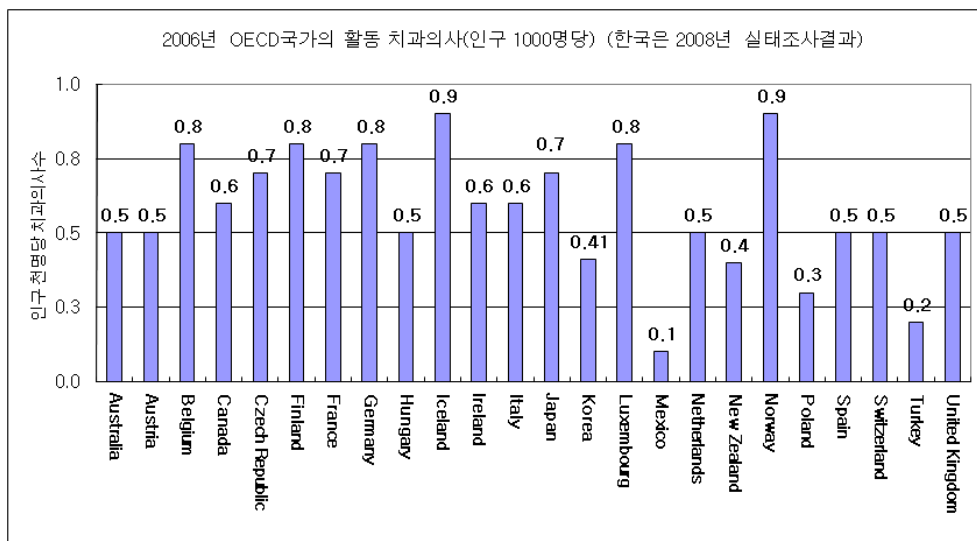
의료인력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통계치는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였고, OECD국가의 자료는 2008년 OECD 통계자료에서 나온 2006년 통계치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8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2.9명으로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한다. 치과 의사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 의사수는 0.41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치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0.5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사수의 경우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약사수는 0.66명으로 네덜란드, 터키, 노르웨이, 헝가리 등의 국가보다는 높고, 반면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는 낮았지만, OECD국가의 평균 약사인 0.7명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7.1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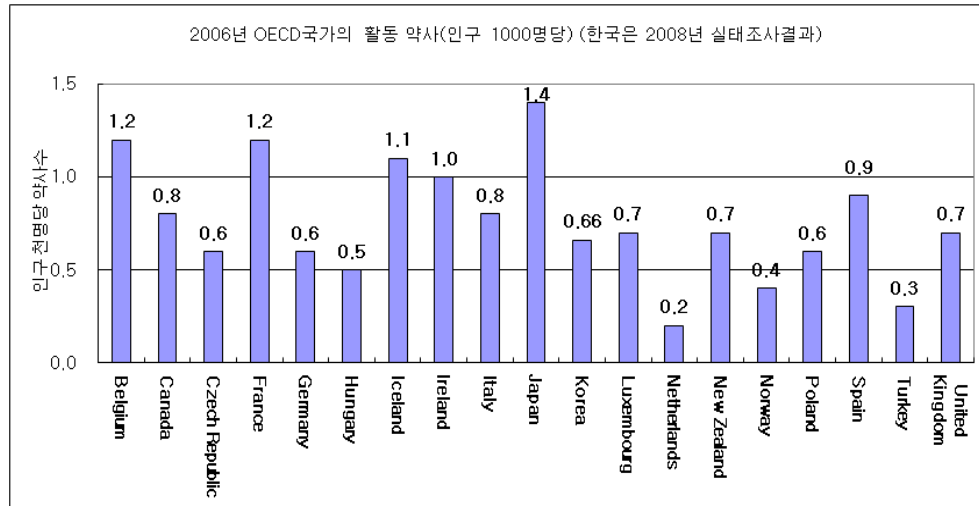
[그림 IV-3]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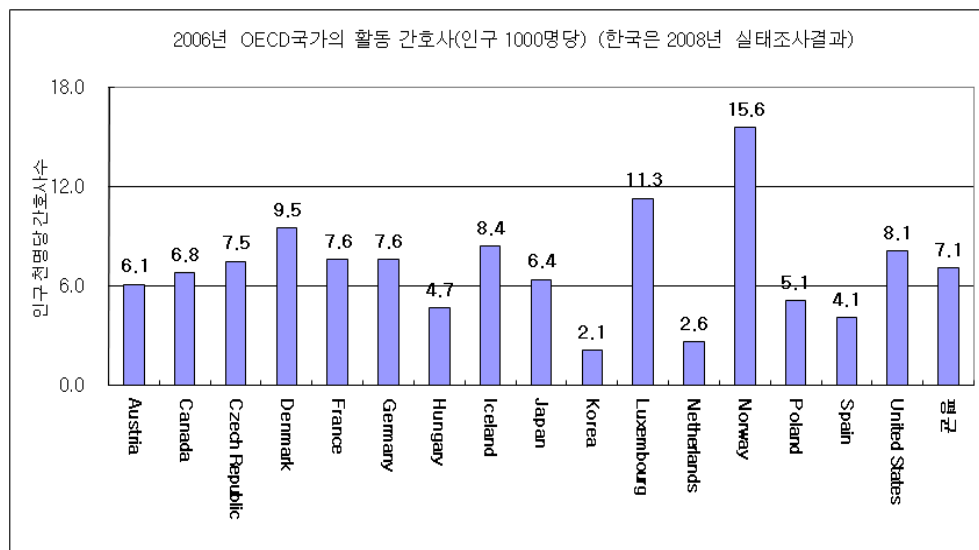
[그림 IV-4]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수



[그림 IV-5]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약사 수



[그림 IV-6]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 수



〈표 IV-3〉 OECD 국가의 활동의사 수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1.8	1.9	2.2	2.5	2.5	2.5	2.5	2.6	2.7	2.8	
Austria	1.6	1.9	2.2	2.7	3.1	3.2	3.3	3.4	3.5	3.5	3.6
Belgium	2.3	2.8	3.3	3.5	3.9	3.9	3.9	4.0	4.0	4.0	4.0
Canada	1.8	2	2.1	2.1	2.1	2.1	2.1	2.1	2.1	2.1	2.1
Czech Republic	2.3	2.6	2.7	3	3.4	3.4	3.5	3.5	3.5	3.6	3.6
Denmark	1.8	2.3	2.5	2.6	2.9	2.9	3.0	3.0	3.2	3.3	
Finland		2	2.3	2.4	2.8	2.8	2.6	2.6	2.7	2.7	2.7
France	1.9	2.7	3.1	3.2	3.3	3.3	3.3	3.3	3.4	3.4	3.4
Germany				3.1	3.3	3.3	3.3	3.4	3.4	3.4	3.5
Greece	2.4	2.9	3.4	3.9	4.3	4.4	4.6	4.7	4.9	5.0	
Hungary	2.3	2.5	2.8	3	3.1	3.2	3.2	3.2	3.3	2.8	3.0
Iceland	2.1	2.6	2.8	3	3.4	3.5	3.6	3.6	3.6	3.7	3.7
Ireland				2.1	2.2	2.4	2.4	2.6	2.8	2.8	2.9
Italy				3.9	4.1	4.3	4.4	4.1	4.2	3.8	3.7
Japan	1.3	1.5	1.7		1.9		2.0		2.0		2.1
Korea		0.6	0.8	1.1	1.3	1.4	1.5	1.6	1.6	1.6	1.7
Luxembourg	1.7	1.8	2	2.2	2.1	2.2	2.3	2.4	2.4	2.5	2.8
Mexico			1	1.7	1.6	1.5	1.5	1.6	1.7	1.8	1.9
Netherlands	1.9	2.2	2.5		3.2	3.3	3.4	3.5	3.6	3.7	3.8
New Zealand	1.6	1.7	1.9	2	2.2	2.2	2.1	2.2	2.2	2.1	2.3
Norway	2	2.2		2.8	2.9	3.0	3.4	3.4	3.5	3.7	3.7
Poland	1.8	2	2.1	2.3	2.2	2.3	2.3	2.5	2.3	2.1	2.2
Portugal	1.9	2.4	2.8	2.9	3.1	3.2	3.2	3.2	3.3	3.4	
Slovak Republic					3.1	3.1	3.1	3.1	3.1		
Spain				2.5	3.2	3.1	2.9	3.2	3.4	3.8	3.6
Sweden	2.2	2.6	2.9	2.9	3.1	3.2	3.3	3.4	3.4	3.5	
Switzerland	2.5	2.7	3	3.2	3.5	3.5	3.6	3.7	3.8	3.8	3.8
Turkey	0.6	0.7	0.9	1.1	1.3	1.3	1.4	1.4	1.5	1.5	1.6
United Kingdom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5
United States				2.2	2.3	2.3	2.3	2.4	2.4	2.4	2.4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4〉 OECD 국가의 활동 치과의사수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치과의사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Austria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0.5
Belgium	0.4	0.6	0.7	0.8	0.8	0.8	0.8	0.8	0.8	0.8	0.8
Canada	0.5	0.5	0.5	0.5	0.6	0.6	0.6	0.6	0.6	0.6	0.6
Czech Republic	0.5	0.5	0.5	0.6	0.6	0.7	0.7	0.7	0.7	0.7	0.7
Denmark	0.7	0.7	0.8	0.8	0.8	0.8	0.8	0.8	0.8	0.8	
Finland			0.9	0.8	0.8	0.8	0.8	0.8	0.8	0.8	0.8
France	0.6	0.6	0.7	0.7	0.7	0.7	0.7	0.7	0.7	0.7	0.7
Germany	0.7	0.8		0.7	0.8	0.8	0.8	0.8	0.8	0.8	0.8
Greece	0.8	0.9	1	1	1.1	1.1	1.2	1.2	1.2	1.2	
Hungary	0.2	0.3	0.4	0.4	0.5	0.5	0.5	0.5	0.5	0.4	0.5
Iceland	0.7	0.8	0.9	1	1.0	1.0	1.0	1.0	1.0	1.0	0.9
Ireland	0.3	0.3	0.4	0.4	0.5	0.5	0.5	0.5	0.6	0.6	0.6
Italy				0.4	0.6	0.5	0.5	0.5	0.6	0.6	0.6
Japan	0.4	0.5	0.6		0.7		0.7		0.7		0.7
Korea		0.1	0.2	0.2	0.3	0.3	0.3	0.3	0.4	0.4	0.4
Luxembourg	0.4	0.5	0.5	0.5	0.6	0.6	0.6	0.7	0.7	0.7	0.8
Mexico			0.1	0.1	0.1	0.1	0.1	0.1	0.1	0.1	0.1
Netherlands	0.4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New Zealand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Norway		0.8	0.8	0.8	0.8	0.8	0.8	0.8	0.8	0.8	0.9
Poland	0.5	0.5	0.5	0.5	0.3	0.3	0.3	0.3	0.4	0.3	0.3
Portugal	0.1	0.1	0.2	0.3	0.4	0.5	0.5	0.5	0.6	0.6	
Slovak Republic					0.5	0.5	0.5	0.5	0.5		
Spain	0.1	0.1	0.3	0.4	0.4	0.5	0.5	0.5	0.5	0.5	0.5
Sweden	1	1.1	1	0.9	0.8	0.8	0.8	0.8	0.8	0.8	
Switzerland	0.4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Turkey	0.2	0.2	0.2	0.2	0.2	0.2	0.2	0.3	0.3	0.3	0.2
United Kingdom	0.3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United States	0.5	0.6	0.6	0.6	0.6	0.6	0.6	0.6	0.6	0.6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5〉 OECD 국가의 활동 간호사수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7.8	7.7	7.7	7.7	7.9	7.7	
Austria	2.9	3.5	4	5.1	5.7	5.7	5.8	5.9	5.9	6.0	6.1
Belgium											
Canada	6.3	7.5	8.1	8.1	7.8	7.6	7.5	6.6	6.6	6.8	6.8
Czech Republic										7.5	7.5
Denmark					9.3	9.4	9.5	9.3	9.5	9.7	9.5
Finland											
France	4.6	5.2	5.4	5.9	6.5	6.7	6.9	7.0	7.2	7.4	7.6
Germany					7.3	7.4	7.4	7.5	7.5	7.6	7.6
Greece					1.3	1.4	1.5	1.6	1.5	1.6	
Hungary			4.2	4.2	3.8	4.0	4.2	4.2	4.3	4.5	4.7
Iceland	5.1	6.5	7	7.6	8.0	8.2	8.1	8.6	8.6	8.6	8.4
Ireland											
Italy											
Japan									6.0		6.4
Korea				1.1	1.4	1.5	1.7	1.7	1.8	1.9	2.0
Luxembourg				6.9	7.4	7.5	7.8	9.0	9.2	11.2	11.3
Mexico											
Netherlands									2.9	2.8	2.6
New Zealand											
Norway					10.3	10.4	14.2	14.4	14.9	15.3	15.6
Poland	4.4	4.8	5.5	5.5	5.0	4.9	4.9	4.7	4.9	5.1	5.1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3	3.6	3.7	4.1	4.0	4.2	4.2	4.1
Sweden	7	8.7	9.2	9.7	9.9	10.1	10.3	10.4	10.6	10.7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6.2	8.6	8.7	9.0	9.3	9.4	9.4	9.3
United States	5.6	6.5	7.2	7.9	7.8	7.8	7.8	7.7	7.9	8.0	8.1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6〉 OECD 국가의 활동 약사 수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 약사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0.5	0.6	0.8	0.6	0.7	0.8	0.9	0.7	
Austria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Belgium	1	1.1	1.2	1	1.0	1.1	1.1	1.2	1.2	1.2	1.2
Canada		0.6	0.7	0.7	0.8	0.8	0.8	0.8	0.8	0.8	0.8
Czech Republic	0.4	0.4	0.4	0.4	0.5	0.5	0.5	0.5	0.6	0.6	0.6
Denmark				0.2	0.2	0.2	0.2	0.2	0.2	0.2	
Finland											
France	0.7	0.8	0.9	1	1.1	1.1	1.1	1.1	1.1	1.2	1.2
Germany	0.4	0.5	0.6	0.5	0.6	0.6	0.6	0.6	0.6	0.6	0.6
Greece	0.5	0.6	0.7	0.8	0.8				0.9	0.9	
Hungary	0.3	0.3	0.3	0.3	0.5	0.5	0.5	0.5	0.5	0.5	0.5
Iceland	0.7	0.7	0.9	1.1	1.0	1.0	1.1	1.1	1.1	1.1	1.1
Ireland	0.6	0.6	0.6	0.7	0.8	0.8	0.8	0.9	0.9	0.9	1.0
Italy	0.8	0.9	1	1	1.1	1.1	1.1	1.2	0.9	0.9	0.8
Japan	0.5	0.6	0.7		1.1		1.2		1.3		1.4
<b>Korea</b>									<b>0.6</b>	<b>0.6</b>	<b>0.6</b>
Luxembourg	0.6	0.7	0.8	0.6	0.6	0.7	0.7	0.7	0.7	0.7	0.7
Mexico											
Netherlands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New Zealand		1	1	1	1.0	1.0	0.8	0.8	0.8	0.7	0.7
Norway							0.4	0.4	0.4	0.4	0.4
Poland	0.4	0.4	0.4	0.5	0.6	0.6	0.6	0.7	0.6	0.6	0.6
Portugal	0.5	0.5	0.6	0.7	0.8	0.8	0.8	0.9	0.9	1.0	
Slovak Republic					0.4	0.4	0.5	0.5	0.5		
Spain				0.6	0.8	1.0	0.9	0.9	0.9	0.9	0.9
Sweden	0.5	0.5	0.6	0.7			0.7	0.7	0.7	0.7	
Switzerland	0.4		0.5		0.5						
Turkey	0.3	0.2	0.3	0.3	0.3	0.3	0.3	0.3	0.3		0.3
United Kingdom			0.6	0.6			0.6	0.7	0.7	0.6	0.7
United States					0.8	0.8	0.8	0.7	0.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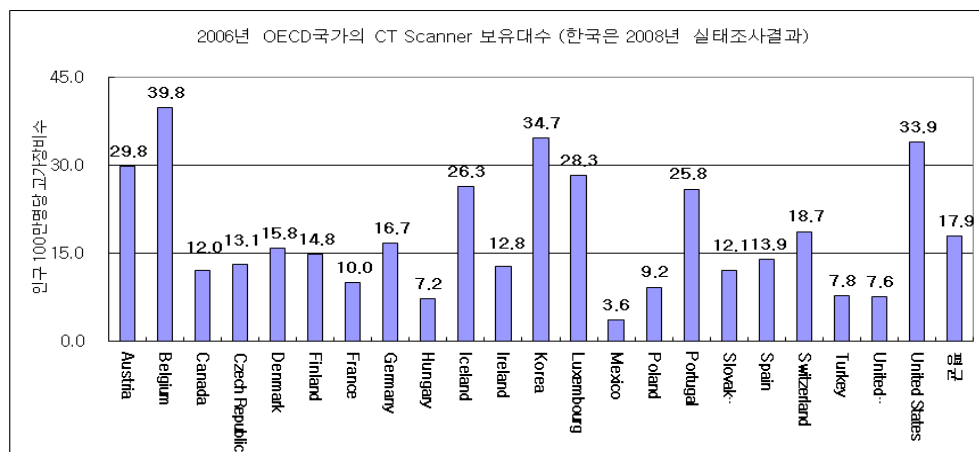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 3. 주요의료장비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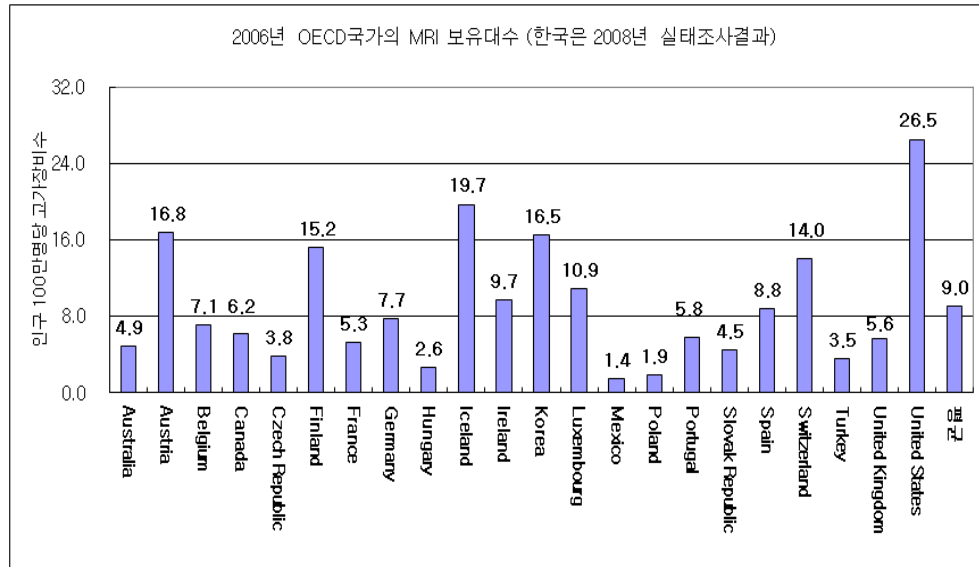
#### 가. 주요 고가장비의 국제비교

2008년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 실태조사 결과를 가장 최근자료인 OECD 국가(2006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CT Scanner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4.7대로 2006년 통계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벨기에를 제외한 국가보다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7.9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6.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0대보다 1.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2.7대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5.0대로 OECD 평균인 6.9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5.7대로 2006년 통계를 제시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18.3대보다 2.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충격파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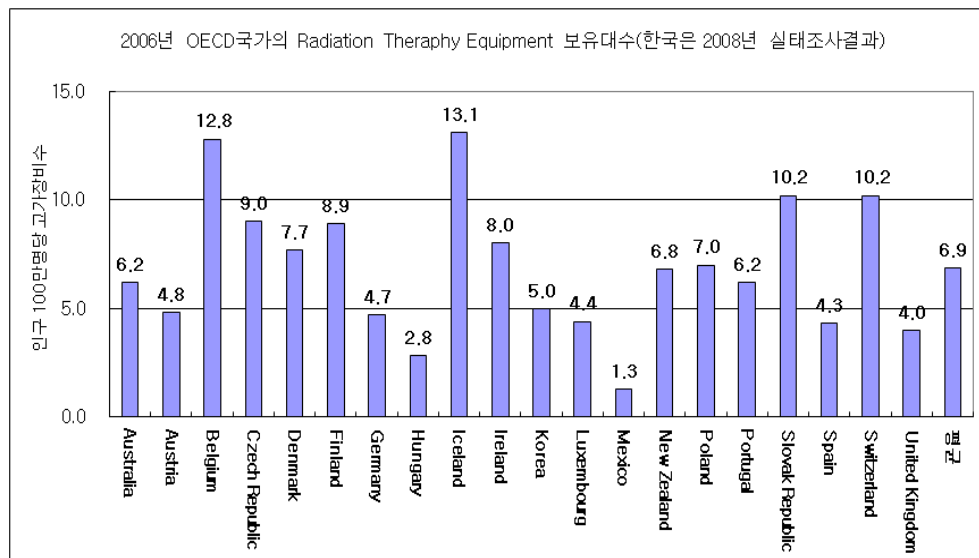
[그림 IV-7] OECD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그림 IV-8] OECD국가의 MRI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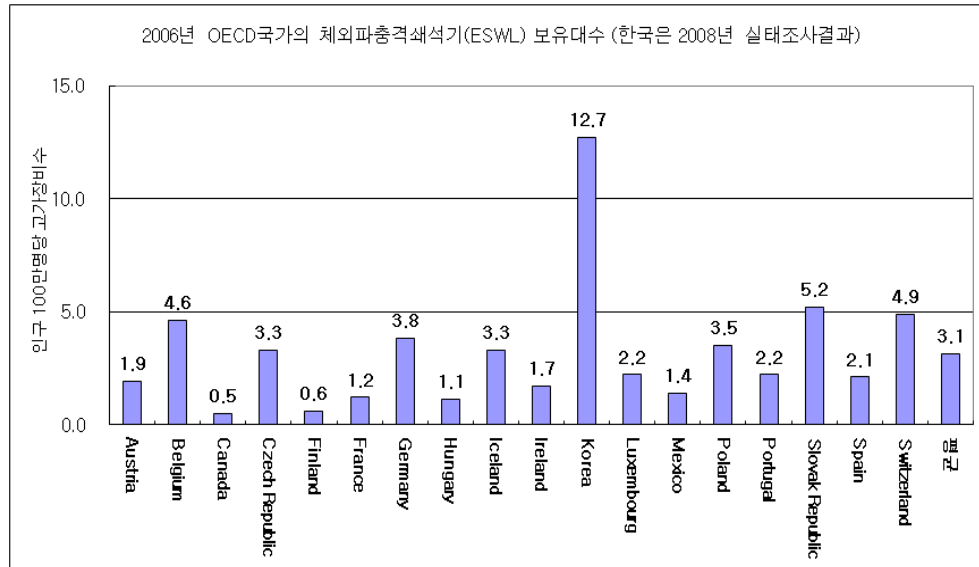


[그림 IV-9] OECD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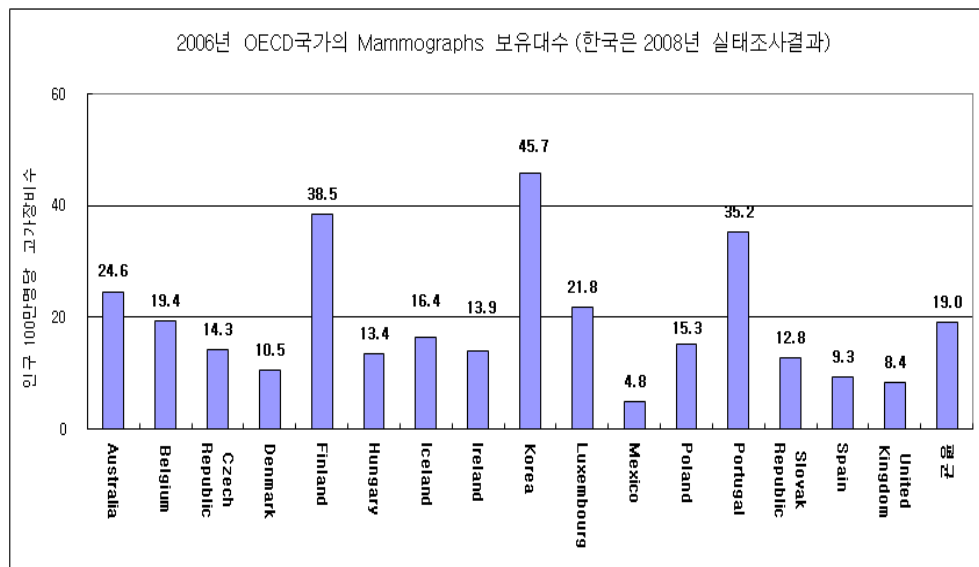




[그림 IV-10]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그림 IV-11] OECD국가의 Mammographs 보유대수



〈표 IV-7〉 OECD 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0.7	8.2	13.8	20.5	26.1	28.8	34.1	40.3	45.3	51.1	
Austria			11.7		25.8	26.3	27.2	27.2	29.2	29.6	29.8
Belgium			16.1		21.8	23.1	29.6	30.6	31.6	38.7	39.8
Canada			7.1	8		9.8		10.3	10.7	11.5	12.0
Czech Republic				6.7	9.6	11.4	12.1	12.6	12.6	12.3	13.1
Denmark	0.2	1.6	4.3	7.3	11.4	13.2	13.8	14.5	14.6	13.8	15.8
Finland	1.5	5.3	9.8	11.7	13.5	13.7	13.3	14.0	14.2	14.7	14.8
France		2.3	6.7	9.2	9.5	8.9	9.7	8.3	7.4	9.8	10.0
Germany				9	12.7	13.3	14.2	14.7	15.4	16.2	16.7
Greece	0.6	1.5	6.5				17.1			25.8	
Hungary	0.3	0.3	1.9	4.6	5.7	6.0	6.3	6.5	6.8	7.1	7.2
Iceland	0	8.3	11.8	18.7	21.3	17.5	20.9	20.7	17.1	23.7	26.3
Ireland			4.3							10.7	12.8
Italy			6		21.0	22.9	23.9	23.9	26.3	27.7	
Japan			55.2				92.6				
Korea				15.5	28.4	27.3	31.0	31.9	31.5	32.3	33.7
Luxembourg	2.7	5.4	5.2	26.6	25.2	24.9	24.7	26.7	28.7	28.6	28.3
Mexico						2.5	2.9	3.0	3.2	3.5	3.6
Netherlands			7.3							8.2	
New Zealand			3.6		8.8	10.6	11.2	11.5	12.1		
Norway											
Poland					4.4	5.2	5.8	6.3	6.9	7.9	9.2
Portugal			4.6					12.8		26.2	25.8
Slovak Republic								8.7	10.2	11.3	12.1
Spain				8.3	12.0	12.4	12.8	13.0	13.3	13.5	13.9
Sweden	1.9	4.9	10.5								
Switzerland					18.5	17.6	18.0	18.0	17.9	18.2	18.7
Turkey			1.6				7.5	7.3			7.8
United Kingdom					4.5	5.8	7.1	6.7	7.0	7.5	7.6
United States						28.9		29.2	32.2		33.9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8〉 OECD 국가의 MRI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0.6	2.9	3.5	3.8	3.7	3.7	3.7	4.2	4.9
Austria					10.9	11.6	13.4	13.6	15.9	16.2	16.8
Belgium			2	3.3	6.0	7.0	6.6	6.8	7.0	7.0	7.1
Canada		0.2	0.7	1.4	2.5	4.2		4.7	4.9	5.7	6.2
Czech Republic				1	1.7	1.9	2.2	2.5	2.8	3.1	3.8
Denmark			2.5		5.4		8.6	9.1	10.2		
Finland		0.4	1.8	4.3	9.9	11.0	12.5	13.0	14.0	14.7	15.2
France			0.8	2.1	2.6	2.4	2.7	2.8	3.1	4.7	5.3
Germany				2.3	4.9	5.5	6.0	6.2	6.6	7.1	7.7
Greece			0.4				2.3			13.2	
Hungary		0.1	0.1	1	1.8	2.0	2.3	2.6	2.6	2.6	2.6
Iceland			3.9	7.5	10.7	14.0	17.4	17.3	20.5	20.3	19.7
Ireland											9.7
Italy			1.3		7.7	9.0	10.8	11.9	14.1	15.0	
Japan			6.1				35.3			40.1	
Korea				3.9	5.4	6.8	7.9	9.0	11.1	12.1	13.6
Luxembourg			2.6	2.4	2.3	2.3	4.5	11.1	11.0	11.0	10.9
Mexico						1.1	1.2	1.4	1.3	1.4	1.4
Netherlands			0.9	3.9					6.2	6.6	
New Zealand								3.7			
Norway											
Poland							0.9	1.0	1.9	2.0	1.9
Portugal			0.8					3.9			5.8
Slovak Republic								2.0	3.7	4.3	4.5
Spain				2.7	4.8	5.7	6.2	7.3	7.7	8.1	8.8
Sweden		0.2	1.5	6.8							
Switzerland					12.9	12.9	14.1	14.2	14.3	14.4	14.0
Turkey							3.0	3.0	3.0		3.5
United Kingdom					4.7	5.2	4.8	4.4	5.0	5.4	5.6
United States				12.3		20.1		21.9	26.6		26.5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9〉 OECD 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2.5	2.9	4.4	5.2	5.1	5.4			6	6.2
Austria					4.2	4.5	4.5	4.4	4.5	4.6	4.8
Belgium				6.1	12.5	13.1	12.7	12.6	12.8	12.8	12.8
Canada				6.9							
Czech Republic				4.9	8.5	9.1	9	9.1	9.3	8.6	9
Denmark					5.4	5.4	6	6.3	6.3	6.8	7.7
Finland	11.3	10	10	8.6	8.7	8.7	8.8	9	8.8	8.8	8.9
France	5.7	5.9	6	6.2	6.1		6				
Germany				4.5	4.8	4.7	4.6	4.6	4.7	4.7	4.7
Greece			5.4	5.7							
Hungary	0.7	1	1.5		2.3	2.4	2.5	2.7	2.7	2.7	2.8
Iceland	17.5	16.6	23.5	15	14.2	14	13.9	13.8	13.7	13.5	13.1
Ireland										7	8
Italy			1.3		3.7	3.9	4.5	4.7	4.7	5	
Japan							6.6			6.8	
Korea				4.1	5.3	4.8	4.5	4.6	4.6	4.5	4.7
Luxembourg					4.6	4.5	4.5	4.4	4.4	4.4	4.4
Mexico						1.2	1.3	1.3	1.2	1.3	1.3
Netherlands				7.1							
New Zealand					9.9		8.1	7.2	7.6		6.8
Norway											
Poland											7
Portugal								3.3		6	6.2
Slovak Republic								7.1	9.3	9.8	10.2
Spain				3.3	3.7	3.8	3.7	3.8	3.9	4.2	4.3
Sweden											
Switzerland					10.4	9.7	10.6	9.9	9.2	9.8	10.2
Turkey						1.8		2.7			
United Kingdom							3.9	3.8	3.9	4.1	4
United States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10〉 OECD 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0.3	1	1.3	1.3	1.3	1.3	1.3	1.1	
Austria					1.7	1.8	1.9	1.8	1.8	1.9	1.9
Belgium					4.8	5	4.1	4.4	4.3	4.7	4.6
Canada		0	0.4	0.4		0.4		0.5	0.5	0.5	0.5
Czech Republic				2.4	2.8	2.9	3.2	3.4	3.1	3.1	3.3
Denmark											
Finland			0.2	0.2	0.4	0.4	0.4	0.4	0.4	0.4	0.6
France		0.1	0.7	0.8	0.9	0.8	0.7	0.7	0.6	0.8	1.2
Germany				1.9	3	3.3	3.3	3.3	3.5	3.7	3.8
Greece										1.4	
Hungary			0.3	0.7	0.9	0.9	1	1.1	1.1	1.1	1.1
Iceland					3.6	3.5	3.5	3.5	3.4	3.4	3.3
Ireland										1.7	1.7
Italy			1.7	2.4							
Japan			2.5				6.4			7.1	
Korea				3.5	4.4	4.8	6	6.8	7.8	9.2	10.7
Luxembourg				2.4	2.3	2.3	2.2	2.2	2.2	2.2	2.2
Mexico						0.8	1	1	1.2	1.3	1.4
Netherlands											
New Zealand								0.5			
Norway											
Poland								2.9	2.9	3.3	3.5
Portugal								1.4		2.2	2.2
Slovak Republic								4.3	5.2	5.6	5.2
Spain				1.7	1.8	1.8	1.8	1.8	1.8	1.9	2.1
Sweden											
Switzerland					4.5	4.2	4.3	4.5	4.7	4.7	4.9
Turkey				0		1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표 IV-11〉 OECD 국가의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ustralia										25.1	24.6
Austria											
Belgium							20.5	21.5	21.3	20.6	19.4
Canada						19.3				21.3	
Czech Republic				8.4	10.6	12.2	13.2	14.2	13.7	14.1	14.3
Denmark										10	10.5
Finland			29.3	37.6		37.6	39.6	39.5	37.7	37.7	38.5
France	5.7		23.8	42	42.5		42.2				
Germany											
Greece							27.9			36.5	
Hungary					9.4	10.4	11.4	11.8	12.6	13.1	13.4
Iceland	4.4	4.1	15.7	18.7	17.8	17.5	17.4	17.3	17.1	16.9	16.4
Ireland										12.6	13.9
Italy											
Japan											
Korea					13.3	13.5	19.4	24.8	27.2	28.8	34.1
Luxembourg				24.2	22.9	22.7	22.4	22.2	22.1	22	21.8
Mexico						2.8	3.4	3.8	4.3	4.6	4.8
Netherlands										3.9	
New Zealand						22.9	25.1	22.4	23.1		
Norway											
Poland					11	12.9	13.6	14.3	15.3	15.9	15.3
Portugal								11.6		34.6	35.2
Slovak Republic								13	13	13.6	12.8
Spain								10	10.2		9.3
Sweden											
Switzerland											
Turkey						6.3	6.7	6.5			
United Kingdom				5	6.1	6.6	7.3	7.9	8.2	8.4	8.4
United States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 V. 요약 및 정책과제

### 1. 요약

#### 가. 지역별 보건의료시설현황

##### ■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2008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7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29,861개로 37.2%, 그리고 약국은 20,809개로 2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치과병의원은 14,167개(17.7%), 한방병의원 11,818개(14.7%), 보건기관은 3,512개(4.4%)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9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은 61.4개, 치과병의원은 29.1개, 한방병의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2개, 약국 42.8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9%와 19.7%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140.1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569개, 경기도 5,975개, 부산 2,444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치과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429개, 경기도 3,059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5.5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49.5개로 조사되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1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과 경북으로 각각 19.2개소로 나타났다. 한방병의원의 경우 서울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6.1개소로 나타났다.

##### ■ 진료과 분포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25,973개이며, 그 중 내과가 20,190개로 2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4,893개(16.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일차진료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는 110.8개였으며,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48.4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91.5개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는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지역이 0.4개로 가장 적었다.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30,805개이고, 이 중 서울에 42,004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9,033개로 22.2%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60%이상 개설되어 있다. 한방병원의 진료과는 10개로 한방내과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총 102,273개이며, 이 중 서울에 29,988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19,908개로 19.5%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정도가 개설되어 있다.

#### ■ 지역별 병상분포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56,230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83,669병상(18.3%)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9,534병상(15.2%)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441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81개로 나타났다.

### 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 ■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비상근 포함)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는 총 74,394명이고, 치과의사는 19,974명, 한의사수는 15,165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05,933명, 간호조무사 103,957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138명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주요 보건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53.1명, 치과의사 41.1명, 한의사 31.2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는 서울이 2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 188.8명, 대전 184.0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110.5명이었다.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는 서울이 6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8.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만 명당 지원보건의료인력은 간호사 217.9명, 약사(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66.1명, 간호조무사 213.9명, 임상병리사 32.6명, 방사선사 31.8명, 물리치료사 41.5명, 작업치료사 3.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4.3명과 40.1명이었고, 지역별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광주가 3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5.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부산이 2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45.0명으로 가장 적었다.

#### 다.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 ■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중 혈관조영장치(ANGIO)는 362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1,553대, Gamma Camera 318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0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1,688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80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17대, 단층촬영장치(Mamographs) 2,220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Therapy Equipment) 242대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M.R.I.는 서울 209대, 경기 156대가 설치되어 전체 M.R.I.장비 중 45.6%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CT는 서울에서 304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와 부산 순으로 각각 312대와 129대가 설치되어 있다.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22대 경기지역에 13대가 설치되어 약 5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체외충격파쇄석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각각 125대, 121대로 나타났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52대, 46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다.

##### ■ 지역별 인구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 현황

인구 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74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3.20대, Gamma Camera 0.65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4대, 전산

화단층촬영장치(CT) 3.47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6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27대, 단층촬영장치(Mamographs) 4.5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0대로 나타났다. 인구10만명당 지역별 분포를 보면, CT는 전북이 5.84대로 가장 많고 제주가 2.02대로 가장 적었으며, M.R.I는 전남 광주에서 2.56대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08대로 나타났다. 단층촬영장치는 전남 광주에서 6.50대로 가장 많았고 경북지역이 3.66대로 가장 적었으며, 방사선치료장비는 대전지역이 0.80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이 0.14대로 가장 적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전남 광주가 1.80대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0.99대로 가장 적었다.

## 라. 주요 국가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 ■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6.8병상으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인 4.1병상보다 1.6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5배와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병상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보건의료인력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8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6배정도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 의사수는 0.41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은 0.5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25배 높았다. 약사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6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0.7명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인 7.1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의료장비 국제비교

CT Scanner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4.7대로 OECD 국가평균인 17.9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았고,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6.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0대보다 1.8배정도 많았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2.7대로 가장 많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많았다.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5.0대로 OECD 평균인 6.9보다는 다소 낮았고,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5.7대로 OECD 평균인 18.3대보다 2.4배 이상 높았다.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충격파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았다.

## 2. 정책과제

### ■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6.8병상으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인 4.1병상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병상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 변화

고가의료장비 중 대표적인 5개인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

외한 CT Scanner, MRI, 체외파충격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의료장비의 과잉공급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 하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자원배분 정책에는 일차진료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규·김은주,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적정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김모임, 우리나라 보건전문인력의 현황, 수요 및 교육. 보건전문인력의 교육방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1987; 1-46.
- 문옥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연제집), 1998,
- 명재일 외, 『의료전달체계 운영평가와 진료권별 병상수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연하청 외,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생활권』, 한국개발연구원, 1980.
- 오영호 외,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한달선 외, 「입원의료 진료권별 자체 충족도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23권, 제3호, 1990.
- Bergwall DF, Reeves PN, Woodside NB.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Washington, D. C.: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74, p.161.
- Bui Dang Ha Doan. Health Manpower Imbalances in the '90s: A Worldwide Panorama. Health Manpower out of Balance. XXth CIOMS conference, Acapulco, Mexico, 7-12, Sep.1986, pp.77-86.
- CIOMS. Health Manpower Out of Balance: Conflicts and Prospects. XXth CIOMS Conference, Acapulco, Mexico, 7-12 Sep. 1986.
- Fulop T, Roemer MI. Reviewing Health Manpower Development: A Method of Improving National Health System. Public Health Papers 83, Geneva:WHO, 1987.
- Gershon, S.K., Cultice, J.M., & Knapp, K.K., "How Many Pharmacists Are in Our Future"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s Projects Supply to 2020", Journal of the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00, 40(6), pp.757-764.
- Netherlands Institute of Primary Health Care. Health Care and General Practice across Europe. 1993.

OECD, OECD Health Data, 2006.

Petrou, S. and Wolstenholme, J., "A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Healthcare Resource Allocation", *Pharmacoeconomics*, 2000, 18(1), pp.33-43.

## 부 록



[부록 1: 조사표]

## **2008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1. 보건의료기관

## 1) 의료기관 기본정보

구 분		현 황	
일련번호 <sup>1)</sup>		<input type="text"/> - ① (자동부여) - <input type="text"/>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input type="text"/>	
운영현황		정상운영/휴업/폐업(뒤쪽 휴폐업신고현황에 따라 자동입력)	
부속의료기관 여부 <sup>2)</sup>		<input type="checkbox"/> ① 부속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비 부속기관	
개원연월일		년 월 일	
종별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전문요양기관(3차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의원 <input type="checkbox"/> ⑤ 치과병원 <input type="checkbox"/> ⑥ 치과의원 <input type="checkbox"/> ⑦ 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⑧ 한의원 <input type="checkbox"/> ⑨ 보건기관 <input type="checkbox"/> ⑩ 보건의원 <input type="checkbox"/> ⑪ 보건지소 <input type="checkbox"/> ⑫ 보건진료소 <input type="checkbox"/> ⑬ 결핵병원 <input type="checkbox"/> ⑭ 한센병원 <input type="checkbox"/> ⑮ 정신병원 <input type="checkbox"/> ⑯ 재활병원 <input type="checkbox"/> ⑰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⑱ 부속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⑲ 조산원	
		주소 주소검색으로 행정망코드 자동부여 나머지주소는 직접입력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대지면적 (※ 1평 = 3.3㎡)	
		건물 연면적 <input type="text"/> m <sup>2</sup> (※ 1평 = 3.3㎡) 일반시설 주차장 <input type="text"/> m <sup>2</sup> (※ 1평 = 3.3㎡)	
개설자		개설자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번호)	
		면허종별	자격종별 전문과목 자동부여(별첨1)
		면허번호 6자리	자격번호 6자리
의료기관 유형		특수(전문)병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결핵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한센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재활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정신병원	
		응급의료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④ 지역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⑤ 지역응급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⑥ 비지정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국립 <input type="checkbox"/> ② 국립대학 <input type="checkbox"/> ③ 공립 <input type="checkbox"/> ④ 학교법인 <input type="checkbox"/> ⑤ 특수법인 <input type="checkbox"/> ⑥ 종교법인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⑧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⑨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⑩ 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⑪ 의료법인 <input type="checkbox"/> ⑫ 개인 <input type="checkbox"/> ⑬ 군병원 <input type="checkbox"/> ⑭ 기타( )	
운영현황		<input type="checkbox"/> ①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응급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input type="checkbox"/> ⑥ 촉탁기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or 해당없음	

주: 1) 일련번호는 행정망코드 및 보건의료기관구분(5자리 및 1자리 - 자동부여) + 의료기관 일련번호(5자리 - '00001'부터 시작, 보건소부여)

2) 부속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효)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함. 대학부속병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면적을 말하며,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 의과대학, 강의실, 간호대학, 학생기숙사 등 교육관련 시설은 제외함

## 2) 시설 및 진료지원부문

## 가. 진료과

진료과명	코드	진료과명	코드	진료과명	코드
일반의	<input type="checkbox"/> 00	마취통증의학과	<input type="checkbox"/> 09	병리과	<input type="checkbox"/> 18
내과	<input type="checkbox"/> 01	산부인과	<input type="checkbox"/> 10	진단검사의학과	<input type="checkbox"/> 19
신경과	<input type="checkbox"/> 02	소아과	<input type="checkbox"/> 11	결핵과	<input type="checkbox"/> 20
정신과	<input type="checkbox"/> 03	안과	<input type="checkbox"/> 12	재활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1
외과	<input type="checkbox"/> 04	이비인후과	<input type="checkbox"/> 13	핵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2
정형외과	<input type="checkbox"/> 05	피부과	<input type="checkbox"/> 14	가정 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3
신경외과	<input type="checkbox"/> 06	비뇨기과	<input type="checkbox"/> 15	응급 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4
흉부외과	<input type="checkbox"/> 07	진단방사선과	<input type="checkbox"/> 16	산업 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5
성형외과	<input type="checkbox"/> 08	방사선종양학과	<input type="checkbox"/> 17	예방 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6
치과 일반	<input type="checkbox"/> 60	소아치과	<input type="checkbox"/> 53	구강악안면방사선과	<input type="checkbox"/> 57
구강악안면외과	<input type="checkbox"/> 50	치주과	<input type="checkbox"/> 54	구강병리과	<input type="checkbox"/> 58
치과보철과	<input type="checkbox"/> 51	치과보존과	<input type="checkbox"/> 55	예방치과	<input type="checkbox"/> 59
치과교정과	<input type="checkbox"/> 52	구강내과	<input type="checkbox"/> 56		
한방 일반	<input type="checkbox"/> 90	한방소아과	<input type="checkbox"/> 82	침구과	<input type="checkbox"/> 85
한방내과	<input type="checkbox"/> 8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	<input type="checkbox"/> 83	한방재활의학과	<input type="checkbox"/> 86
한방부인과	<input type="checkbox"/> 81	신경정신과	<input type="checkbox"/> 84	사상체질과	<input type="checkbox"/> 87
				한방응급	<input type="checkbox"/> 88

나. 진료지원 시설 및 기타 시설 부문

구 분		시설수	시설별 총면적(m <sup>2</sup> )
간호과			
영양과			
약제과(조제실)			
의무기록실(의무기록과)			
사회사업과			
의지 및 보조기 제작실			
중앙공급실			
혈액은행			
일반병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전염병실			
격리병실			
수술실			
중환자실			
회복실			
분만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조혈모세포치치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진료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한방용법실			
병리해부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보유현황	특수		
	일반		
분만실 <sup>1)</sup>			
낫병동			
기타			

주: 1) LDR을 제외한 일반 분만실, 가축 분만실 등을 포함함

## 다. 병상 현황

구 분				병상수
일반병상	입원실	기준병실		
		상급병실		
		LDR <sup>1)</sup>		
	중환자실 <sup>2)</sup>	성인		
		소아·신생아	병상	
			베시넷	
			인큐베이터 <sup>3)</sup>	
	신생아실 (베시넷)			
	무균치료실			
	격리실			
소계			자동계산	
재활병상	-			
요양병상	-			
정신병상	-			
한방병상	-			
계				자동계산

- 주: \* 실제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환자의 요구 시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침대 없이 온돌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전염병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병상, 폐쇄 조치된 병동 내 병상은 제외됨  
 1) LDR은 진통, 분만 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입원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입원실을 말함  
 2) 세부 구분이 없는 경우, 성인 란에 기재  
 3) 별도의 신생아중환자실 없는 경우, 신생아실에 설치된 인큐베이터 수를 포함함

※ 병상구분

- “일반병상”이라 함은 주로 30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의 병상을 포함한다.
  - 일반 입원실 병상 외에 1일(24시간) 이상의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병실내 병상을 모두 포함함
  - 입원의료서비스 목적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인 경우,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일부 병상도 포함
  - 신생아실의 bassinets 및 incubator는 모두 포함
  -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 병동, 외래진료실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병상은 제외
- “재활병상”이라 함은 주로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입원의료서비스의 목적이 질병 회복과 재활로써 “일반병상”에서의 조기 퇴원환자 중 회복 치료 필요자가 해당
  -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재활병원 및 재활병동 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재활병상”
- “요양병상”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2항에 의한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제34조6항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기타 일반 의료기관내 요양병동에서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회복 불가능자 중 의료·간호·재활서비스를 요하는 장기 재원환자
  - 병원 내 병상 또는 병동 내 병상,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요양병동 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요양병상”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대상 병상은 제외
  - 호스피스 병상 포함
  -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
- “정신병상”이라 함은 정신보건법제3조3항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주로 정신질환에 의한 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이 일반 병·의원 내 정신과를 포함함에 따라, 정신병원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 내 정신병상도 포함
  - 단,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신병원 및 정신병동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정신병상”
- “한방병상”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2항에 의한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일반병원 내 한방진료부(과)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한방병상으로 인정
  - 한방병·의원 및 한방병동 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한방병상”
- “기타병상”이라 함은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병상을 제외한 병상

## 라. 입원실 현황

※ 기준병실 기준 (        ) 인실

구분	병실수	병상수	병실별 총면적
1인실 <sup>1)</sup>		자동계산	m <sup>2</sup>
2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3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4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5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6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7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8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9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10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11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12인실		자동계산	m <sup>2</sup>
기타		직접입력	m <sup>2</sup>
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

주: \*병실의 제반 여건에 관계없이 실제 병실에 설치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함

1) 특실 등을 모두 포함함

130 2008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 인력 현황

구 분			종사자수			구 분			종사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의사	일반의	상근				간 호 사	일반간호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인턴	상근					보건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레지던트	상근					마취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치과 의사	전문의	상근					정신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계	상근					가정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일반의	상근					응급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한 의 사	인턴	상근					산업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레지던트	상근					노인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전문의	상근					감염관리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약 사	계	상근					호스피스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일반의	상근					중환자전문	상근			
		비상근						비상근			
	일반주련 의	상근					치과기공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약 사	전문주련 의	상근					치과위생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전문의	상근				응급의 료기사	1급	상근			
		비상근						비상근			
	계	상근					2급	상근			
		비상근						비상근			
조 산 사	약사	상근					의무기록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한약사	상근				동위원 소취급 사	일반	상근			
		비상근						비상근			
	계	상근					특수	상근			
		비상근						비상근			
간 호 조 무 사	조산사	상근					안경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간호조무사	상근					영양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간호보조원	상근					조리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임 상 병 리 사	임상병리사	상근					사회복지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방사선사	상근					일반직 및 기타	상근			
		비상근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자원봉사자	상근			
		비상근						비상근			
작 업 치 료 사	작업치료사	상근									
		비상근									

【기입요령】

- 1)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귀 보건의료기관 소속으로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위탁업체 종사자 포함)를 기입
- 2) 근로형태 구분
  - 상 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근로한 인력
  - 비상근: 위의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





【가입요령】

1.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귀 보건 의료 기관 소속으로 진료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의료 인력 기입
2.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입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둘 것.
3. '면허종별'란에는
  1. 의사      2. 치과 의사      3. 한 의사      4. 약사      5. 간호사      6. 임상 병리사,
  7. 방사선사      8. 물리 치료사      9. 작업 치료사      10. 치과 기공사      11. 치과 위생사      12. 응급 구조사
  13. 간호 조무사      14. 의무 기록사      15. 안경사
 중 해당 사항을 번호로 기입.
4. '구분'란에는 면허종별이
 

의사, 치과 의사 : 1. 전문의    2. 레지던트    3. 인턴    4. 일반의    5. 공중 보건 의

한 의사 : 1. 일반의    2. 일반 수련의    3. 전문 수련의    4. 전문의

약사 : 1. 약사    2. 한약사

간호사 : 1. 일반 간호사    2. 보건 전문 간호사    3. 마취 전문 간호사    4. 정신 전문 간호사    5. 가정 전문 간호사

        6. 응급 전문 간호사    7. 산업 전문 간호사    8. 노인 전문 간호사    9. 감염 전문 간호사

        10.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11. 중환자 전문 간호사

 중 해당 사항을 번호로 기입.
5. '전문과'란에는 면허종별이
 

의사 : 1. 내과    2. 소아과    3. 신경과    4. 정신과    5. 피부과    6. 일반 외과    7. 흉부 외과    8. 정형 외과    9. 신경 외과

        10. 성형 외과    11. 산부인과    12. 안과    13. 이비인후과    14. 비뇨기과    15. 결핵과    16. 재활 의학과    17. 마취과

        18. 진단 방사선과    19. 치료 방사선과    20. 임상 병리과    21. 해부 병리과    22. 가정 의학과    23. 응급 의학과

        24. 핵 의학과    25. 산업 의학과    26. 예방 의학과

치과 의사 : 1. 구강 악안면 외과    2. 치과 보철과    3. 치과 교정과    4. 소아 치과    5. 치주과    6. 치과 보존과

        7. 구강 내과    8. 구강 악안면 방사선과    9. 구강 병리과    10. 예방 치과

한 의 사: 1. 한방 내과    2. 한방 부인과    3. 한방 소아과    4. 한방 안·이비인후과    5. 한방 신경정신과    6. 침구과

 중에서 해당 사항을 번호로 기입.
6. '생년월일'란은 주민등록에 있는 생년월일을 기입.
7. '성별'란은 남자는 1, 여자는 2 를 기입.
8. '전문 의 자격 번호'에서 2가지 이상의 전문 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된 1가지만을 기입.
9. '상근직'란에는 상근은 1, 비상근은 2 를 기입.
  - ① 상 근: 의료 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조사 기준일 이전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근무한 인력
  - ② 비상근: 위의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

## 4) 장비 현황

(※ 2008년 조사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수량을 기재)

## (검사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	Urine Analyzer		25	EMG & EP		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2	분광광도계(Spectro Photometer)		26	안 저 카 메 라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장비	
3	자동혈구계산기(Automatic Cell Counter)		27	순 음 청 력 계 기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4	Hct 원 심 분 리 기		28	자 기 청 력 계 기		52	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5	혈 액 화 학 자 동 분 석 기		29	임 피 던 스 청 력 계 기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6	전 해 질 분 석 기		30	관 절 경(Arthroscope)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7	칼 습 분 석 기		31	자보현수후두경(Suspension Laryngoscope)		55	Nephelometer	
8	혈 중 가 스 분 석 기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56	기립경사테이블(Tilt Table)	
9	자동혈액응고기(Automatic Coagulyzer)		33	기 관 지 경(Bronchoscope)		57	지 각 계	
10	CO-Oximeter		34	흉 강 경, 중 격 동 경		58	Scheimplug Camera	
11	전기영동기(Electrophoresis)		35	식 도 경(Esophagoscope)		59	안 내 형 광 분 석 기	
12	Flow Cytometer		36	위경(Gastro(fiber)scope)		60	위 전 도 기 기	
13	ELISA Process		37	십이지장경(Duodenoscope)		61	삭제	
14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38	담도경(Choledochoscope)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15	동 결 절 편 기		39	대 장 경(Colonscope)		63	이 내 시 경	
16	Drug Monitoring System		40	직 장 경(Rectoscope)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Cervicoscope)	
17	Gamma-Counter		41	S 상 결 장 경		65	요관경(Ureteroscopy)	
18	근전도검사장비(EMG)		42	복강경(Laparoscope)		66	Mapping 장비	
19	호흡기능검사장비(Spirometer)		43	골 반 경(Culdoscope)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20	심 전 도 기(EKG)		44	자궁경(Hysteroscope)		68	세균배양기	
21	EKG Monitor		45	질확대경(Colposcope)		68	건열멸균기	
22	Holter Monitor		46	방 광 경(Cystoscope)		69	고압멸균기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47	요도경(Urethroscope)		70	광학현미경	
24	뇌파검사기(EEG,디지털)		48	초음파영상진단기		71	혈액냉장고	
						72	크린벤취	

주: \* 기타- 위 장비 이외에 필요시 추가할 것

## (방사선진단및치료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71	X-Ray 촬영 장 치		81	치과근관장측정기		91	후장전치료장치(After Loading System)	
72	X-Ray 촬영 · 투시장치		82	Scan-용 Gamma Camera		92	이리디움 치료기	
73	혈관조영장치 (Single)		83	Spect-용 Gamma Camera		93	골밀도 검사기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84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기(Spect)		94	원자흡광광도기	
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85	방사성동위원소 (Scanner)		95	혈액 방사선조사기	
76	C - Arm 형 장 치		86	CT scanner (두 부 용)		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7	Tomography		87	CT scanner (전 신 용)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78	Mammography		88	M · R · I 장 비			기 타	
79	영상재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89	코 발 트 치 료 기				
80	치과용방사선장치		90	선형가속치료장치(Linear Accelerater)				

## (이학요법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11	보 행 풀		123	보 육 기		135	F E S 장 비	
112	전 신 풀		124	Laser 치 료 기		136	E D I T	
113	Whirl Pool Bath (수족지용)		125	표층열치료기(TDP, Hot pack)		137	S S P	
114	Whirl Pool Bath (전 신 용)		126	적외선치료기 (Infra Red)		138	운 동 기 구	
115	Hubbard Tank		127	적외선체열 진단기		139	냉 동 치 료 기	
116	간 혈 적 견 인 장 치		128	초음파치료기(Ulta Sound, Micro Wave)		140	대 조 욕 (Contrast Bath)	
117	전기자극치료기(EST)		129	초 단 파 치 료 기		141	등속성운동치료기 (Isokinetic)	
118	저주파치료기 (TENS)		130	극 초 단 파 치 료 기		142	파동형공기압치료기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131	증 기 욕		143	Fluidotherapy Unit	
120	피부 광 화 학 치 료 기		132	자 외 선 치 료 기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121	Phototherapy Unit		133	정 규 욕 조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전기)	
122	간 혈 적 양 압 흡 입 기		134	파 라 핀 욕			기 타	

## (수술 및 처치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51	전 신 마 취 기		159	대동맥내풍선펌프기(IABP System)		167	인 공 신 장 기	
152	인공호흡기 (Volume)		160	Pheresis 기		168	조혈모세포냉동기	
153	인공호흡기(Pressure)		161	Cryosurgery Unit		169	Nebulizer	
154	Resuscitator		162	Laser 수 술 장 비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155	고압산소치료기		163	수술용현미경(Operating Microscope)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156	Oxygen tent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기 타	
157	Defibrillator		165	온열암치료기(Hyperthermia System)				
158	인 공 심 폐 기		166	외종양치료기 (Gamma Knife)				

## (한방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81	양 도 락		187	적외선체열진단기		193	견 인 장 치	
182	맥 전 도		188	색 채 요 법 기		194	전 산 화 팔 강 검 사 기	
183	전 기 침 시 술 기		189	체 성 분 분 석 기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184	레이저침시술기		190	맥 파 기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185	전 자 침 시 술 기		191	가 속 도 맥 파 기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186	경락기능검사기		192	추 나 치 료 대		198	황제무연뜸기	
						199	스트레스 진단기추가	

주: \* 기타- 위 장비 이외에 필요시 추가할 것

## □ 장비별 형식 및 규격 번호

번호	장비명	형식 및 규격 번호	내역	수량
23	뇌파검사기 (EEG)	23-1	EEG 아날로그(18채널 이상)	
		23-2	EEG 아날로그(18채널 미만)	
		23-3	Video EEG 64채널 이상	
		23-4	Video EEG 64채널 미만	
		23-5	EEG 디지털(18채널 이상)	
		23-6	EEG 디지털(18채널 미만)	
79	치과용방사선장치	79-1	치과용방사선장치(일반)	
		79-2	치과용방사선장치(디지털)	
80	치과방사선 파노라마장치	80-1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일반)	
		80-2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디지털)	
93	골밀도검사기	93-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Dual-Energy(Photon) Absorptiometry)	
		93-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 (QCT or PQCT)	
		93-3	단광자 골밀도 측정기 (SPA)	
		93-4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측정기(PDEXA)	
		93-5	단에너지 골밀도 측정기(SXA)	
		93-6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QUS)	
		93-7	방사선 흡수 측정기	
		93-8	기타	
77	단층촬영장치	77-1	단층촬영(Tomography)	
		77-3	유방(Mammography)	
165	온열암치료기 (Hyperthermia System)	165-1	Prostron	
		165-2	Prostalase	
		165-3	ND Yag Laser	
		165-4	Diode Laser	
		165-5	TUNA	
		165-6	Thermex I	
		165-7	Thermex II	
		165-8	Microfocus	
		165-9	Prostacare	
		165-10	Proststhermer	
		165-11	Primus	
		165-12	BSD50	
166	뇌종양치료기	166-1	감마나이프(GammaKnife)	
		166-2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 5) 진료실적 현황

(※ 연간 총진료실적에 한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기준연도 :           년)

급여종류	외래환자 연환자수 (총방문횟수)	입원환자수(DRG 포함)											
		실환자수						연환자수(총재원일수)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	계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	계
1. 건강보험							자						자
2. 의료급여							동						동
3. 산재보험							계						계
4. 자동차보험							산						산
5. 일반 및 기타							"						"
합 계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 주: 1. 입원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기재함  
 2. 입원연인원은 입원환자 또는 퇴원환자의 총재원일수를 기재하며, 단입법으로 계산. 예를 들어 7월1일 입원, 7월3일 퇴원의 경우 입원연인원은 총 2일  
 3. 입원환자에는 DRG환자를 포함  
 4. 입원환자 구분은 각 병상에 재원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일반병상에 재원한 환자는 '일반'란에 기재하고 재활병상에 재원환자는 '재활'란에 기재. 재원도중 별도의 퇴원조치 없이 병상을 바꾼 경우, 나누어서 산정. 예를 들어 홍길동이 7월1일 일반병상 입원하여 7월7일 재활병상으로 전환하여 7월10일 퇴원한 경우, 실환자수 일반 및 재활 각1명, 총재원일수 일반 6일, 재활 3일로 산정  
 5.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 등의 재원환자는 포함하지 않음  
 6.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자수는 포함하지 않음  
 7. 신생아는 산모와 별도로 계산. 예를 들어 산모가 7월1일 입원하여 7월2일 분만하고 7월4일 퇴원하였을 경우, 입원실인원은 2명, 연인원은 산모 3일, 신생아 2일로 계산  
 8. 급여종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개인당 급여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일반 및 기타는 전액 자비 등 상기 4대 보험 이외의 환자를 말함

## ■ 의료 인력당 진료실적 (자동 집계창)

구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간호사
의료인력당 진료실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    )인 ※외래환자3인은 입원환자1인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    )인 ※외래환자12인은 입원환자1인

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는 각각의 연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임

6)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연번	신청날짜	구분	휴 · 폐업 · 재개업 날짜/기간 ※기간은 휴업일 경우만	진료기록부 보관장소 및 책임자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7) 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 정보

연번	날짜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구분에 따라 다른 창이 뜸)	사유(근거법령)	비고
		①의료인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②의료기관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⑭자격정지 10월 ①허가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업무정지 15일 ⑤업무정지 1월 ⑥업무정지 2월 ⑦업무정지 3월	법/영 ( )조 ( )항 (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①의료인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②의료기관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⑭자격정지 10월 ①허가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업무정지 15일 ⑤업무정지 1월 ⑥업무정지 2월 ⑦업무정지 3월	법/영 ( )조 ( )항 (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 2. 약국

## 1) 약국 기본정보

구 분		현 황
일련번호 <sup>1)</sup>		□□□□□ - ③ (자동부여)- □□□□□
약국명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
운영현황		정상운영/휴업/폐업(뒤쪽 휴폐업신고현황에 따라 자동입력)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소검색으로 행정망코드 자동부여
		나머지주소는 직접입력
전화번호		□□□ - □□□□ - □□□□
면 적 <sup>2)</sup>	계약면적	m <sup>2</sup> (※ 1평 = 3.3m <sup>2</sup> )
	사용면적	m <sup>2</sup> (※ 1평 = 3.3m <sup>2</sup> )
입지위치		<input type="checkbox"/> 지하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2층이상
개설자	개설자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6자리

주: 1) 일련번호는 행정동코드 및 보건의료기관구분(5자리 및 1자리 - 자동부여) + 약국 일련번호 (5자리 - '00001'부터 시작, 보건소부여)

2)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전체면적을 말함



2) 인력 현황

(※ 시행원년 일괄 입력 이후에는 신규 및 퇴직, 휴직 인력만 업데이트함(정상근무 인력은 추가 입력 필요 없음))

가. 약사 현황

성명	면허번호	주민번호	발령일자	근무현황	구분
	6자리			①신규·정상근무 ②퇴직 ③휴직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6자리			①신규·정상근무 ②퇴직 ③휴직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나. 기타 인력

구분	인원(명)			
	상근	기간제	시간제	외주
약국종업원(전산원 등)				
기타( )				

3) 약제 장비현황

번호	명칭	수량	번호	명칭	수량	번호	명칭	수량
1	자동분포기		5	약봉투 또는 투약 라벨 작성기		9	집진기(Dust Collector)	
2	자동분쇄기		6	투약카(Medication Cart)		10	수제대	
3	정제계수기		7	무균조제대(Clean Bench)				
4	자동정제조제기(ATC)		8	조제약 배송시설(Conveyor)				

## 4) 조제실적현황

(※ 연간 총조제실적(조제건수)에 한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기준연도 :       년)

급여종류	조제실적	
	조제건수	약제비(약값+조제수가)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일반맞기타		
6. 일반매약 (처방전 외)		
합 계		

## ■ 약사인력당 조제실적 (자동 집계창)

구분	총 조제건수	총 약사수	약사 당 조제건수
약사인력 당 조제실적			

## 5)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연번	신청날짜	구분	휴 · 폐업 · 재개업 날짜/기간 ※기간은 휴업일 경우만	비고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6) 약국 행정처분사항 정보

연번	날짜	행정처분 구분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구분에 따라 다른 창이 뜸)	사유(근거법령)	비고
		①약사 ②약국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⑩자격정지 12월 ①등록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3일 ⑤ 업무정지 7일 ⑥ 업무정지 15일 ⑦ 업무정지 1월 ⑧ 업무정지 3월 ⑨ 업무정지 6월 ⑩ 업무정지 7월 ⑪ 업무정지 10월	법/영 ( )조 ( )항 (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 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①약사 ②약국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⑩자격정지 12월 ①등록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3일 ⑤ 업무정지 7일 ⑥ 업무정지 15일 ⑦ 업무정지 1월 ⑧ 업무정지 3월 ⑨ 업무정지 6월 ⑩ 업무정지 7월 ⑪ 업무정지 10월	법/영 ( )조 ( )항 (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 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0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미정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미정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미정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미정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미정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미정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미정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미정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미정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미정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미정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미정
연구 08-20-1	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2	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3	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미정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미정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미정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액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미정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08-22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2년차)	정영호	미정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미정
연구 08-24-1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24-5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미정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구 복지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상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